



2015 LGBTI 인권포럼

우리는 원한다!

2015년 3월 21일(토)~22일(일)

서강대학교

- 주최 -

서강퀴어모임&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서강대학교 여성주의학회 들깡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국색 여성주의학회 이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후원 -

청년서강 45대 총학생회 MATE

시간표_목차_장소

3월 21일(토)

섹션1 10:30 ~ 12:00

[토론회]

결혼과 가족 :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4page

진행 : 성소수자가족구성권네트워크

K201호

[토론회]

축제의 정치, 쟁점과 전략

12page

진행 : 더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K203호

섹션2 13:00 ~ 15:00

[이야기방]

광장에서 만난 기독교의 두 얼굴

39page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K201호

[이야기방]

그 페미니스트 참 퀴어하다

44page

언니네트워크

K203호

[토론회]

성소수자 정당 정치의 과거, 현재, 미래

51page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3당 공동 토론회

K202호

전체토론 16:30 ~ 17:30

[전체토론]

조직화된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는 성소수자 운동의 자세

70page

진행 : 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K202호

2015 LGBTI 인권포럼 자료집

발행 _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lgbtact.org | lgbtqact@gmail.com | facebook _ lgbtactkr

편집 _ 장병권

인쇄 _ 한울타리

3월 22일(일)

섹션1 10:30 ~ 12:00

[이야기방]

85page

성소수자 자살예방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간담회

K201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마음연결 프로젝트

[이야기방]

95page

땡동, 앞으로 뭐 할 건데?

—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땡동 설립의 의미와 기대

K203호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땡동

2015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공동행동 간담회

118page

섹션2 13:00 ~ 15:00

[이야기방]

105page

성소수자 운동과 만난 연대

진행 : 기즈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K202호

[이야기방]

106page

성소수자와 성소수자를 자녀로 둔 부모 간의 솔직담백 토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부모모임

K201호

전체토론 16:30 ~ 17:30

[2015LGBTI 인권포럼 마무리 문화제]

112page

우리는 원한다!

진행 : 장병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K202호

[토론회]

결혼과 가족 :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성소수자가족구성권네트워크

동성애 동거 커플 연구를 통해 돌아본 동성애자 커뮤니티의 동거 실천과 ‘가족’¹⁾

한빛나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 스스로를 ‘가족’이라고 말하는 동성애 동거 커플은 누구인가? 이들은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원하는가? “가족이라고 불리우는 단일체에 대한 수사적 공격보다 더욱 유용한 것은 가족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그 가족이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다 (Weston, 1991)”
- 물론 동성애가족/성소수자가족이 항상 동성애 동거 커플 관계만을 일컫지는 않는다. 성소수자로 정체화한 부/모 1인과 그 자녀, 성애적 관계가 아니더라도 성소수자로 이루어진 공동체 가족 등등 다양한 구성원과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본 발표에서는 우선 “동성애 동거 커플 (14사례 중 레즈비언 커플 9사례, 게이 커플 5사례)”, 그리고 “동성애 동거 커플과 그 사이 자녀 (레즈비언 커플 1사례, 인공수정으로 임신출산)”의 15사례에 초점을 맞춘다. 사례들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으며, 개개 인마다 다양한 삶의 궤적과 서사가 있다. 다만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가족’으로 사는 동성애 동거 커플이 우리 사회에서 겪는 공통된 맥락에 기반한 하나의 대략적인 상과 위치가 스케치될 수 있을 것이다.

◎ 자기정체화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들과의 경험 같은 것을 통해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스스로 찾아 보고 인정하게 된것은 중학교 1학년 그정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쪽 사람들 많이 만나봐도 대부분이 이제 나이대는 다 다른데 연도로 따지면 거의 비슷한거예요. 처음 알게된게 98-99년도 이정도라고요. 그때 인터넷이 막 깔리기 시작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검색을 해보고 아 이런 사람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구나 어떤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구나 나도 그렇구나 이런거를 그 때 인터넷 깔리자마자 제일 처음 검색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되고.

1) 본 글은 2015년 발간될 예정인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동성애 동거 커플/부부의 ‘가족’ 실천과 의미 (가제)」를 위해 수행된 심층면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가 남자한테 끌리는게 아니라 여자한테 끌리는 걸 보고 한국에 와서 그 당시에 천리안 나무누리 이렇게 있었던 시대였는데 천리안의 퀴어넷이라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해봤어요. 가입을 하고 정식으로 사귄 게 그 때 나이, 28인가 29 쯤 된거죠.

◎ '이쪽' 으로의 삶과 정서적·경제적 자립공간 확보

어쨌든 이쪽의 정체성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면서는 그때의 분위기 그리고 또래들 사이에서의 분위기도 있고, 그때는 아예 언론이나 대중매체나 그런데서 노출 자체가 거의 없었으니까, 그냥 친구들끼리 호모 이런식으로 놀리고 장난치고 그랬잖아요, 부정적인 대상으로서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스스로도 나는 내가 게이라고 인정을 했으니까 이성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사실 할 수 없다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성과 결혼을 못하면서 동성과는 결혼을 할 수 있다는게 아니라 아예 나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중략) 그냥 혼자 잘살고 싶었어요.

이전에는, 앞으로 어쩌면 더 나이가 들어서는 남자랑 결혼을 해야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여자 둘이서 살까. 여자는 경제권도 낮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남자랑 결혼을 해서 살아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 근데 왜 내가 남자를 만나서 살아야지만 한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혼자도 살 수 있을만큼 굳건하면 그거는 누가 옆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 알게 됐고, 그걸 알게 되니까는 아 이제 더 이상 남자라는 생각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도 되겠구나 깨달았고, 그때부터는 아 그러면 확실히 나는 이쪽이구나 라고 정체화를 한거예요.

안정적인 삶이 결혼을 통해 오지 않는다는 건 다 알죠. 그런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 돌파하고 싶은 욕망은 되게 강했어요. 저 뿐만이 아니라 다 한번씩 그런 시기가 닥쳐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이전에 약혼했던 사람이랑 깨지면서 직장도 다녔어야 할지 공부를 해야할지가 너무 혼란스러우면서 이제 어떻게해야할지 정말 막막한거예요. 경제적인 상황부터 심리적인것까지 되게 약해졌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관계를 되게 갈구하게 되었고, 수렁에 빠졌었어요. 그래도 그럴 나이와 시기가 있고 그걸 이겨내는게 멋진 사람이 되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부하긴 하지만, 다시 서지 않으면 연애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스로 잘 이겨내고 견디고 책도 많이 읽고 그랬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사람을 만난거죠.

그거(이성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압박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선을 보라거나 그런 것도 없고 저희는 개인주의가 강해요 집 자체가. 너는 내인생 나는 내인생 그래서 아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가 행복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결혼 부분에 대해서는, 선보고 다니는 이쪽 친구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런건 없어요. 애인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자신의 동성애자 정체성을) 부모님들이 아시고 평범한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 시작을 해서 남자를 잠깐 만났던 게 그 큰애 아빠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저는 결혼 관계를 유지하며 3년 가랑 살았고, 근데 내 성향에 맞춰서... 결혼생활 하면서 계속 저도 모르게 생각이 나요. 이쪽 생활이 생각이 계속 나요. 나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거를 벗어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돌아가고 싶은 것도 있었고, 결국은 제 자리로 돌아왔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제 정 그렇다면, (현재 인공수정으로 낳은 둘째) 아이까지 낳고 사는데 정 그렇다면 인정해주겠다. 어쩌겠니.

◎ 동거의 계기

연애하는 거 말고 생활을 같이하는 생활공동체가 되고 싶었어요. 저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장을 같이 보고 밥을 같이 해먹고 집에 오면 있고 그런게, 연애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질이 좋던 나쁘던 어쨌든 다른 차원의 관계로 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사귀 이성 커플들이 결혼을 하거나 헤어지잖아요. 어느 정도 관계가 되면 딱 두 가지 길로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생활공동체가 된다던지, 아니면 헤어지는거. 저희도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이미 제 나이가 40이 넘었기 때문에 정말 헤어지고 사귀고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오래 같이 살 수 있는 동반자가 있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거예요. 서로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같이 늙어가는 사람으로서 있으면 좋겠다 (중략)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이상 누구 만나기가 서로 지쳐가지고, 아까 말했듯 나는 이제 더 이상 불타는 사랑을 바라는게 아니라, 그건 이미 난 세 번 다 할만큼 했고, 지금은 안정, 오래갈 수 있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서로 너무 지쳤었어요, 전의 연애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도 결혼을 하려고 살았던 이전 여자친구랑 경제적인 치임 때문에 헤어지게 되고 제 애인도 전애인이 5년이나 살았는데 평생 이렇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랑 지금은 결혼해서 임신하셨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돌이 처음 만났을 때 연애하기 전에 알아가는 동안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나는 이제 누구랑 또 헤어져서 가슴아프고 그런거는 원하지 않는다, 둘 다 나이가 30대에 만난거니까 어린애들처럼 그냥 잠깐 이런건 아니고 길게 만나보자 해서 동거를 시작을 했고, 지금은 그런 상태죠.

◎ 가사노동과 젠더 역할

남들 일반적인 커플은 남자가 해야될 일과 여자가 해야될 일이 있는데 저희는 집안일이나 뭐 금전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눈다거나 그런건 없는 것 같아요. 집안일도 다 같이 하고 금전적인 부분도 둘이서 반반 생활비 낼 거 내고...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이친구는 놀아주고, 아기랑 놀아주고 재워주고 그 위주로, 같이 생활하면서 즐거움을 주는 캐릭터가 이친구고요, 정말 필요한 걸 주는데 저고요. 저같은 경우에는 의식주를 해결해주는거죠, 먹여주고, 먹을거 만들어주고, 씻겨주고, 불편한게 있으면 알아서 캐치해서 도와주고, 확실히 애를 한번 키워봤다보니까 애기가 컨디션만 봐도 행동만 봐도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대충 알겠으니 알아서 케어해주는 그런 입지가 제 역할이고요.

애가 부치고 내가 팸 그렇게 정체화를 안하더라도 이미 어떤 종류의 남성성의 수행 여성성의 수행이라고 보여질 여지가 있는 상태인거죠. 지금 상태로 봐도 나는 내 애인이 주 부양자라 애인이 사회적으로 남성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하느라 개고생을 하고 있고, 일해서 돈버는거 사실 자아실현을 위해 하는것도 아니고 벌어들여먹으려고 하는거고, 애인도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벌어들일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 애인 회사 동료들 중에 여자 동료같은 경우는 결혼하면 퇴사를 하거나 좀더 시간활용이 자유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애인은 나를 벌어들여먹고 그럴수가 없는거예요. 이거 자체가 어떤 성역할인거잖아. 그러니까 그렇다고는 생각하죠. 근데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농담거리가 되는것 같아요. 애인이 난 가부장이야~ 가부장이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야돼!! 이러면서 농담을 하고

◎ 경제운영과 ‘집’ 만들기

저희가 같이 살때부터 돈 개념을 서로 따로의 돈개념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다같이 우리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이 일을 하니까 월급을 받으면 저한테 다 쥐가지고 제가 다 관리를 하고 이사람은 용돈 받아서... 적금같은 것도 하나로 하고 있구요. 보험이나 저금 예금 다 완전히 명의같은 것도 다 같이 들고 있고요.

처음에 동거할 때는 돈 관리를 따로 했죠. 따로 하면서 제가 월세조로 형한테 내는 형식이었고 결혼식 하고는 부부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경제권을 완전히 합쳤어요. 지금 관리를 같이 하고 있고 생활비 관리도 같이 하고 각자 적금도 같이 하고 있고 양쪽 부모님 용돈도 같이 드리고 있고 서로가 기본적인 개인 비용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은 다 합쳐서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좀 더 버니까 뭐 제가 특별한 물건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 그냥 선물로 잘 사주는 편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생활비는 각자 생활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거예요. 적금도 각자 붓고, 그냥 알아서 하고, 대신 공동으로 모으는 돈이랑 공동으로 여행경비. 이정도가 있죠. 근데 애없는 부부들, 애가 있더라도 제 주변에는 일반 부부들도 이렇게 하는 부부들이 요새는 늘고 있더라고요.

◎ 드러내기/드러내지 않기 조정하기

직장에는 알 만한 사람은 눈치로 알거든요. 근데 내놓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래도 직장은 직장이고, 직장에서 오고 계속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게 아니라 요새는 신입들이 바뀌고 오고 가고 1-2년 일하다 말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꼭 공부를 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너무 에너지 들어요.

저같은 경우는 가족 중 몇몇한테는 오픈을 한 상태고요. 동생, 사촌언니, 이모 이정도? 어떻게 하다보니 들키기도 하고 제가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 주셨거든요. 나머지 어른들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아직까지 오픈은 하지 않았지만, 아시는건지 모르시는건지, 막내딸처럼 잘 대 해주시기도 하고 집안 행사같은데도 서로 같이 참여를 하고.

커밍아웃 후 내 동생하고 잘 지내요. 매형 이러면서 밥도 사주고, 매형 처남 이렇게 부르고, 개가 자취하니까 먹고싶다고 그러는거 사주고, 1년에 서너번 이상... 관계가 좋아요

나도 그렇게 어른 윗사람에 살가운 타입 아니고, 심지어 내 부모님에게도 별로 해주는 게 없는데 OO(반려자)가 내 부모님한테 잘하기를 바라지 않거든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OO(반려자) 엄마랑... 좀 어렵지 70세 노인분이라. 좋은 분인데 그냥 어려워. 아주 편하진 않아. 그리고 어쨌든 동성커플로서 며느리 이런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무 친한 것도 이상한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거리가 좋은 것 같아.

장기적으로 보면 나는, 저는 외가 친가가 친척들하고 되게 잘 어렸을때부터 복작복작하면서 지냈고, 나는 원래 내가 원하는 삶의 형태가 사람들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그런 삶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 보수적으로 들리지만, 완전 보수적이지, 근데 어쩔꺼야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내가 그게 좋은데, 만약에 내가 시집을 간다 그랬으면 시부모님이랑 잘지내고 자주 만나고 같이 여행도 가고.

◎ 언어의 부족과 명명의 모호함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결혼이라고 하면 사실은 가족과의 만남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는데 우리는 결혼이 안 되는 사이니까... 애인인데 동거하는 애인? 혹은 주위의 인정받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LGBT 커뮤니티 안에서는 같이 사는 배우자로 인정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동성결합에 대해서, 결혼은 아니지만 동성결합으로 인정하는 나라들에서 이야기하는 그 결혼 가기 직전 단계, 제도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애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남친 여친의 수준도 아니고 나의 관계가, 우리 관계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되지 않는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사귀는 사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애랑 나랑은 같이 살고 있고 가족이고 그 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죠. 사실 난 파트너라는 말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파트너는 너무 비성애적이고, 되게 공식적인 느낌, 파트너라는 말이 사업 파트너, 실무 파트너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파트너라고 할 때는, 파트너라는 말을 통해서 애가 나랑 오래갈 사람이다 그건 전달이 되는데 친밀한 관계 성애적 관계라는건 드러나지 않는거 같아서 그래서 그것도 별로고, 그리고 이성애자들은 내가 파트너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을 잘 못알아들어요 그 관계가 직관적으로 잘 안와닿아, 이성애자들한테는. 그래서 둘 간에야 뭐라고 부르는거든 상관없는데 남들한테 내 뭘니다라고 소개하는 그게 안돼. 3인칭이 안돼. 형 언니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자기야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름을 부를 수도 있는데, 3인칭으로 제 뭘니다의 그 뭐가 안돼. 보통 커뮤니티에서는 파트너라고 하긴 하는데.

한마디로 각본이 없어, 각본이. (중략) 내가 지금 상태에서는 분명 유부녀 비스무리한 무언가라고는 생각하는데 동성 부부라는 상이 없어서 그런지 약간 애매한 상태인 것 같고. 심리적으로도 나는 가끔씩 헛갈리는거예요 이게. 우리는 동거를 부모님께 알리고 허락을 받고 동거를 시작한거거든요. 그리고 결혼처럼 우리 삶의 되게 큰 전환이다라고 동거를 시작한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게 어떤 전환이었죠. 본인의 마음가짐이 달라진거잖아요, 본인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규정이 달라진거잖아요. 그런 종류의 달라짐이 나한테도 있긴 한거죠. 그런데 그게 되게 여기가 스타트라인이야 뻑! 하면서 그게 이렇게 전환이 되는게 아니라 그게 천천히 되는게, 그래서 어느 정도 이행은 있으나 그게 모든 게 한번에 스타트라인을 딱 넘어서 이건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아직 여기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닌...

◎ ‘절차’와 ‘의례’에 대한 욕구

이쪽에도 뭔가 좀 기준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준선. 우리도 절차라는 거. 상견례나 결혼식 같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더...

제 소망이 식을 하는 거예요. 식이라기보다는요... 여자라면 한번쯤 웨딩드레스 입고 웨딩사진 찍었으면, 사진으로라도 남겨놔야 하는. 예전에 이쪽분이신데 웨딩사진 찍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날 저희도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일이 생겨서 못 갔거든요. 우리가 식은 못하니까 이렇 게라도 한번 해보자 했었어요.

우리 성소수자는 의례가 없잖아 의례가. 의례가 없으니 뭔가 카타르시스가 없어. 그런게 되게 소중한 거죠.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거나 그런것도 소속감을 느끼거나 그런 의례를 하고 싶어 서 그런건데. 그런게 필요할 것 같아요. 누군가의 결혼식을 참석하고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 게 사회적인 인정이니깐.

제가, 차별받는 게 되게 싫은가봐요. 이성애자들이 하는 방식으로 왜 난 못해 이렇게 있었고 그러 다보니 제가 다 했어요. 형한테 프로포즈도 일반들이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했어요 (중략) 장소 찾 는 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게이바에서 하고 싶었어요. 게이적인 공간에 서 게이적인 방식으로 하고 싶었어요. 게이바를 빌리고, 결혼식에 와줬으면 좋겠다는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고.. 똑같았어요. 일반들이랑 하는 방식으로. 그건 좀 달랐네요. 일단 뭔가 결혼이라고 하면 어쨌든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 되는 거잖아요. 보통의 한국사회의 결혼은, 근데 저희는 그런 거를 전혀 염두에 안 뒀어요. 저희가 다 통보를 했죠. 나 이때 결혼을 한다. 양가 부모님을 그날 처음 뵈었으니까... (중략) 공간 자체가 협소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부를 수 없었고요. 진정성 을 얘기했는데 오신 분들 다 느꼈을거예요. 감정이입이 심하게 되가지고 축가 부르면서 펄펄 울고.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제일 많이 울었어요. 거의 한풀이였어요. 한풀이.

◎ 틈새를 이용한 안전장치 구축과 끊임없는 친밀성 관리

저희는 유언장을 미리 썼어요. 저희는 집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재산권이 걸려있고 저희 부모님은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저는 중간에 교통사고가 한번 났었어요 그래서 죽는 문제에 대해서 병원에서 좀 오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어느 날 죽 갈 수 있겠구나 거리에서. 그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유언장 형식을 딱 봐가지고 그 형식대로 써놔고... 재산문제로 내 가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장례 절차라던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개한테도, 너 가게랑 일부 재산에 대해서도 너가 없을 때 나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나에 대한 예의를 지켜 달라 그리고 너 장례 절차라던지 그런데 있어서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언장에 명시해 달라. (중략) 우린 당연히 안 되니까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제도가 받쳐주지 못할 때는 아주 철저하게 그냥 최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게 그게 파트너를 생각해주는 일이에요. 그냥 정식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제도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돼요 안 아플 때.

가끔 그런 얘기를 서로 해요. 이쪽 세계에서 가족으로 살기로 참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둘 다 여자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너를 바라보다가 너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그 사람한테 흔들릴 수 있는거고, 일반 남성들이 흔히 바람피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법적으로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일반 부부들은 애들 때문에 살기도 하고 이혼이라는 복잡한 절차라는 게 있기도 한니까. 근데 가족으로 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둘이 여자로 살다가 어느 순간 가족이 되면, 흔들리더라도 살아온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너나 나나 뭐 진짜 뭐 집에 재산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형제는 물론 있지만 우리가 그들과 살 수 있는 노릇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밀 언덕이 서로라고 생각하고 사는게 그게 너랑 나랑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지 않느냐라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 지지관계망 구성

이쪽 친구들이랑은 되게 오래 만났어요. 지금도 주기적으로 생일 때나 이런 때 만나고 있고, 저희 그냥 모임 자체가 있으니깐. 패밀리같은 패밀리. 모여서 생일파티 같이 열어주고 받고 또 연말 때 만나서 놀고 이렇게.

커플친구들은 온라인에서 많이 만난 것 같아요. 다 같이 아는 친구들이라서 되게 풍성하고 재밌어요. 그중에 한명이 2년 되었다고 2주년 되었다고 저희를 짝 모아서 밥을 사더라고요. 완전 의례같은 식은 아닌데,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축하받고 같이 치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네 둘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커플 모임을. 자기네가 계속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기념으로 밥을 사고 싶는데 자기네는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명절 때 함께할 사람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싶다. 친척처럼 생각하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몽클해져가지고 나가서 같이 밥먹으면서 축하해주고 그랬었어요.

살면 살수록 느끼는게 뭐냐면, 둘이 좋아서 만나기는 했는데 타인들이 없으면 쉽게 깨질수도 있다는거.

◎ 결혼/가족 제도에 대한 태도

당연히 결혼제도,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가 원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난 개인과 개인 그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거죠. 인척관계를 형성한다던가 그런것들이 결혼으로 이루어지는건데 난 그런게 다 합쳐서... 나는 내가 어떤 행복한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했었던 많은 것들을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운 좋게, 좀 일찍 만났네? 좀 일찍 이뤘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난 사람의 성별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내게 필요한 제도도 이 삶을 지탱해주는 데에 필요한 제도인 것이고 나는 이 삶을 이렇게 잘 평탄하게 갔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거지. 월 얼마나 더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돼? 왜 다르게 살아야돼? 게다가 애인도 있는데? 같이 사는데? 그게 몰라서가 아니라, 다르게 사는게 약간 추가적인 노력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성애자 부부의 삶을 너무 하나로 고정해서 생각하고 보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떤 이성애적 각본이 있다고 생각해도 그 각본이 하나는 아닌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아는 각본이 뭐 내 부모의 삶 내가 아는 부부의 삶이라는것이 사실 그런것이고, 내가 아는 그 각본이 나는 좋았고, 운 좋게, 좋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체화하게 된게 아닐까. 내 욕망이 그렇게 구성이 되었으니 그렇게 사는것이고, 그리고 또 운 좋게 그런 비슷한 각본을 보고자란 파트너를 만났고 그 사람도 그 각본에 대해서 그 각본의 삶을 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거지 뭐 이런거.

혹시 제도적으로 결혼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분명히 할거예요. 저희는 가능하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제 1호로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거를 원하고 있고 (중략) 희망을 버리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 희망을 갖고 있어요 언젠가는, 저희한테 결혼이 뭐냐면, 아이한테 이사람 성을 붙여주는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저희는 그걸 정말로 하고 싶어요. 이사람 성과 제 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사람의 성을 이 아이한테 부여해주고 싶은거예요. 저희는 정말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이사람과 저도 당당하게.. 그리고 단지 저는 동성결혼이라는게 합법화가 되면 정말 하고싶은게 이 아이가 이 사람의 성씨를 가질 수 있도록 (중략) 이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앞으로 10년 20년 좀 더 편하게 살고 마음이 덜 다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동성결혼이 그거는 그렇게 욕심을

내고 있어요. 지금 법적으로는 관계가 동거인이예요. 저희가 등본을 떼면 세대주가 있고 세대주 아래 동거인이 있고 이친구는 동거인으로 되어있어요. 그게 최선이예요. 그 이상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를 못하니까.

병원같은데서 제 거를 조회를 해보면 세대주가 언니로 나와서 보호자가 언니로 되어있고 저는 동거인으로 나와요. 기분좋지.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 제 동거인? 어 그럼 법적으로 부부네 이러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기존 결혼 제도는 시월드 억압이라던지 그런것들이 연상이 돼요. 의무를 다하는건 좋죠. 사랑에 기반한 의무라던지 원해서 하는 것들은 좋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건 꼭 의무로 하는건 아닌데, 가족관계가 되는 이상 그게 너무 고정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 파트너십 제도라면 아무래도 그런게 덜하지 않을까 싶은거예요. 물론 더 헤어지기 쉽긴 하겠죠. 근데 그건 감당해야 할 몫 아니겠어요. (질문: 파트너분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선이 있는 제도적인 관계를 원해요. 똑같이 권리를 보장받고 싶어해요.

[이야기방]

축제의 정치, 쟁점과 전략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사회 : 정현희(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발표 : 김현철(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석사과정 졸업)

발표 제목 : 도시를 퀴어화하라(Queering the city) : 성적 반체제자와 도시공간의 공공성, 2014 신춘 퀴어퍼레이드를 중심으로

토론 : 강명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이 토론회는 퀴어퍼레이드 참여자 개인이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액션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2014년 서울과 대구에서 열린 2번의 퀴어퍼레이드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참여자 개개인들도 혐오세력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서게 되었고, 장시간 정체된 행렬 속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인내하고 또 저항했습니다. 방해자들은 여론몰이를 위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모멸감을 자극하고 흥분하도록 유도했지만, 참여자들은 동성 커플의 아름다운 키스, 주눅들지 않는 노출,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는 메시지를 드러내며 축제의 정치를 만들었습니다.

한편, 몇 가지 쟁점도 제기되었습니다. '빠쓰 축제'라는 '오명'을 부담스러워한 일부 성소수자 당사자들은 '꼭 벗어나야하느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혐오세력에 대한 '무대응 원칙'을 주지하고 참여자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축제를 누릴 수 있도록 했지만, '무대응 원칙' 위에서는 면전의 모욕에 대해 분개하는 성소수자의 목소리가 지지받기 어렵다는 항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축제의 정치는 참여자들마다의 액션을 통해 더 풍부하고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으며 또 벌어진 일들에 대해 더 많은 해석을 진전시키는 가운데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표자 김현철님의 작업 - 2015년 2월 에 나와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따끈한 논문 <성적 반체제자와 공공 공간 : 2014 신춘/대구 퀴어퍼레이드를 중심으로> -은 축제의 정치에 관한 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들이 다시 돌아온 6월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015년 6월 13일, 어떻게 놀아보실 건가요?

도시를 퀴어화하라(Queering the city)

: 성적 반체제자와 도시공간의 공공성, 2014 신춘 퀴어퍼레이드를 중심으로²⁾

김현철(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석사과정 졸업)

I. 문제제기

국내의 진보적인 공간연구 학계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르페브르(Henri Lefebvre)가 주창한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을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도시질서에 비판적으로 적용시키며 재구축해왔다. 특히 강현수(2009, 2012)는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을 국내에 소개하고, 그 실천적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강현수에 따르면 도시권리 담론은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도시를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한 도시로 변혁해야 한다는 그(르페브르)의 생각이 표출된 핵심 개념”(강현수, 2012: 41)이다. 국내 학계에서는 이같은 르페브르의 도시권리 담론에 기초하여 도시공간의 공공성이 사유권과 소유권의 논리에 따라 정의되는 현상을 비판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예컨대 김용창(2012)은 2009년 용산참사에서 드러났던 폭력적인 철거와 재개발이 신상품화로서의 도시 공간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면서, 이 강탈적 자본 축적에 기반한 도시공간에 대한 저항으로서 도시권리 담론을 제시한다. 황진태(2010)는 2006년 오세훈이 서울시장으로 선출된 이후 추진한 ‘디자인 서울’ 정책을 신자유주의적 도시공간의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을 비판한 해치맨 프로젝트³⁾를 도시 공간의 전유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김준호(2010) 역시 거리노숙인의 존재를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에서 살펴봄으로써 공공 공간에서 특정한 몸이 배제되는 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김준희(2011)는 1980년대 노점상 운동의 형성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노점상이 도시 공간에서 주체로 존재하지 못하는 지점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같은 연구들은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적합한 도시공간의 양태를 공(公)으로 규정하는 것에 일침을 가하면서, 철거민과 노숙인, 노점상과 같은 몸들을 도시 규범에 부적절한 존재로 귀결시켜온 공간 통치를 분석해왔다. 이를 통해 도시권리 연구들은 자본주의적 질서를 넘어선 대안적인 도시 공간의 공공성을 생산해내고자 했다.

이같은 학계의 노력은 실제로 한국의 사회운동 진영에서 실천적인 전략 방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컨대 2014년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서울시민인권헌장>의 경우, 그 헌장을 제정하는 시민위원들에게 도시권리 담론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다. 이 헌장에서 시민들은 토지/주택 소유자, 혹은 행정구역의 주민만이 해당 지역에 권리를 가지는 것을 넘어선 조항들을 만들고자 했다⁴⁾. 이는 사유

2) 본 글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김현철, 2015)을 일부 재구성한 것으로, <공간과사회>(2015년 3월호)에 투고를 앞두고 있다. 혹 글을 인용하실 경우 이 발제문이 아니라 <공간과사회>에 동일한 제목으로 최종 투고된 글을 인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3) 해치맨프로젝트란 “디자인 서울에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디자인 창작그룹 FF 그룹(황진태, 2010: 46)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디자인 정책에서 정작 서울에 거주하는 서울시민들의 참여가 배제되었음을 비판하면서 해치맨 프로젝트(또는 아이라이크서울 캠페인으로 불림)를 기획”(황진태, 2010: 46)한 것이다.

4) 제 1장 제 3조: 서울에 살거나 머무는 모든 사람은 존엄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갖는다. 제 3장 제22조 ① 서울시는 주거권을 존중하는 도시정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대책 없는 강제퇴거를 금지한다. ② 서울시는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주택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제23조 ① 서울시는 주거빈곤층 및 무주택 저소득층, 탈시설 주거 약자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장단기 계획을 마련한다. ② 서울시는 강제퇴거, 재난, 임대료연체, 폭력피해 등의

권에 기반한 도시공간의 배타적인 공공성을 탈피하는 것이었다. 비록 서울시가 반대 세력의 압력에 <서울시민인권헌장>을 파기했다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서울이라는 도시공간의 새로운 상(象)을 그려나가는 데 도시권 담론이 교두보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의의가 깊다. <서울시민인권헌장> 뿐 아니라 ‘마을’이라는 스케일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운동과 다양한 생활협동조합운동 역시 도시권의 논의와 맥락이 닿아있다. 이처럼 국내의 도시권리 논의와 이에 기반한 실천들은 자본주의적 질서에 기반한 공/사 정의를 탈피하고, 새로운 도시 공간의 가능성을 여는 데 주력해왔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국내 도시권리 담론은 소유 관계에 따른 공/사 문제와 연관된 또 다른 공/사의 문제, 즉 도시의 공공 공간에 각인된 이성애정상가족규범에 기반한 공/사 논의는 진척시키지 못했다. 국내의 도시권리 논의에서 모든 주체는 무성(無性)적인 존재로 프레임되어왔다. 주체는 ‘노동자’, ‘도시민민’, ‘세입자’와 같은 언어로 재현되었을 뿐, 실제 그 집단 안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성애화된 몸들(sexualized bodies)에 대한 주목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내 공간 학계의 섹슈얼리티 맹점은 도시권에 기반한 공공 공간 담론을 활성화시켜온 <한국공간환경학회>와 같은 연구공동체에서조차도 유효하다. 도시 권리의 측면에서 성애화된 몸들을 다룬 연구가 이현재(2010)뿐이라는 사실은 국내의 도시공간학계가 성(性)을 공적 문제로 인지하지 못함을 잘 드러낸다. 한국의 진보적인 공간 연구자들에게 신자유주의적인 행태와 이에 기반한 억압은 주요한 공적 문제로 부각되었지만, 가부장적인 이성애정상가족규범에 기반한 공간 규율은 공적 문제로 인식되지 못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말해 남성적인 것, 규범적인 이성애 관계, 정상가족이라는 세 박자를 ‘자연스럽다’고 여기게 하는 공간 정치가 한국의 공간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별 무리 없이 구현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 과정에서 도시 공간의 주체는 무성적, 혹은 이성애(가족)적 존재로 획일화되었으며, 비규범적인 섹슈얼리티를 지닌 몸들은 또다시 공적 논의에서 주변화되었다. 이같은 배제의 궤적은 국내의 도시공간연구자들이 가부장적인 이성애정상가족규범에 따른 공간성을 (재)구축하고 성적 반체제자를 도시의 공공 공간에서 ‘사적 존재화’⁵⁾하는 데 일정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도시공간 관련 학계의 섹슈얼리티 언어 부재는 성적 반체제자와 공공 공간, 도시권의 관계를 연구의 대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그 결과 국내 도시공간학계에서 ‘규범적인 이성애자’라는 표상 외에 도시의 공간에 실제로 존재하는 수많은 몸들은 공적 논의에서 철저히 사(私)의 위치로 설정되었다.

국내의 도시권리 논의가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대한 대안적 논의들로 형성되어온 것은 르페브르의 지적 배경이 맑스주의에 기반한다는 점, 더불어 그 역시 도시변혁의 주요한 지점으로 자본주의적 질서에 대한 저항이자 자본주의적 질서에 대안적인 도시공간의 형성을 내세웠고, 인종/성과 같은 지점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면 납득 가능하다. 그러나 르페브르의 도시권리 담론이 지닌 함의는 오로지 자본의 소유 관계만을 향해있지 않다. 그의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은 비단 자본의 소유관계에 따른 균질적 도시공간의 형성뿐 아니라 가부장적 이성애정상가족 담론에 기반하여 영역화된 도시공간의 형성을 비판하는 데에도 충분한 함의를 지닌다.

이같은 함의는 우선 르페브르가 주장한 도시에 대한 권리 중 참여의 권리, 차이에 대한 권리(right

사유로 노숙 또는 홈리스 상태에 처하는 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출처: 2014.10.17.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강북권역 토론회 자료)

5) 사적 존재화된다는 것은 공적 범주에 들어가는 것을 박탈당한 존재/상태/상황을 포괄한다. 아렌트(이진우·태정호 역, 2002)는 사적인 것의 의미를 박탈과 연결지었다. 그녀의 언어로 말하자면 사적인 영역으로 귀결되는 것은 인식 외의 영역에 설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기존의 공사구분, 예컨대 ‘집’을 사적인 영역으로, ‘회사’를 공적인 영역으로 두는 것은 이 글의 공/사 논의에서는 성립되지 못한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집’과 같은 공적인 공간을 사적인 공간으로 추상화하고, ‘집’에서 발생하는 성적 반체제자에 대한 폭력과 억압 일체를 정치영역에서 제외시키는 그 역학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비규범적인 섹슈얼리티를 지닌 몸들이 사적 존재화(私和)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사회적 죽음을 이르는 밝힌다.

to be difference)와 같은 개념이 가지는 확장성에서 찾을 수 있다. 르페브르의 참여의 권리는 “도시 거주자들이 도시 공간의 생산을 둘러싼 의사결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리”(강현수, 2009: 52)로, “도시 거주자들이 능동적이고 집합적으로 도시 정치에 관여하면서 (도시를) 스스로 규정해나가는 것”(강현수, 2009: 52)이다. 이 권리는 도시라는 공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권리와 맞닿아있다. 또한 르페브르는 차이에 대한 권리를 언급하였는데, 이는 “차이 그 자체보다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right to be difference)”(강현수, 2009: 53)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르페브르의 도시권리 논의가 가진 확장성의 예로 이현재(2010)를 들 수 있다. 이현재(2010)는 르페브르의 ‘중심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 ‘차이의 권리’에 집중하여 서울시의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를 분석하였다. 그녀는 이 작업에서 도시가 ‘차이의 공간’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여성 자체가 단일한 대문자 여성(Woman)으로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내부에 있는 다층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장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가부장적 모성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가부장적 권력관계 하에서 배제되고 있는 매춘여성이나 레즈비언 여성들, 혼외의 싱글들이나 미혼모 여성들, 문화적, 경제적 권력관계 하에서 소외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나 빈곤층 여성들(이현재, 2010: 24)”이 도시를 구성하고 구획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즉 이현재(2010)는 도시에 대한 권리 차원에 여성주의를 접목시킴으로써 기존의 이성애정상가족 규범 하에서 타자로, 아브젝트(object)로 여겨졌던 대상들을 오브젝트(object)의 위치로 두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럼으로써 해당 작업은 다른 몸‘들’, 복수로서의 여성‘들’, 성적 타자‘들’(sexual others)를 언급하였는데, 이는 성적 반체제자를 도시권리담론에서 논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았다.

또한 도시권리 담론은 <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헌장>(2004), <도시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유럽헌장>(2000) 등에서도 그 논의가 확장되어 왔다⁶⁾. 우선 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헌장(2004)은 전문에서 “대다수의 도시 사람들은 그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종적·성별·연령의 특성들로 인하여 가장 기본적인 필요와 권리들을 박탈당하거나 제약받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도시권리헌장이 “도시적 과정, 정당성, 투쟁들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 하에서 이 헌장은 일반조항 제 1조에 “모든 사람은 성별, 나이, 건강상태, 소득, 국적, 민족, 이주상황, 정치적, 종교적, 성적 성향에 따른 차별로부터 자유로우며, 본 헌장에서 밝히는 원칙과 규범에 따라서 문화적 기억과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도시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명시한다. 또한 도시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헌장(2000) 역시도 제 1장 총칙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를 “도시는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속하는 집합적 공간”이라 확장시키고 있으며, 제 2조 권리의 평등과 비차별 원칙 제 2조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는 “지방당국에 의해서 피부색, 나이, 성, 성적지향,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인종, 국가 또는 사회출신, 수입의 정도에 관하여 그 어떠한 차별 없이 보장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헌장들은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와 책임을 주요한 지점으로 적고 있다. 이처럼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은 강현수(2009)가 언급하였듯 세계인권 논의와 더불어 확장되어온 궤적이 존재한다. 이 입장에서는 이주민, 여성, 난민, 비규범적 젠더/섹슈얼리티를 지닌 사람 등이 도시공간에서 처할 수 있는 복합적인 억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 이처럼 세계적 흐름에서 볼 때,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은 다양한 결들(layers)의 복합적인 절합 속에서 구성되어져가는 측면이 존재한다.

위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은 다양한 억압지점(인종주의, 성별주의, 이성애주의, 국가주의 등)에 저항할 가능성과 확장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국내의 도시권리

6) 두 헌장의 전문은 광주광역시가 운영하는 민주인권포털(<http://www.gjhr.go.kr>)의 인권정보실에서 읽을 수 있다.

논의가 자본주의적 질서에 대한 억압에 대한 저항에만 국한된다면, 이는 르페브르의 도시권리 담론이 지닌 확장성과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것이며, 또한 퇴보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에서 도시권 논의를 더욱 풍부하고 급진적으로 형성해나가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 질서와 더불어 또 다른 큰 축, 즉 도시공간에 각인된 이성애가부장적 질서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이를 전복시켜나가기 위한 지적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필자는 2014년 6월 7일, 연세로에서 행해진 ‘퀴어한 퍼레이딩(queer parading)’⁷⁾이 지닌 급진적/해방적인 도시변혁의 측면을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2014년 6월 7일, 신촌 연세로에서 열린 신촌 퀴어퍼레이드에서 LGBTQ/Queer 운동진영⁸⁾ 및 퍼레이드 참여자들은 축제적 시위의 성격을 띠는 퀴어한 퍼레이딩에 참여함으로써 사회로부터 낙인찍힌 ‘성적 반체제성’ 그 자체를 공공 거리에 전시(display)하고, 기존 공공 거리에 부과된 이성애정상가족의 규범을 전도하고자 한 지점에 주목한다. 이는 이성애정상가족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몸들과 정체성들을 이탈과 위협으로 규정하고 ‘거리’를 균질적인 공간으로 만들려 했던 반대측의 영역화 전략과 대조적인 것으로, 그 과정에서 2014년 연세로에서 퀴어한 행진을 한 몸들은 지배적인 성규범에 균열지점을 남음과 동시에 도시를 퀴어화(queering)하며 전유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은 성적 반체제자가 단순히 이성애정상가족적 공간 통치의 잔여물, 혹은 오류로만 귀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도시 공간을 해방적으로 전유하는 주체의 가능성을 가짐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비규범적인 섹슈얼리티를 지닌 몸들에 대한 분석은 특정한 ‘보편성’으로부터의 배제나 포섭, 흡수의 논리에서 나아가 이들이 ‘반체제성’ 그 자체를 전유함으로써 해방의 급진성을 가지는 몸으로 존재하는 순간을 포착하고, 또한 그러한 순간을 말할 수 있는 언어체계를 생산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고는 이같은 작업의 필요성에 유념하며 2014년 신촌 퀴어퍼레이드에서 지지층의 ‘괴이

- 7) 1969년 뉴욕의 스톤월 항쟁을 기점으로 특히 북미와 유럽 일대에서 연례 행사로 정착해온 퀴어한 퍼레이딩은 68혁명과 대항문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게이해방운동전선이 ‘상담의자’에서 내려와 ‘거리’로 나가는 것을 택한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박이은실 역, 2012). 이 퍼레이딩은 이후 북미와 유럽 일대, 남미 등지에서 공간에 각인된 이성애지배적인 젠더/섹슈얼리티 가치에 전도(顛倒)를 시도하는 커밍아웃 스펙트럼의 최전선에 있는 ‘세계화된’ 운동 전략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즉 이 운동은 공공 공간인 거리를 일정한 시간 점유한 상태에서 다양한 정체성체들과 몸들을 드러내고/드러내거나 이에 대한 지지를 드러내며 걷고 춤추는 집단적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이 퍼레이딩은 국내에서는 퀴어퍼레이드, 국외에서는 게이 자긍심 퍼레이드(gay pride parade) 등의 용어로 불린다. 본 논문에서는 ‘퀴어한 퍼레이딩’이라는 용어로 통일한다. 그 이유는 현재 한국의 LGBTQ/Queer운동진영과 커뮤니티에서는 퀴어라는 용어를 일종의 성 정체성으로 사용되는 분위기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위함이다. ‘퀴어’라는 용어가 나온 학문적 배경이 게이/레즈비언과 같은 성적정체성 기반의 운동풍토를 비판한 것에서 나온 것이라면 점에서 볼 때, 퀴어는 정의되어서는 안되는, 정의된 순간 그 의미가 사라지는 개념이다(박이은실 역, 2012).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사회에서 퀴어는 “나는 퀴어야.”라는 용례에서처럼 하나의 성적정체성으로 귀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이같은 경향이 퍼레이딩에서도 지속될 경우, 즉 해당 퍼레이드가 특정한 성 정체성의 권리 획득만을 위한 ‘퀴어’의 퍼레이드가 될 때 그 급진적 힘을 잃는다고 보는 입장에 있다. 이 퍼레이딩은 명사적 의미의 ‘퀴어’가 아니라, 오히려 형용사적 의미의 ‘퀴어한’ 장면들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만, 즉 되어가는(becoming)의 상태 속에서만 의미가 획득된다. 그렇기에 필자는 이번 퍼레이드에서 논쟁이 되었던 노출문제와 동성애규범성하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는 다양한 성적 실천(BDSM 등)과 같은 논의 역시 이 퍼레이드에서 나올 수 있고, 나와야 한다고 본다. 이 퍼레이딩은 퀴어한 장면, 낯설고 이질적이며 균열을 낳는 괴이한 장면들을 생산해내는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 그렇기에 이러한 입장에서 차치 명사적 의미로 오독될 수 있는 퀴어퍼레이드라는 용어 대신, 퀴어한 퍼레이딩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점을 밝힌다. 이와 관련하여 ‘퀴어’라는 용어의 용법적 사용에 관련한 논의로 제제(2012)를 참고하라.

- 8) 이 글에서는 한국의 성적 반체제화를 위한 권리 운동 일체를 ‘LGBTQ/Queer 운동’으로 지칭한다. 이는 한국의 해당 권력역사에서 큰 줄기를 차지해온 두 가지 역사적 흐름, 즉 개별 성 정체성 중심의 LGBTQ 운동(LGBTQ는 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퀴스쳐너리의 준말이다. 이 때 성 정체성은 단일하고 선형적인 것이 아니다. 즉 대문자의 Lesbian, Gay, Transgender, Questionary가 아닌 다층적인 의미망 내에 존재하는 lesbians, gays, bisexuals, transgenders, questionaries를 의미함을 밝힌다)과 ‘퀴어’를 하나의 정체성/혹은 슬로건으로 내건 운동의 흐름이 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 두 흐름간의 연대와 긴장관계는 현재까지도 존재하나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 깊이 다루지 않기로 한다.

한(queer)' 도시 공간 생산 과정에 주목하면서 행사에 참여한 단체/개인이 도시의 공공성을 어떻게 전유하고자 했는지 살펴본다. 그럼으로써 이들의 행위를 통해 급진적/해방적인 도시 공간의 가능성을 전망한다.

2. 퀴어한 퍼레이딩: 이성애정상가족규범적 공사 경계의 초월(transgression)

성적 반체제자는 도시의 공공 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사회에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혹은 드러내지는 것, 감추는 것, 감춰지는 것과 관련한 모든 행동들은 공간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실제로 성적 반체제자와 사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들은 다분히 공간적이다. 벽장(closet)에서 나오다라는 뜻의 '커밍아웃(coming out the closet)', 강제로 성정체성을 폭로당하는 '아웃팅(outing)',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지 않는 사람을 표현하는 용어인 '오픈 게이', 파트너 관계 외에는 성정체성과 관련한 사회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인 '커플벽장', 주로 외양이나 걸음걸이, 행동에서 성정체성을 확연히 드러내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 '걸커(걸어다니는 커밍아웃)' 등, 성 정체성과 관련하여 공간의 안팎을 내포한 용어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같은 용어들은 성적 반체제자가 이성애정상가족 중심적인 공공 공간을 활용하는 공간적 방식을 대변한다. 커밍아웃과 아웃팅 사이의 수많은 스펙트럼, 즉 공간상에서 자신을 얼마만큼 드러내고(혹은 강제로 드러내지고) 또 감출 것인가(혹은 타의로 감춰질 것인가)의 전략은 성적 반체제자들의 일상생활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집, 거리, 학교, 직장, 화장실과 같은 여러 공간들에서 성적 반체제자들은 매순간 드러냄(드러내지기)과 감추기(감춰지기)의 경계 사이에 있다⁹⁾.

그럼에도 한국사회에서 성적 반체제자는 공공 공간에서 그 존재가 탈각되고, 사적 공간에 귀속된다. 성적 반체제자의 존재를 거리에 드러내는 퀴어한 퍼레이딩에 대해 문창극 전(前) 국무총리 내정자는 그의 고별 강연에서 “무슨 게이 퍼레이드를 한다며 신촌 도로를 왔다 갔다 하느냐... 동성애가 좋으면 집에서 혼자 하면 되지, 왜 퍼레이드를 하느냐”(2014.06.13. 뉴스파워)라는 발언을 했다. 또한 신촌 퀴어퍼레이드를 반대하는 측이 지배적으로 내세운 의견 역시 거리에서 ‘동성애자’들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서대문구청 자유게시판 443번 글의 “그들만의 축제로 끝내게 하십시오. (...) 그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또한 보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언급 역시도 이같은 인식을 대변한다. 성적 반체제자를 ‘사적 존재’로 만드는 공간 통치는 집, 찜방, 종로 극장가, 게이바와 같은 ‘그들의 공간’¹⁰⁾에서만 성적 반체제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영역화한다. 즉 그들은

9) 드러냄(드러내지기)의 예로는 퀴어/비혼 페미니스트로 자신을 정체화한 활동가들이 마포구/은평구를 근거지로 하는 지역공동체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이하 마레연)>나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등에서 성 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드러내고 사회망을 만드는 것(전경희, 2014)이나 (수술 중인)FTM(Female-to-Male)이나 (수술 중인)MTF(Male-to-Female), 혹은 ‘티부(티나는 부치)’처럼 비규범적인 젠더가 ‘남과 여’ 밖에 적혀져 있지 않은 공공화장실 앞에서 매순간 맞닥뜨리는 긴장의 역학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레즈비언이 집을 방문하는 손님에 따라 공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식별할 수 있는 물건을 감추거나 드러내는 선택적 전략(Elwood, 2000: 17-18), 거리나 학교, 직장 등에서 동성애자로 식별될 우려에서 연애나 우정의 대상으로 티부를 기피하는 것 등을 감추기/감춰지기 스펙트럼의 예로 들 수 있다. 상황에 따른 드러냄(드러내지기)과 감추기(감추어지기)의 스펙트럼은 규범적 이성애로 성애화(sexualized)/젠더화(gendered)된 일상공간과 성적 반체제자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10) 이처럼 퍼레이드(를 비롯한 동성애) 반대측은 집, 찜방, 극장가, 게이바와 같은 공간을 공적 논의가 일체 배제된 장소로 사적 영역화하고, 이 공간에 있는 동성애자의 존재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이중의 사적 존재화, 즉 해당 공간의 사회와 존재의 사회라는 이중적인 사적 존재화의 작업을 포괄한다. 이를 통해 반대측의 논지에서 ‘동성애자’는 사적이라고 영역화된 공간에만 존재하는 존재, 즉 공적인 장소에 존재하지 않는 사적 존재로서만 역설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집에서만, 극장에서만, 찜방에서만, 게이바에서만 예외적으로 존재하는 이탈적 존재가 된다. 이같은 공간 통치는 도시공간 전체를 ‘확장된 벽장(extended closet)’으로 만든다.

성적 반체제자를 사적 존재로 귀속시키는 도시공간의 배타적인 공공성에 균열을 넣기 위해서는 주체들의 ‘행위’가 필요충분조건이다. 행위는 존재의 ‘복수성(plurality)’을 기본 조건으로 한다. 복수성은 행위의 전제일 뿐 아니라 ‘정치적 삶’, 즉 사적 존재로 박탈당하지 않는 삶, ‘공적 세계를 주체적으로 향유하며, 발언할 수 있는 삶’의 기본 조건이다. 복수의 사람들 사이에 자유롭게 들어가고 발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렌트가 말하는 ‘공적 존재’, ‘정치적 존재’의 기본 조건이다. 아렌트는 복수성을 담지한 행위를 통해 익명의 ‘폭력’이 아닌 ‘권력’을 현현(appearance)¹¹⁾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복수의 주체들이 아렌트적 의미의 권력을 창출하고 획득한 공간을 그녀는 ‘현현의 공간’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렌트는 권력의 현현 속에서 복수성을 담지한 인간 행위가 추구되는 세계를 주장하였다. 아렌트는 ‘공’의 의미를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공적’이란 것은 “공중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누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가능한 가장 폭넓은 공공성을 가진다는 것”(이진우·태정호 역, 2002: 102)이다. 그렇기에 둘째, ‘공적’이란 것은 “세계가 우리 모두에게 공동의 것이고, 우리의 사적인 소유지와 구별되는 세계 그 자체”(이진우·태정호 역, 2002: 103)이다. 즉 아렌트적 의미의 ‘공공 공간’은 단순히 주어지는 공간이 아니며, 행위의 주체들이 권력의 현현을 만들어내는 속에서만, 복수성을 전제로 하는 한에서만 구현된다. 그렇기에 이 ‘공공 공간’의 생산에는 폭력과 박탈, 고독에 저항하는 행위가 주요하게 포함된다.

준이치(윤대석·류수연·윤미란 역, 2009)는 아렌트의 공적 의미에 착안하면서 공이 ‘공적인(official)’, 혹은 ‘공통적인 것(common)’처럼 일정한 의무와 보편을 강조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온 궤적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그는 기존의 ‘공’이 집합을 강조하고 특정 집단을 억누르는 기제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밝히면서 이에 대안적인 공의 개념으로서 ‘열린(open)’으로의 공공, 즉 말 그대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의미의 공을 제시한다.

낸시 프레이저(Fraser, 1990) 역시 하버마스가 ‘공’의 영역을 ‘근대 시민 남성’으로 치환함으로써 아렌트적 ‘공’의 의미를 현저히 축소시켰을 뿐 아니라 ‘부르주아 시민 남성’의 이해관계를 ‘공통적인 것(common)’으로, 즉 ‘공’으로 사용하는 우를 범하였음을 밝혔다. 프레이저는 이러한 하버마스의 논지가 그동안 학계에서 계급적 측면, 계층적 측면, 젠더적 측면, 섹슈얼리티적 측면 등등에서 반박되어온 역사를 정리하면서 ‘대안적 공공 영역(alternative public sphere)’을 주장한다. 프레이저의 대안적 공공 영역은 선형적으로 주어진 경계가 있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담보한다.

복수성을 담지한 열린 공공 공간에 대한 논의는 서론에서 밝힌 국내 도시권리 담론에서도 이어졌으며, 또한 김동완(2014)의 논의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김동완(2014)은 ‘공’의 의미를 동질(同質)과 이질(異質)로 분류하면서 공공 공간은 ‘날 것’이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규율과 규범 권력이 공간을 매개(mediation)하며 동질적 공간을 형성하고, 이를 ‘공’의 의미로 귀결시키려는 것에 일종의 대항 공간으로 그는 ‘날 것’, 즉 권력의 매개 없는 날 것 그대로의 공간을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날 것’의 공간이 창출될 때, 타자의 존재가 드러날 것이라 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복수성으로서의, ‘열린’으로서의, 대안적 공공으로서의,

11) 현현(appearance)이란 재현 혹은 표상(representation)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크 데리다(남수인 역, 2004)의 ‘환대’의 개념과 맞닿아있다. 즉 여성, 남성, 이성애자, 동성애자, 노인, 장애인과 같은 (대문자적 의미의)언어는 주체를 획일적으로 추상화하며, 그 과정에서 해당 주체는 하나의 왜곡된 상으로만 존재한다. 그와 대조적으로 주체가 현현한다는 것은 각각의 존재에 편견과 균질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그녀를 환대한다는 의미이다.

‘날 것’으로서의 ‘공공 공간’ 개념에 방점을 둔다. 이 ‘공’은 단순히 ‘이것’으로 귀결시킬 수 없는, 다분히 정치적이며 투쟁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공’은 의미 ‘규정’보다 의미 ‘획득’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열린 공공 공간을 획득하기 위한 행위는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 논의 중에서도 작품으로서의 도시를 전유할 권리와 연결된다. ‘작품’에의 도시를 누릴 권리는 “(…)자신을 알고,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들의 조건들을 재생산하고, 자신의 자연과 조건들(육체, 욕망, 시간, 공간)을 전유하고, 스스로 자신의 작품이 되는 그러한 행위”(박정자 역, 2005: 355, 강조처리는 원저자)에의 획득과 관련이 깊다. 이 권리는 고정된 도시 공간에서 주체가 수동적으로 얻는 결과물이 아니라, 언제나 재구성되고 있는 상태로서의 도시에서 자신의 몸과 살, 피부, 의식을 통해 능동적으로 향유하는 행위의 과정 중에 획득된다. 그러므로 이 작품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도시는 모든 개인이 작품을 생산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흐르는’ 공간이며, 이 흐름 속에서 주체는 도시를 전유(appropriation)하게 된다. 이때 ‘차이’로의 개인은 근대적 의미의 ‘원자적 개인’이 아닌 타인의 작품적 행위를 존중하며, 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주체, 즉 일종의 유희적 주체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축제적 시위인 퀴어한 퍼레이딩은 이성애정상가족규범이 지배적인 도시 공간에 유희적 주체의 현현과 작품적 행위 생산을 추구한다. 이 ‘낮설고 괴이한’ 축제적 시위는 도시공간의 공공성에 각인된 이성애가부장적 규범을 흔들고, 균열을 만듦으로써 복수(複數)와 이질적인 것으로 가득 찬 혼종성(hybridity)으로 공공성을 채우고자 한다. 즉 혼종성으로의 공공 공간은 다층적인 섹슈얼리티와 그에 기반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관계들을 거리에 현현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공 공간은 섹슈얼리티의 스펙트럼뿐 아니라 몸을 수행하는 방식을 주체화함으로써 몸과 섹스, 노출 그 자체를 스스로 향유하는 방향을 추구한다.

퀴어한 퍼레이딩은 기존의 이성애정상가족규범적인 공공 공간을 혼종성으로의 공공 공간으로 변환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축의 수행을 한다. 그것은 첫째로 젠더 패러디와 같이 기존의 젠더 규범을 흔드는 것이며, 또한 ‘되기’로의 수행, 작품적 걷기와 같은 행위를 통해 ‘몸’ 자체를 재의미화하는 것이다. 우선 젠더 패러디는 주디스 버틀러(조현준 역, 2008)의 주장, 즉 기존의 젠더 체계가 시간적으로 무수히 축적된 수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같은 조건적 반복에 기인한 행위에는 정작 (성찰적) 행위자가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버틀러가 문제삼은 것은 ‘여성 되기’, ‘남성 되기’와 같은 젠더 수행이 창발적 행위로 이어지지 못하고 권력의 장에 포섭되어버리는 것이다. 여성/남성으로의 이분법적인 젠더 수행과 성(sex)의 선험성을 강요하는 사회의 구조를 문제화시킨 버틀러의 논의는 학계와 운동영역에서 이성애규범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대안적 실천의 전략 중 하나로 주목을 받아왔다. 예컨대 정윤희(2009)는 예술가들이 기존의 여성/남성으로 규정된 복장을 변용하고, 모호한 젠더 이미지를 형성해내는 것을 분석하면서, 이같은 이미지의 생산이 기존 젠더 체계를 전복하는 지점에 대하여 언급한다. 물론 젠더 패러디의 전략은 인종, 계층, 후기식민주의 등과 같은 결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¹²⁾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여로 순응화되고 획일화된 이성애적 젠더 수행을 문제시하는 것은 다양한 몸들을 여성과 남성으로 귀결시키려 하는 현 한국의 폭력적 젠더 규범에서 여전히 시의성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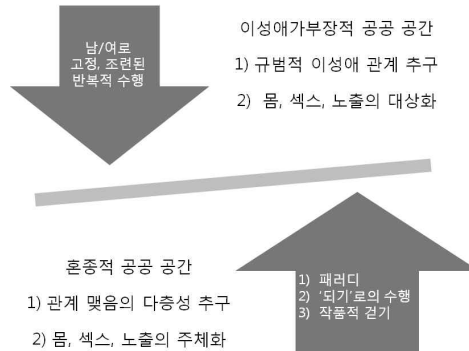
젠더 패러디뿐 아니라 퀴어한 퍼레이딩은 인종, 계층, 계급 등 다양한 정체성이 결부된 몸에 집중하면서, 매순간 ‘되어가는’ 수행을 언급한다. 조현준(2001)은 버틀러의 수행적 주체가 반복을 행하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주체를 가능하게 하는 일시적인 조건과 잠정적인 주체 상황을 구성”(조현준,

12) 해리타원(Harritaworn, 2007)은 버틀러의 이성애적 매트릭스(이성애에 기반하여 사고의 의미망이 작동하는 것)가 인종적 측면, 후기식민주의적 측면을 포괄한 혼종적 매트릭스를 포착하지 못함을 언급하고 있다.

2001: 186)한다고 말하였다. 다시 말해 버틀러의 수행적 주체는 권력의 장에서 단순히 젠더를 연기하는 것뿐 아니라 그 반복을 탈피하는 저항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들뢰즈와 가타리(김재인 역, 2003)는 ‘리좀(Rhizome)’적 세계관에 기반한 ‘되기’로의 수행을 언급하는데, 그들의 논의에 따르면 리좀은 “시작하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는다. 리좀은 언제나 중간에 있으며 사물들 사이”의 ‘간주곡’으로, “~이다(etre)”라는 동사 대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조직으로 갖는 것”이다(김재인 역, 2003: 35). 리좀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공간에서 수행해나간다는 것은 매순간 자신의 수행이 지닌 일시성과 복수성을 인식하고, 그 인식에 반추하여 또다시 ‘그리고’의 수행, 즉 다른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다. 끊임없이 되어가는(becoming) 상태로의 수행은 공공 공간에 ‘귀여한’ 장면을 생산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귀여한 퍼레이딩에서 참여자들의 몸과 그들의 수행은 성 정체성만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그들은 축제의 장에서 매순간 노동자로서, 사회운동가로서, 학생으로서, 외국인노동자로서, 성노동자로서, 장애인으로서 존재하며 이같은 다양한 결의 정체성 수행을 통해 해당 공간을 혼종성으로 채운다.

패러디와 ‘되기’로의 수행은 공공 공간 내에 절대화, 중립화된 조련적 반복에 반동하는 작품적 걷기를 생산한다. ‘작품적 걷기’란 르페브르의 작품 논의와 로리머(Lorimer, 2011)의 걷기 논의를 절합한 것이다. 로리머는 인간의 걷는 행위를 분석하였는데, 그 중에서 자아에 집중한 보행자의 걷기가 어떠한 의미를 띠고 있는지 언급하였다. 로리머에 따르면 자아를 중심에 두는 보행자의 걷기는 해방과 재개, 보충을 의미하며 또한 자신이 어떠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탐색을 하게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아와 경관은 예상 밖의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접촉을 통해 늘 새롭게 만나게 된다(Wylie, 2007). 즉 이때의 보행자는 방대한 애매함의 장을 걸으면서 존재가 되어간다(becoming). 또한 로리머는 자아의 탐색적 차원의 걷기에서 더 나아가 의지에 찬 예술적 보행에 대해 언급하였다. 로리머에 따르면 걷기는 겸손하고 인간적인 활동인 동시에 예술적인 창조나 정치적 시도를 담는 행동이기도 하다. 즉 걷기는 특정 장소에 발을 결연히 들임으로써, 특히 대중 시위에서 강력한 상징적 효과를 지니게 된다. 이처럼 걷기는 역사적으로 대중들이 특정 공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저항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걷기는 자아가 공간과 만나며 형성되어가는 과정이자 동시에 예술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의 의미를 지닌다(Lorimer, 2011). 이러한 의미에서 귀여한 퍼레이딩에서의 걷기는 해당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존재와 그 위치성에 대해 탐색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불어 걷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주변 사람, 경관과 만나며 자신을 구성해나간다는 점에서, 마지막으로 도시공간에 성애화된 낯선 장면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해당 거리를 귀여화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르페브르의 관점에서 기존의 거리 규범과 다른 창조적 행위를 생산하고, 자신의 몸을 작품으로 전유하는 수행이기도 하다.

아래의 [그림1]은 앞서 언급한 논의를 정리한 것으로, 참여자들이 귀여한 퍼레이딩의 장에서 기존의 이성애가부장적 공공 공간에 어떠한 균열과 경합을 생산하려 했는지 보여준다. 즉 귀여한 퍼레이딩은 패러디, 되기로의 수행, 작품적 걷기라는 행위를 통해 남/여라는 고정된 젠더로의 수행만을 요구하는 현 공공 공간의 억압적 측면에 저항하여 혼종적인 공공 공간 생산을 추구한다. 이때의 혼종적인 공공 공간은 복수적 정체성에 기반한 관계 맺음이 가능한 공간, 다양한 몸들이 섹스와 노출의 목적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의 위치에 설정되는 공간이다.



[그림1] 퀴어한 퍼레이딩에서 경합하는 도시공간의 공공성

즉 퀴어한 퍼레이딩은 획일적인 젠더/섹슈얼리티 규범과 ‘단일한 몸’이라는 규범에 대해 논쟁의 장을 엮으로써 기존의 이성애정상가족규범에 기반한 공사 경계를 초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낯설고 창발적인 행위, 작품으로의 도시, ‘열린’ 공공 공간, 즉 ‘현현의 공간’을 추구한다. 필자는 이처럼 주체의 수행과 행위가 담지한 실천적 측면이 열린 공공 공간을 열기 위한 필수조건임을 다시 한 번 주지하면서 신촌 퀴어퍼레이드에서 주체들이 공공 공간에서 행위하고 수행하고, 향유한 궤적을 살핀다. 그럼으로써 해당 사례에서 성적 반체제자들이 ‘오염’, ‘잉여’라는 사회의 낙인을 넘어서서 자신의 ‘성적 반체제성’ 자체를 향유하며 ‘열린’ 공공 공간을 생산한 과정을 드러내고자 한다.

3. 도시를 퀴어화하라(Queering the City): 2014 신촌 퀴어퍼레이드

서울퀴어문화축제측은 제 14회 서울 퀴어퍼레이드가 열린 홍대 일대를 제 15회 퍼레이딩 장소로 고려하였으나, 마포구는 2012년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이하 마레연)>에서 요구한 현수막을 거는 것을 거부한 이후 관할 지역 내에 성적 반체제자들의 행사가 열리는 것을 공공연히 불허해왔기에¹³⁾ 홍대가 아닌 신촌의 연세로를 퍼레이딩 장소로 선정하였다. 서울 퀴어문화축제측은 3월부터 신촌민회와 연락 후 신촌 상가회의 팀장과 축제에 대해 논의(무지개행동-퀴어문화축제, 2014)했고, 이후 신촌 번영회는 해당 퍼레이드를 지지하며¹⁴⁾ 4월 초, 서대문구청에 장소신청을 했다. 그 결과 서울 퀴어문

13) 실제로 마포구는 2013년 무지개행동이 주도한 ‘커밍아웃 문화제’가 열릴 장소를 대여해주는 것을 불허해 마포구청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무지개행동, 2013)

14) 신촌번영회는 2014 퀴어문화축제에 협력하며 다음과 같은 축사를 퀴어문화축제측에 보냈다. “안녕하십니까? 신촌 번영회 협동조합 회장 이문학입니다. 2014년 퀴어문화축제 축사에 앞서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만물이 성장의 박차를 가하는 6월을 맞이하여 신촌에서 퀴어축제와 같은 뜻 깊은 행사를 진행하게 된 것을 신촌 상인을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촌은 대한민국 문화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곳으로 새로운 문화의 실험실이 되고 더불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수준 있는 문화를 양산해 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2014 퀴어문화축제는 신촌이 추구하는 문화적 방향과 일치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15번째를 맞이하는 퀴어축제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고, 신촌에서 이루어지는 이 번 행사가 더 성황리에 진행되고 뜻 깊은 행사가 될 수 있기를 신촌 상인을 대표하여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출처: 서울 퀴어문화축제 홈페이지)

상인회의 지지는 비단 2014년 신촌 퍼레이드뿐 아니라 2013년 홍대 퀴어퍼레이드에서도 존재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이를 곧바로 상업화와 연관시키기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13년 홍대 퀴어퍼레이드의 경우, 상인회가 협조적으로 나온 것에는 상인회의 회장이 마포 민중의집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연유한 바가 크다(임미영, 2015). 즉 일종의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지지였던 셈이다. 또한

화축제측은 5월 12일 연세로 장소 사용을 승인받았다(서대문구 교통행정과, 2014.05.12). 그러나 이 승인은 “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하여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에 따른 국가적 추모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경우 축제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등 행사일정 재검토”(서대문구 교통행정과, 2014.05.12)라는 조건이 붙은 승인이었다.

신촌 연세로에서 퀴어한 퍼레이딩이 열리게 되었다는 소식에 <에스터기도운동(이하 에스터)>, <예술재단>, 범동성애반대단체인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이하 동대위)>¹⁵⁾,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 등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에스터 관계측은 ‘신촌동성애반대청년연대’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축제 반대운동을 홍보하기 시작¹⁶⁾했으며, <동대위>의 경우에도 신촌 퀴어퍼레이드를 막기 위해 「긴급공지」 문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이 문서는 <동대위>에 속한 단체뿐 아니라 SNS(주로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해 <어버이연합> 등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의 단체들에게 공유되었다. 에스터 관련측과 <동대위>는 신촌 퀴어퍼레이드를 막기 위해 서대문구청과 서울지방경찰청, 서대문경찰서, 신촌변영회에 항의할 것을 독려하는 동시에 이 글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을 독려¹⁷⁾하였는데, 이같은 네트워킹의 효과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이하 자유게시판)에 5월 23일부터 퀴어퍼레이드가 끝난 후인 6월 10일까지 19일 동안 총 신촌 퀴어퍼레이드와 관련해서 총 109개의 반대/항의글이 올라오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 기간 내 서대문구청의 자유게시판 글이 총 130개였다는 점을 감안해봤을 때, 이는 83.85%에 해당하는 비율이었다.

이들은 항의글을 게재할 뿐 아니라 관할부서에 전화를 걸어 업무를 마비시켰다. 또한 반대측 중 일부는 5월 28일, 서울퀴어문화축제측에 집회 신고를 허가해준 서대문경찰청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그는 서대문경찰청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는데, 그가 든 피켓에는

2014년 신촌 퍼레이드의 경우, 축제 유치의 이유가 상업적 측면과 유리될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필자가 볼 때 이는 신촌변영회에 있어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는 선택이었다. 예컨대 서울시는 퀴어퍼레이드의 상업화가 상당히 진행된 뉴욕시의 경우처럼 적극적으로 축제를 메가이벤트화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기업적 측면을 보이지 않았고(오히려 서울시는 시가 축제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퍼레이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우호적이지 않았다. 더욱이 2014년 신촌 퀴어퍼레이드는 퍼레이드를 열 자금이 없어 소셜펀치 등을 통해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서울 퀴어퍼레이드측이 가진 자본규모의 열악함과 지지기반의 열악함, 상업적 영향력의 열악함 등을 고려해봤을 때, 상인회가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상업화나 메가이벤트로 연관시키는 것은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는 해석이다. 흥대변영회와 신촌변영회가 퀴어퍼레이드를 지지함으로써 어떠한 득실을 얻었는지, 그리고 점차 규모가 커져가는 서울 퀴어퍼레이드가 앞으로 도시의 메가이벤트적 측면, 상업화의 측면과 어떻게 연관될 것인가는 흥미로운 논의이나, 이는 본고에서는 깊이 다루지 않으며 추후 과제로 남긴다.

15) <동대위>는 동성애조장반대운동의 입장에 있는 단체들의 연합체로, 여기에는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이사 건사연)>, <건전신앙수호연대>, <교육과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이하 바성연)>, <선민네트워크>, <중독예방시민연대>,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의 단체들이 포함되어있다. 이들 단체는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에 성 정체성/성적 지향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는 걸 반대하는 행사 및 시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16)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촌은 100여 년 전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독교를 세워 민족 복음화와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배출한 교육의 요람이며 또 젊은이들의 꿈과 낭만이 있는 캠퍼스 특별지구입니다. (...) (퀴어퍼레이드는)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며, 시류에 맞지 않는 행태로써 국민들과 신촌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맞서 신촌에 거주하는 크리스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한 것과 같이, 이 퇴폐적인 동성애자들의 뺨스 카퍼레이드를 막아서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대열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는 신촌을 살리고, 서울을 살리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6월 7일 오후2시, 창천교회 앞에 모여 이 동성애 집회와 뺨스 카퍼레이드를 막아냅시다!!(출처: 신촌동성애반대청년연대 페이스북, 강조처리는 필자)

17)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 동성애자들이 몰려와 서울 한복판에 모여 웃을 벗고 퍼레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 8년동안 우리나라 <청소년 에이즈환자가 8배 증가>했고, 그 중 <57%가 동성애 때문>에 감염되었습니다. (2011 질병관리본부) (...) 그럼에도 청소년 질병안전문제 무시한 채 동성인권 운운하면서 동성애를 옹호, 조장, 확산시키는 정치인과 공무원이 있습니다. (...) <동성애축제 허가한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항의하고 철회하도록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항의전화, 게시판 글 올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위 많은 분께 전달바랍니다. (출처: 바성연 홈페이지)

“동성애자 ‘퍼레이드’ 중단 / 서울 경찰청 퀴어문화축제 시가행진 허가를 취소하고 중단시켜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반대측의 항의 속에서 서대문구청측은 5월 26일에는 상가 번영회로 연락 취소를 알렸고(무지개행동-퀴어문화축제, 2014), 5월 27일 장소 승인을 취소(서대문구 교통행정과, 2014.05.27)¹⁸⁾했다.

그러나 서울 퀴어문화축제측은 5월 9일 서대문경찰청에 집회신청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6월 7일 연세로에서 퀴어 퍼레이드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였다. 서대문구청의 ‘문화 행사’ 허가는 취소되었지만 경찰측이 6월 7일 연세로에서의 ‘집회’를 허가했기에 퍼레이딩측은 집회의 성격으로 그 공간을 점유할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다. 그런데 서대문경찰청은 예수재단의 탈동성애 예배 집회와 에스더 관련측의 <신촌 동성애 반대 일만명 국민대회(이 행사는 세월호 추모제로 신고되었다)>집회, 아버지 연합의 집회 신고 역시도 받아주었다. 결과적으로 신촌 퀴어퍼레이드에서의 경합은 사실상 퍼레이드 전부터 예정이 되어있었다고 볼 수 있다.

1) 퍼레이딩 전(前) 부스 행사: 패러디, ‘되기’로의 수행

(…) 공연이 이루어질 유플렉스 앞 광장에는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육색무지개 깃발과 화려하게 치장한 사람들 사이에서 한 남성이 동성애혐오와 반대 발언을 적은 피켓을 10여개를 펼치고 자리에 앉아있다. 커피 내리는 향이 향긋하게 퍼지는 퀴어커피부스 옆 대형 스크린에서는 혐오세력에게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내용이 안내되고 있다. 환호와 노랫소리, 고함과 향의가 섞여 웅웅대는 소리, 상반된 감정을 표출하는 문구들. 경계의 균열들. 마치 평화로운 카오스의 한 가운데에 있는 것 같다.

- 2014. 06. 07. 현장노트 중

퀴어퍼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던 6월 7일 연세로에 퍼레이드 반대측 역시 집회를 진행하게 됨에 따라 퍼레이딩 전 부스 행사가 진행되었던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5시경까지 연세로에는 상반되는 경관이 펼쳐졌다. 퀴어문화축제 무대가 펼쳐지는 유플렉스 앞에서 오후 1시부터 2시경까지 홀리라이프와 신촌 아름다운교회, 예수재단이 주도한 탈동성애예배가 진행되었으며, 퍼레이딩 경로인 창천교회 앞 쪽에는 <신촌동성애반대청년연대> 및 에스더, 예수재단 등이 연대하여 진행한 <신촌동성애축제 반대 1만명 시민대회>가 열렸다. 아래의 사진들은 당일 반대측의 활동을 보여준다.



[그림3] 탈동성애 예배(1)(출처: 서울퀴어문화축제)



[그림4] 탈동성애 예배(2)(출처: 서울퀴어문화축제)



[그림5] 신촌동성애축제반대 1만 명 시민대회(출처: 2014.06.07. 크리스천 투데이)

18)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사 승인조건에서도 알려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도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의 국가적 추모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하여 모든 야외행사를 취소하는 등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 번영회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퀴어문화축제는 현재의 사회적분위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리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퀴어문화축제 행사승인 취소를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촌을 정화하고 ‘비우려’ 했던 반대측의 영역화¹⁹⁾와 대조적으로 신촌 퀴어퍼레이드를 지지한 세력은 신촌 퀴어퍼레이드의 공간성을 이질성과 복수성으로 ‘채우기’ 위한 영역화 전략을 택했다. 로버트 색(Sack, 1986)은 영역의 이동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영역이 비단 지리적으로 고정된 것 뿐 아니라 “(…)구역(areas)을 사용하는 데 작동하는 문화적 규범이나 금지, 몸 제스처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미묘한 형태들”(Sack, 1986: 20)로부터도 기인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지지측이 행했던 영역화의 전략들, 즉 몸의 수행과 패러디, 그리고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데 효과적이다. 아래의 글은 데이비드 벨(Bell, 2007)이 급진적 퀴어엑티비즘을 지향하는 단체들을 논의했던 겔트메이커(Geltmaker, 1992)가 자신의 몸 자체를 수행의 장으로 전유한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필자가 본 절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수행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에이즈 엑티비즘의 정치적 관점만큼이나 독특한 슬로건과 로고를 내 몸에 붙인 걸 보면서 독자들이 나를 이런 단어들로 상상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에이즈는 끝나지 않았다’, ‘여자들이 더 빨리 죽고 있다’, ‘나는 동성애자다’, ‘침묵은 죽음과 같다’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공중장소를 무단으로 점거함으로써 내 몸을 정치적으로 전유하기 위함이다.

- Bell, 2007: 84, Geltmaker, 1992: 609 재인용

신촌 퍼레이드 참여자들이 해당 장소를 ‘무단’으로 점거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패러디와 ‘되기’로의 수행을 통해 몸을 정치적으로 전유함으로써 몸이 표현하는 언어와 의미를 공간에 새기고, 또 그로써 유희적 주체와 혼종적 공간을 생산해내고자 했다.

(1) 패러디

먼저 패러디의 경우, 패러디가 가지는 역학은 주디스 버틀러(조현준 역, 2008)가 주지하였듯 그것이 단순한 ‘원본’과 ‘모방품’의 관계가 아니라는 데 있다. 버틀러는 젠더 패러디가 원본의 실재를 가정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패러디는 원본이라는 개념 자체에 관한 것(…) 특히 ‘정상적인 것’, ‘원본인 것’이 하나의 모방본이며,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실패한 것(조현준 역, 2008: 344-345, 강조처리는 원저자)이라고 언급하였다. 즉 버틀러는 젠더 패러디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특정 ‘젠더’라고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온 그 행동적 정체성이 하나의 개념, 즉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모방본임을 언급한다. 그렇기에 패러디는 ‘본질적인’, ‘유일무이한’ 그 무언가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가 되는 것에 ‘실패한’ ‘원본’을 따라한다는 데 있어서 버틀러 식으로 말하자면 ‘환영의 환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무언가를 ‘의식적으로’ 패러디한다는 것은, 이미 그 패러디하는 대상이 담지하는 환상에 대한 일종의 조롱이자 유희이며, 그 환상이 드러난 순간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실재를 보게 함이기도 하다.

[그림5]의 사진들은 신촌 퍼레이드 당일 행해졌던 패러디의 일부이다. 우선 첫 번째 사진에서 퍼레이드 참여자들은 신촌 퍼레이드를 점거했던 일부 기독교 세력이 본질이라고 여기는 ‘원본’, 즉 ‘예수와 사도’라는 상징을 패러디한다.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타락의 ‘원본’인 퀴어 퍼레이드에 ‘예수와 사도’라는 구원의 원본을 전시(display)시킴으로써 그 역설에서 발생하는 미끄러짐(slippage)과 경계 사이를 생산한다. 또한 두 번째 사진에 적힌 “엄마 애들이 나보고 이성애자래요ㅠㅠ”라는 문구

19) 해당 과정에 대해서는 김현철(2015)를 참고하라.



[그림6] 신촌 퍼레이드: 수행(출처: 서울퀴어문화축제)

이같은 수행은 단순히 섹슈얼리티와 성 수행의 측면에서만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 리즘적 세계는 들뢰즈가 언급했듯 인종과 계층, 계급, 민족 등의 다양한 결들이 ‘그리고’라는 언어로 끝없이 연결되면서 펼쳐진다. 예컨대 면담자 중 한 명이었던 E는 노동인권단체의 활동가로, 레즈비언이기도 하다. 그녀에게 퀴어퍼레이드에 ‘레즈비언’으로서가 아니라 ‘노동인권단체의 활동가’로 참여한 이유에 대해 묻자 아래와 같이 답하였다.

E: 퍼레이드에 (노동인권단체 활동가로) 참여한 이유는 제가 가진 정체성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노동자고 레즈비언이고, 또 학생이기도 하죠. OOO(단체명)로 참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2014.07.22. E와의 인터뷰

E의 대답에서도 엿볼 수 있듯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한 사람들은 단순히 성 정체성만의 범주로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노동자로, 당원으로, 동물병원협동조합원으로, 장애인으로, 미국과 독일, 이탈리아 대사관 직원으로, 구글회사 직원으로, 천주교인권위원회로, 도쿄퀴어퍼레이드운영진으로, 기독교인으로 등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신촌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하였다. 이같은 복수성은 단순히 퍼레이드 당일에만 표출되는 것이 아니다. 퍼레이드 공간에서의 복수성은 기존 일상생활에서 구축되어온 연대지점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퍼레이드에서 생산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퀴어퍼레이드는 기존 LGBTQ/Queer운동진영의 연대 현황을 드러내는 지표이며, 연대를 생산하는 장이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2014)는 지난 10년간 한국의 여성성소수자의 현황에 대해 언급한 북경 20보고서에서 지난 10여 년간 LGBTQ/Queer 진영이 형성해온 지평과 그 연대망에 대해 논한 바 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게이와 레즈비언 외의 주체들, 예컨대 트랜스젠더와 바이운동이 구체화되는 지점²⁰⁾을 논하고 있으며, LGBTQ/Queer 운동채널이 다각화되어온 흐름 역시 짚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채널의 다각화로 미디어운동과 마을운동에 주목하고 있는데, 미디어운동의 예로 들고 있는 <여성영상집단 움>의 경우 안티-퀴어 액티비즘에 대한 영상을 지속적으로 기록해오고 있다. 움은 이번 퀴어퍼레이드에서도 퍼레이드 반대측과 지지측의 장면들을 영상으로 기록하였고, 평소에도 무행측과 긴밀한 협력 구조를 형성하는 등 연대의 지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마레연>과 같은 경우,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나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지역운동흐름과 그 궤를 같이한”(한국레즈비언상담소, 2014) 흐름을 가지고 있다. 마레연은 임미영(2015)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 마포지역의 진보단

20) 글에서는 트랜스젠더 운동의 흐름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되었던 <트랜스젠더 인권활동 단체 지령이>와 트랜스젠더 삶의 조각보 만들기: 트랜스젠더 인권 지지기반 구축 프로젝트 기획단(2013-), <트랜스/젠더/퀴어 연구소>(2013-)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바이섹슈얼 진영인 <바이모임>(2013-), 바이섹슈얼 웹진도 소개하고 있다.

체 중 하나인 <마포민중의집>과 연대관계에 있다. 이는 [그림 7]의 원편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레연>은 <마포민중의집>과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구성되어온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이들은 <마포민중의집>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물병원생명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마포지역에서의 대안적 공동체 운동이 ‘퀴어한’ 정체성들/몸들과 맞닿는 지점을 보여준다.

또한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한 (지금은 해산된)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단순히 퀴어퍼레이드에서만 지지를 표현하는 소극적 위치에 있지 않다. 실제로 정의당은 성소수자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노동당 역시 성정치위원회를 두고 있고, 녹색당은 성소수자/이주민/장애인 인권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한국레즈비언상담소, 2014). 이같은 기존 연대와 운동의 흐름은 퀴어퍼레이드에서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그림 7]의 오른쪽 사진은 퍼레이드의 다양한 정체성의 흐름과 섞임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이 사진은 장애인운동과 LGBTQ/Queer 운동이 연대해온 지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장애와 퀴어를 연관시킴으로써 장애인을 무성적 존재, 단순한 시혜적 존재로 여겼던 기존의 시각, 더 나아가 장애인 중에 이성애 외의 섹슈얼리티를 가진 사람이 존재할 것이라는 인식이 미비한 기존의 시각에 일침을 가한다. 이처럼 일상에서 구축되어온 연대의 궤적은 퍼레이딩에 참여하는 몸들이 하나의 단일한 정체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다양한 가치를 생산하고자 하는 의지들의 합으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퀴어퍼레이드는 기존의 LGBTQ/Queer 운동진영과 커뮤니티가 구축하고 생산해왔던 연대 지표를 드러낸다.



[그림 7] 신촌 퍼레이드: ‘되기’, 복수성으로의 수행(출처: 서울퀴어문화축제)

이와 더불어 퀴어퍼레이드는 도시공간에 퀴어한 장면을 생산하고, 앞으로의 연대를 확장해나가는 장으로도 또한 존재한다. 이는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주체와 더불어 퀴어퍼레이드의 공간 역시 끊임없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한 그 우발적 만남을 통해 특정 LGBT/Queer 운동의 후원자로,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기도 한다. 필자가 있었던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부스에는 실제로 퍼레이드 당일 CMS 후원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혹은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싶단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배진교 대구 퀴어퍼레이드 위원장은 당일 다양한 부스를 돌며 활동가들과 참여자들에게 대구 퀴어퍼레이드에 연대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퀴어퍼레이드는 기존의 연대 장면들을 보여주는 장임과 동시에 연대를 생산해내는, 되어가는 장으로서 존재한다.

도시공간에 퀴어한 장면을 전시하고, 또한 생산하는 퀴어퍼레이드에서 참여자들은 패러디와 ‘되기’로의 수행을 통해 연세로를 향유하고자 했다. 이같은 전략을 통해 퍼레이드 참여자들은 반대측의 공간 정화 전략에 대항하여 유희적 주체와 혼종적 공간 생산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림 8]의 원편 사진은 부스행사가 진행되던 중, 필자는 전통복장을 한 남성과 십자가를 든 남성의 가운데에 악기를

들고 눈에는 6색 무지개를 페인팅한 백인 남성이 자리를 잡고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광경을 포착한 것이다. 그가 악기를 연주하자 축제의 참여자들은 걸음을 멈추고 그가 연주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환호하고 신기한 듯 웃기도 하였다. 획일적인 이성애가부장적 규범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귀여운 퍼레이딩을 지지하는 연주자가 배치됨으로써 해당 공간은 유희적 측면을 띠게 된다. 또한 오른편 사진은 탈동성애를 지지하는 노선의 예배에 예수의 복장을 패러디한 참여자가 이에 대해 피켓으로 항의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장소 정화’와 ‘패러디’의 영역화가 섞이면서 ‘기독교의 예배에 예수가 항의하는’ 유희적 의미를 형성해낸다.



[그림8] 신촌 퀴어퍼레이드: 유희적 주체의 생산 (출처: 퀴어문화축제)

이상으로 본 절에서는 퍼레이딩 전(前) 부스 행사에서 퍼레이드 참여자들이 어떠한 전략으로 공공 공간을 의미화하고 생산하고자 했는지 분석하였다. 지지측은 반대측의 배제적인 영역화에 대해 패러디와 ‘되기’로의 수행 전략을 통해 공간 전유의 의지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전략 사이에서 공간은 때로는 국지적인 충돌이 벌어지는 장이 되기도 하였지만, 일시적으로 유희적 주체와 공간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이후 퍼레이딩이 예정되었던 오후 5시경부터 <신촌 동성애 반대 일만명 국민대회>를 하던 세력과 어버이연합 중 상당수가 퍼레이딩 공간에 본격적인 점거를 시작한 후에도 지속되었다.

2) 퀴어한 퍼레이딩: 작품적 걷기를 통한 권력의 현현

퀴어한 퍼레이딩 행사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신촌동성애반대청년연대측과 에스더, 어버이연합 등의 단체들은 퍼레이딩이 예정되어있었던 오후 5시경에 퍼레이드 경로를 점거하였다. 이들은 이성애 외의 성 정체성들과 몸들을 거리에 드러내는 퀴어한 퍼레이딩을 ‘괴이함(queerness)’을 넘어 ‘안정’된 ‘공동(common)’의 공간규범을 흔드는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논리하에서 연세로를 배타적인 공공 공간으로 (재)생산하고자 했다. 이들의 인식은 “신촌에 동성애가 풀어진다면, 서울 어느 곳이든 동성애가 풀어진다는 말”이라 주장하고, “서울 어느 곳에서든 동성애가 풀어진다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든 동성애가 풀어지는 것으로, 이번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막아서야 한다”(2014.06.06. 기독교일보)라는 언급에서도 드러난다. 그들은 퍼레이드 경로 자체를 점거함으로써 ‘신촌 땅’에 동성애가 ‘젖어들지 않도록’ 막았다.



[그림9] 신촌 퍼레이드: 대치 상황(출처: 서울퀴어문화축제)

이같은 대치 상황에서 퍼레이드 참여자들은 점거하는 측과 일정 수준 감응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 K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퍼레이드 경험을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K: 아, 저는 늦게 도착했었거든요. 연세대 쪽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들(반대측)이 누워있는 걸 먼저 봤는데 ‘아, 저 미친 자들’ 했죠. 앞이 꽉 막혀있고, 나가지도 않고, 애국가 부르고 있고...근데 이쪽(지지자들)에서 갑자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찬송가)’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워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조금 자리를 비켰어요. 그렇게 앞으로 조금 이동하는데 사람들이 ‘와~~~’하더라고요.

필자: 그때 기분이 어땠어?

K: 좋았죠, 완전 좋았죠. 우리 이번 퍼레이드 구호도 ‘사랑은 혐오를 이긴다’였잖아요. 그 구호 그대로인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고 저도 막 소리치면서 친구들이 있는 뒤쪽(퍼레이드 차량이 있던 쪽)으로 갔어요. 저 춤췄다니까요? 기분 좋아서.

- 2014.08.27. K와의 인터뷰

또한 퍼레이딩 대치가 4시간여 이상 계속되면서 퍼레이드 행렬을 기다리는 대치 뒤편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발적인 경관이 펼쳐졌다. 그 공간을 전유하는 것이었다. [그림10]을 보면, 상단측 두 사진의 경우 성적 반체제자를 상징하는 6색 무지개를 덮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특히 상단 오른쪽 사진의 경우, 뒤에 있는 경찰의 모습과 6색 무지개를 덮은 모습이 대조적이다. 이와 더불어 하단 왼쪽 사진의 경우, 퍼레이드에 참여한 학생들은 노트북과 휴대폰 등을 꺼내 상황을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퀴어퍼레이드의 성격, 즉 ‘축제’와 ‘시위’ 사이의 성격은 대치하고 있는 앞의 상황이 더욱 첨예해져가는 상황에서도 축제적 성격을 잃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람들은 퍼레이드가 시작되길 기다리는 동안 수다를 떨고, 춤을 추었으며, 건배를 하고, 노래를 불렀다. 실제로 어떤 한 외국인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박수를 치며 리듬을 맞추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격은 상동 공간을 구축하려는 반대측의 영역화 전략과 대비되는 전유적 성격을 띤다.



[그림10] 퍼레이딩 대치 뒤편(출처: 서울퀴어문화축제)

이처럼 대치하는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대치 상황을 전유하고자 했던 참가자들의 노력은 본격적으로 퍼레이딩이 시작되면서 ‘작품적 걷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J는 인터뷰에서 대치상황에서 퍼레이드로 넘어가던 순간 느꼈던 희열과 퍼레이드를 도는 동안 느꼈던 감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J: 맨 처음에는 왜 앞으로 안 가는지 몰랐어. 팽과리 소리 들으면서 신나서 애인이랑 손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얼마 걷지도 않아서 갑자기 멈추는 거야. 무슨 일인지 처음엔 전혀 몰랐어. 그러다가 10분인가...한참 있고 나서야 앞에서 문제가 생긴 걸 알았어.

필자: 앞에 그 난리 난 거?

J: 응. 애인은 혹시 모르니까 위험하다고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궁금해서 앞에 가봤지. 진짜 난리도 아니더라. 사람들 다 ‘연행해’ 외치고 있고. 다시 돌아와서 또 한참을 기다리다가 진짜 조금? 한 다섯 발자국? 정도 움직였어. 근데. 그렇게 조금 움직였는데 나도 모르게 함성이 막 터지면서 순간 울컥하는 거야.

필자: 퍼레이드 돌기도 전에?

J: 어. 애인이랑 친구들이 옆에 있어서 울진 않았는데 울컥했었어. 그렇게 몇 번? 감질나게 움직일 때마다 울컥하고...퍼레이드가 시작되고는 도는 내내 소리 지르고 그랬던 것 같아. 특히 그 어디야...연세대 쪽 굴다리 지나갈 때는 사람들 함성소리가 막 몇 배로 더 커지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좀 중이병 같지만 정말 그 세계에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았어. 함성소리가 귀에 먹먹하고 나도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뭐라 그래야 할까. 막 그..끓어오르는...음...그래, 일종의 카타르시스 같았달까.

필자: 나도 그때 정신없이 소리 질렀어.

J: (잠시 생각하다가)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앞에서 그 조기 입었던 분(한채운)이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시는데 나도 결국 울었어. 자존심이고 뭐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

- 2014.07.12. J와의 인터뷰

J의 인터뷰 내용에는 퍼레이딩에서 느낀 카타르시스뿐 아니라 퍼레이드를 같이 걸었던 사람들과 공감했던 부분이 잘 드러나 있다. 신촌에서의 퍼레이딩은 일종의 ‘걷기’로써 기존의 ‘생산물적 리듬’의 걷기와는 차별화되는 ‘작품적 걷기’를 창조해낸다. 더불어 이같은 ‘작품적 걷기’를 함께 함으로써 집단의 기억은 해당 공간에 새겨진다. 이같은 ‘작품적 걷기’는 근대적 만보객(flâneuse/flâneur)의 조망적 걷기와도 차별되며, 이동을 위한 반복과도 차별된다. J가 느꼈던 ‘카타르시스’는 ‘작품적 걷기’의 행위를 통해 ‘날 것’으로의 공간을 향유한 경험이 가져올 수 있는 감정의 역학을 보여준다.

즉 퍼레이딩하는 몸은 유통, 반복적 이동만을 허용하는 도시의 거리 개념에 균열을 넣는 것이다. 이때 이 몸의 걷기는 행동이 아닌 하나의 행위로 존재한다. 거리를 ‘학습’하는 것이 아닌 ‘향유’하고자 하는 몸짓은 능동적 리듬을 생산한다. 이같은 걸음걸이의 생산은 해당 거리를 퀴어링(queering)하

는 동시에 ‘자연스럽다’고 여긴 기존의 리듬에 함축된 획일적 질서를 드러낸다.

거리의 리듬을 재구축하고 몸을 표현하는 것, 춤을 추는 것, 합성을 내치르는 것, 걷는 제스처를 자유롭게 하는 것, 몸을 이완시키고 뛰는 것 모두 ‘제스처 하나조차 자유로울 수 없는’ 기존 공간 질서에 대한 일종의 축제적 저항이다. 그것은 ‘소유자’, 혹은 지배적 주체만이 거리에 권리를 가진다는 논리와 ‘소비하지 않는 주체’가 거리를 돌아다닐 권리를 지우는 논리, 거리를 배회하고 거리에서 모임을 가지며 유희를 즐길 권리를 모두 삭제해나갔던 기존 거리 규범에 대한 저항이다. 이처럼 존재의 주체적 전유가 드러나는 몸짓은 ‘작품적 걷기’로 명명될 수 있다.

더불어 ‘작품적 걷기’에서 타인의 존재와 목소리는 삭제되지 않는다. 이는 ‘함께’ 걷는 연대적 걷기로 나아갈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11]에는 민영화에 대한 비판과 서울의 인종차별에 대한 비판(SEOUL, AGAINST RACISM), 그리고 ‘평등한 사랑’을 지지하는 노동정당의 슬로건이 성별주의(sexism), 동성애혐오에 맞서 행동하자는 피켓이 같은 공간에서 표출된다.



[그림11] 쿼어한 퍼레이딩: 작품적 걷기의 생산(출처: 서울퀴어문화축제)

4. 2014 쿼어한 퍼레이딩의 한계: 공공 공간에서의 노출 규범에 대한 비판적 성찰 미비



[그림12] 쿼어퍼레이드에서의 노출 수행(출처: 서울퀴어문화축제)

2014 신춘 쿼어퍼레이드는 성/젠더 정체성에 대해서는 쿼어화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정작 몸 그 자체의 규율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전략을 펴지 못했다. 예컨대 퍼레이드가 가장 많이 공격받은 지점인 거리에서의 노출규범에 대해서 쿼어퍼레이드 참여자들은 이를 언어화하지 못했다. 신춘 퍼레이드 이후 6월 11일에 열린 <성소수자와 공적 공간, “물의를인가, 무리인가?”>토론회에서도 역시 노출에 대해 찬성하며 환영한다는 측과 역효과를 우려하는 측의 입장이 갈리었는데, 이는 노출규범에 관해 퍼

레이드 지지층이 지니고 있는 긴장을 보여준다. 아래는 노출과 관련하여 토론회에 나온 플로어 의견 4개이다.

플로어 3: 퍼레이드에서 뽀스만 입고 돌아다닌 것. 대다수의 사람들이 중도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다. 역효과가 나서 소수들만 즐기는 문화가 되지는 않을까.

- 무지개행동, 2014: 11

플로어 8: 제 주변에 게이 친구들도 많고, 나는 표현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허용해야한다고 생각해서 팬티 입는 것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도 그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반감이 이는 것처럼, **성소수자 운동도 화합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씩 보면 거부감이 드는 워딩들이 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러는데 다른 분들은 더 그러실 것 같다.

- 무지개행동, 2014: 14, 강조처리는 필자

플로어 9: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노출을 금지해야 하나? 누군가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나? **성정체성을 드러내도 몸은 드러내면 안 되는 건가?** 이것은 자기검열에 관한 문제이고, 그런 질문이 두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검열을 하자는 건, 포비아의 눈에 맞춰서 살아가자는 얘기이다.

- 무지개행동, 2014: 14, 강조처리는 필자

플로어 2: 노출이 불법인지 아닌지 따져보면, 강의석씨의 경우 정치적 의사표현이었다고 무혐의가 나왔고, 예전에 목사님들이 나체로 나왔을 때도 무혐의 났었다. **노출 자체에 대해, 기존에 안 봐왔던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축제는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하지 않았던 것을 해야 축제라고 생각하고,(...)

- 무지개행동, 2014: 15, 강조처리는 필자

신촌 퍼레이드에서 ‘노출’이 가장 문제시되는 지점이었던만큼 비단 이 토론회 뿐 아니라 인터뷰 중에도 이와 관련한 의견이 활발히 나왔다. 아래는 노출에 관해 언급했던 인터뷰 내용들이다.

K: (노출하는 건)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자신을 표현하는 거고. **처음에 제가 부처들한테 가졌던 낯설이 나 혐오가 사라졌듯이 노출도 그렇게** 생각해요. 낯설어서 그렇지, 계속 보다보면 괜찮아질 그런 거? 그분들(반대측)은 아직 그런 경험을 해보시지 못한 거죠.

- 2014.08.27. K와의 인터뷰, 강조처리는 필자

E: 전혀요. 오히려 노출을 이상하다고 보는 게 더 음란한 것 같아요. ‘뽀스’니 ‘뽕꼬’니. 단어도 왜 그렇게 저급한지 모르겠어.

- 2014.07.22. E와의 인터뷰, 강조처리는 필자

R: 가끔 인터넷에서 쿼터트럭에 상반신 노출한 사진을 보고 ‘으~한국정서가 아니다 별로다’ 그러는데 **그 한국정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치면 맥 감는 거나 등목도 한국정서가 아니어야 할 텐데.** (노출의)그 모든 취향은 개 인적인 거고 그걸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 **제가 싫어요.** (노출)하는 것도 싫고, 보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전 노출하지 말라고 강요하진 않지만, 제가 하지도 않아요.

- 2014. 07. 04. R과의 인터뷰, 강조처리는 필자

또한 아래는 쿼퍼레이드에서 혼도시를 입어 논란이 되었던 우주군이 유튜브 방송 <OPEN>을 통해 노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부분이다.

저는 3년 전에 처음으로 혼도시를 입었었는데요, 옷을 입는다는 게 군인이면 군복 학생이면 교복처럼 옷은 하나에 사회가 만들어놓은 틀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이 옷을 벗음으로써 그 억압에 저항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1년에 하루 정도는 그리 해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 그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 그 중에서 흥미로운 덧붙이 있었어요. 멋진 몸 을 가진 사람이 벗는거랑 뚱뚱한 사람이 벗는 건 사람들에게 많은 차이가 있다 뚱뚱한 사람이 벗으면 누가 그거를 좋게 봐주겠느냐 라는 그런 덧붙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 게 이상했거든요. 근육은 노출해도 되고 지방은 노출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 유튜브 방송 채널 open, 2014.06.27

위의 글들을 통해 퀴어퍼레이드에서의 노출을 둘러싼 논의는 퀴어퍼레이드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경향은 비단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스페인의 경우, 마드리드 퀴어페스티벌에서 게이들의 ‘근육질 몸’이 게이를 대변하는 풍토를 지적한다. 마드리드 퍼레이드 지지측 사이에서는 프랑코 독재시기에 대한 저항의 경험, 그리고 민주화의 경험 속에서 퀴어퍼레이드 역시 ‘운동’이며 ‘시위’이기에 지나친 노출과 몸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과 퍼레이드는 ‘축제’이며 ‘파티’라고 주장하는 입장 차이가 두드러졌다(Enguix, 2009). 이는 비단 마드리드 퀴어퍼레이드만의 문제는 아니다. 뉴욕 등 미국 대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상업화된 퀴어퍼레이드에 대해 (벗은)게이의 몸이 이미 하나로 규격화·시장화되었다고 비판하며 퍼레이드의 의미를 재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Halperin, Traub eds, 2010).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의 퀴어퍼레이드에서도 노출규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퍼레이드 참여자 개개인이 가지는 복수적인 위치성이 충돌하는 지점을 드러냄과 동시에, 앞으로 퀴어한 퍼레이딩의 의미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퍼레이드가 이루어졌던 공공 공간에서의 노출규범은 어떻게 언어화되어야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공공 공간에서의 노출이 ‘음란과 평범’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체계는 ‘조련적 리듬’에 기인한 것이며, 이 ‘리듬’이 공간에서 노출의 위치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주장한다. 예를 들어 공중목욕탕이나 누드 비치, 혼탕 등 특정한 ‘공공’ 공간에서 노출, 그것도 ‘성기’가 모두 드러나는 노출이 문제시 되지 않는 것은 공간의 위치성과 그 공간이 형성해온 ‘수행’과 ‘반복’이 노출의 ‘정당화’와 관련됨을 보여준다. 즉 엄밀히 말해 노출은 ‘일탈’의 문제가 아닌, ‘위반’의 문제이다. 일례로 메리 더글라스(심승희 역, 2012: 160, Douglas, 1966: 36 재인용)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신발은 그 자체로는 더럽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식탁 위에 놓으면 더럽다. 음식은 그 자체로는 더럽지 않다. 그러나 침실에 조리기구를 놓아두거나, 옷에 음식물이 튀었을 때 음식물은 더럽다. 이와 유사하게 응접실에 있는 목욕용품, 의자 위에 놓은 옷들은 지저분해 보인다.

- 심승희 역, 2012: 160, M., Douglas, 1966: 36 재인용

이 말은 노출의 공간 분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패러디할 수 있다.

성기는 그 자체로는 음란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을 거리에 내놓으면 음란하다. 항문은 그 자체로는 음란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을 교실에 드러내거나 배설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 항문은 음란하다. 이와 유사하게 지하철에 가슴 패인 옷을 입고 앉은 여자는 음란해 보인다.

크레스웰은 “공간적 분류가 강하면 강할수록, 즉 추방하고자 배제하고자 하는 욕망이 커질수록 현존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을 전복시키는 일이 더 쉬워진다.(...)우리가 잘못된 시간에 놓인 것을 시대착오(anachronism)라고 부르는 것처럼, 잘못된 장소에 놓인 것을 장소착오(anachorism)라고 부를 수

있다.”(심승희 역, 2012: 160, 강조처리는 원저자)고 언급했다. 즉 노출을 분석하는 작업은 일상공간의 위치성과 더불어 이루어진다.

그 연장선상에서 신체공간의 위치성 역시 문제가 된다. 주디스 버틀러는 “성의 범주와 당연시된 이성에 제도야말로 구성물이며, 사회적으로 제도화되고 규정된 *환영물이거나 ‘페티시’*이다. 이들은 자연스러운 범주가 아니라 정치적인 범주이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것에 의지하는 것은 언제나 정치적이라고 입증된 범주이다.”(조현준 역: 323, 강조처리는 원저자, 기울임은 필자)라고 언급하였다. 즉 공공 공간에서의 노출 ‘부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기존 정상이성애규범이 가지고 있는 ‘성 페티쉬’에 논쟁을 거는 것이다.

기존 여성 신체공간 부위에 대한 노출 규범은 성행위, 혹은 애무와 관련하여 ‘야함’을 느끼게 하는 부위-허벅지 안쪽, 유두, 가슴골-를 노출하는 것은 ‘성욕’을 불러일으키며, 이는 곧 성폭력에 노출되는 것에 그 본인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노출 규범에 대해 여성운동진영에서는 2011년 4월 토론토를 기점으로 ‘잡년 행진(Slut walk)’이 시작되었으며, 한국에서도 역시 2011년 6월에 탑골공원 앞에서 행진이 이루어져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야한 옷을 입어서 성폭행당한 것이다, (피해자가) 먼저 조심해야 한다’란 기존 노출 규범에 저항하는 이 운동은 ‘노출’이 문제인지, ‘노출을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인지에 대해 반문한다. 반대측의 입장에서 ‘항문’이 문제가 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그것이 ‘배설하는 기관’이라는 아브젝트적 위치에 있는 것과 더불어 그것이 ‘남성 성기와 여성 질’의 결합이라는 기존의 ‘성 페티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출에 제재를 가하거나 혹은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젠더/섹슈얼리티 규범의 구축과 더불어 공공공간의 영역화, 공간의 반복적 실천과도 연관되는 것이다. 실제로 서유럽 일대와 북미에서는 역사적으로 브래지어를 거부해온 운동의 흐름이 있었으며, 그 결과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별다를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는다. 또한 뉴욕시는 1992년부터 여성이 가슴을 드러내는 것이 ‘경범죄’로 분류되지 않는 도시이다. 여성운동 활동가들은 ‘가슴을 드러낼 권리’를 주장하는 ‘Go topless day’의 제 1회 가두시위를 뉴욕시에서 벌였다. 남성이 가슴을 공공 공간에 드러내는 것이 ‘범죄’가 아닌 반면, 여성이 가슴을 드러내는 것이 ‘음란한 행위’로 귀결되는 것은 신체공간의 ‘특정’ 부위를 ‘음란함’으로 규정짓는 공간의 반복적 실천이 전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같은 기존의 규범에 대해 뉴욕시는 ‘여성의 가슴이 거리에 드러나는 것이 곧 성욕망의 페티쉬를 자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처럼 공공 공간에서 여성이 가슴을 드러내는 것이 공간의 반복적 실천을 통해 하나의 ‘자연스러움’이 되어간다면, 그때 여성의 가슴은 이성애규범적 ‘성 페티쉬’의 위치성을 초월하게 된다.

뉴욕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여성의 가슴이 공공 공간에 드러나는 것이 ‘언제나’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노출에 대한 기존 공간 규범이 담지하고 있는 지배적/억압적 담론을 드러낸다. 공공 공간에서 신체공간의 ‘특정’ 부위가 노출되는 것에 대한 논란은 공공 공간에서 개인의 몸이 ‘섹스하다’라는 동사의 목적어적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주체의 위치에 있는가라는 논의이며, 이 논의는 공간의 반복적 실천 속에서 재구성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촌에서의 귀여한 퍼레이딩은 도시의 공공 공간을 귀여화하는 지속적인 논의를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나 그 과정에서 성 정체성이 아닌 성적 실천과 몸 그 자체에 관한 논의는 또 다시 주변화되었다. 즉 신촌 귀여퍼레이드는 공공 공간에서의 노출을 통해 ‘노출’이 담지하는 ‘경계’ 자체를 언급하고, 이를 ‘정치’의 경계에 놓는 장이 되지 못했으며, 이는 끊임없이 ‘낯선’ 몸을 생산하고, 논쟁을 생산하는 장, 즉 “그리고”로 이어진 리즘의 장을 구축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그러므로 필자는 앞으로의 ‘퀴어한’ 퍼레이딩이 동성애규범적인 퍼레이딩으로 고착되지 않기 위해, 무수히 많은 행위자들이 연대하는 ‘대항적 공공 영역(Fraser, 1990)’을 형성하기 위해 퍼레이딩 지지 측은 보다 넓은 정치적/급진적 테제를 생산해나가야 함을 제안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국내 도시권리 담론에서 섹슈얼리티 논의가 부재함을 언급하면서 페러디와 ‘되기’의 수행, 작품적 권기의 측면에서 2014 신춘 퀴어퍼레이드에서 퍼레이딩 참여자들이 이성애규범적 공공 공간의 정의를 재구축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적 반체제자들은 공공 공간을 전유하는 주체로 떠오르기도 하였으나 그 전유는 지배적인 성규범과 거리의 규범, 동성애규범성 하에서 제한되고 상실되기도 하였다.

본고의 이같은 분석은 두 가지 차원의 공적 영역, 즉 학계의 공적 영역과 실제 도시공간의 공적 영역이 서로 변증법적으로 구성되면서 성적 반체제자를 ‘사적 존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벨(Bell, 2007)은 ‘다시, 좇같은 지리학과 씹하기(Fucking Geography, again)’에서 지리학계가 씹하는 것(sex)과 관련된 논의를 언급하는 것에 거부함(squeamishness)을 가지고 있음을 논하였는데, 벨이 언급한 ‘성적인 것’에 대한 거부함은 단지 그가 거부당했던 1994년 샌프란시스코 미국지리학자협회(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AAG)에서만 유효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 거부함은 국내의 공간, 인문지리 학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국내 인문지리와 공간 학계에서 성적 논의를 대하는 태도는 거부함과 불편함, 그리고 사유(언어)없음을 수반한다. 무성적인 학계의 지배적인 분위기 속에서 국내의 도시권리 담론은 혼종적인 도시공간의 실재를 언급하지 않으며, 또한 언급해야 할 필요성 역시 느끼지 못한다. 이러한 사유의 부재는 무수히 많은 ‘몸들’과 ‘정체성들’을 이성애정상가족규범적인 도시공간의 이면에 잔여물과 잉여로 남게 한다. 국내 인문지리와 공간 관련 학계가 성애화된 공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유하지 못하는 것은 학계의 공적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논의들에 대해 영역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 인문지리/공간 학계는 공론장의 복수성을 경색시키지 않기 위하여, 또한 “공간을 사회적 존재의 근본적 준거틀로 다시금 가시화시키기 위해서(이무용·구동화·이정옥·정병순 역, 1997: 157)” 성적 반체제자와 공공 공간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를 구성하는 공간 통치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이를 의미화해나가는 다양한 연구들을 생산해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2014 신춘 퀴어퍼레이드 분석을 통해 성적 반체제자를 도시권리 담론의 공적 주체로 ‘떠오르게’ 하고자 했다. 이 작업은 무성적이었던 도시권리 담론의 프레임을 확장시키는 의의가 있으며, 도시공간 내 성적 반체제자를 공적 존재로 언어화했다는 데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국내의 공간/인문지리 학계에서 도시공간의 공론장에 성애화된 논의의 장을 넓혀간다면, 이는 기존의 비판적 공간 연구자들이 구축해온 도시권리 담론과 만나 더욱 풍요로운 리즘에의 도시공간을 고안하고, 또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IV. 참고문헌

- 강현수, 2009,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 공간과사회 통권 제32호, 42-90.
- _____, 2012,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 강현수·황진태 엮음, 도시와 권리: 현대도시권리담론, 서울: 라움, 37-74.
- 김동완, 2014, “‘날 것’으로서 공공 공간과 타자의 복원: 로열 페스티벌 홀을 사례로”, 공간과사회 제 49권, 178-209.
- 김용창, 2012, 물리적 도시재개발에서 도시권으로, 강현수·황진태 엮음, 도시와 권리: 현대도시권리담론, 서울: 라움, 99-119.
- 김준호, 2010, “거리노숙인이 생산하는 ‘차이의 공간’에 대한 연구: 서울역 거리노숙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준희, 2011, “도시공간과 노점상의 권리에 관한 연구: 1980년대 노점상 운동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공간과사회, 통권 제36호, 66-102.
- 김재인 역, 2003, 천 개의 고원 2: 자본주의와 분열증, 서울: 새물결(Deleuze, G., Guattari, F., 1979,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tome 2 : Mille Plateaux*, Minuit.)
- 김현철, 2015, “성적 반체제자와 공공 공간: 2014 신촌/대구 퀴어퍼레이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수인 역, 2004, 환대에 대하여, 서울: 동문선(Derrida, J., 2000, *Of Hospital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 박이은실 역, 2012, 퀴어이론 입문, 서울: 여이연(Jagose, A., 1997, *Queer Theory: An Introduction*, NYU Press).
- 박정자 역, 2005, 현대세계의 일상성, 서울: 기파랑(Lefebvre, L., 1968, *Vie quotidienne dans le monde moderne*, Gallimard: Gallimard edizione).
- 심승희 역, 2012, 장소: 짧은 지리학 개론 시리즈, 서울: 시그마프레스(Cresswell, T., 2004, *Place: A Short Introduction*, Wiley-Blackwell).
- 윤대석·류수연·윤미란 역, 2009, 민주적 공공성: 하버마스과 아렌트를 넘어서, 서울: 이음(齋藤純一, 2000, *公共性*, 東京: 岩波書店).
- 이무용·구동화·이정옥·정병순 역, 1997,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서울: 시각과 언어(Soja, E., 1989, *Postmodern geographies: The Reassertion of Space in Critical Social Theory*, New York: Verso).
- 이진우·태정호 역, 2002, 인간의 조건, 서울: 한길사(Arendt, Hannah, 1958, *Human con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이현재, 2010, “여성주의적 도시권을 위한 시론: 차이의 권리에서 연대의 권리로”, 공간과사회, 제24호, 5-32.
- 임미영, 2015, “사회운동에서의 공간의 탈영역화 전략: 마포 민중의집과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경희, 2014, “마을공동체의 ‘공동체’성을 질문하다: 서울시 마포·은평 지역 비혼/퀴어 페미니스트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제 14권, 1호, 75-112.

- 정기현 역, 2013, 리듬분석 : 공간, 시간, 그리고 도시의 일상생활, 서울: 갈무리(Lefebvre H., 1992, *Éléments de rythmanalyse: Introduction à la connaissance des rythmes*, Editions Syllepse).
- 정윤희, 2009, “사진과 퍼포먼스에 나타난 ‘젠더 트러블’: 복장도착과 양성적 이미지의 젠더 전복적 의미와 수행성, 카프카연구 제 22권, 335-360.
- 조현순, 2001,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정체성 이론: 패러디, 수행성, 복종, 우울증을 중심으로”, 영미 문학페미니즘 제 9권 1호, 179-207.
- 조현준 역, 2008,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파주: 문학동네(Judith Butler, 2006, *Gender trouble :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Routledge).
- 제제, 2012, “자주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고-퀴어 & 정체성에 헌신하기”, 뼈라: 퀴어인문잡지 제 1호, 44-68.
- 한국레즈비언상담소(김현철, 송정운, 이진화 공저), 2014, “여성성소수자”, 베이징+20년: Post-2015 여성운동 미래전망 만들기 -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와 쟁점 토론회 자료집.
- 황진태, 2010, “신자유주의 도시에서 ‘도시’에 대한 권력’의 실현: 해치맨 프로젝트를 사례로”, 공간과 사회 통권 제 34호, 33-59.
- Bell, D., 2007, Fucking Geography, again, in Browne, K., Lim, J., and Brown, G. eds., *Geographies of sexualities*, Ashgate, 81-86.
- Douglas, M., 1966, Renegotiating Gender and Sexuality in Public and Private Spaces in Duncan, N. ed *Bodyspace*, London: Routledge, 127-145.
- Elwood, A., 2000, Lesbian living spaces: Multiple meanings of home, in Valentine, G. ed., *From Nowhere to Everywhere: Lesbian Geographies*, New York: Harrington Park, 11-27.
- Enguix, B., 2009, Identities, Sexualities and Commemorations: Pride Parades, Public Space and Sexual Dissidence, *Anthropological Notebooks* 15(2): 15-33.
- Fraser, N., 1990,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Actually Existing Democracy, *Social Text* 25/26, 56-80.
- Geltmaker, T., 1992, The Queer Nation Acts Up: Health Care, Politics, and Sexual Diversity in the County of Angels, *Environment &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0, 609-650.
- Halperin, D., Traub, V. eds, 2010, *Gay Sham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rritaworn, J., 2007, Queer Mixed Race? Interrogating Homonormativity through Thai Interraciality, in Browne, K., Lim, J., and Brown, G. eds., *Geographies of sexualities*, Ashgate, 101-111.
- Lorimer, H., 2011, Walking: New Forms and Spaces for Studies of Pedestrianism, in Cresswell, T., Merriman, P. eds., *Geographies of Mobilities: Practices, Spaces, Subjects*, Ashgate, 19-33.
- Sack, R., 1986, *Human Territori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ylie, J., 2007, *Landscape*, London: Routledge.

〈인터넷 기사 자료〉

기독일보, 2014.06.06, 신촌동성애반대청년연대, 퀴어 축제 반대 콘서트 개최한다,
<http://goo.gl/wmSzrV>
크리스천투데이, 2014.06.07, 성소수자들, 서울 신촌 일대에서 퀴어문화축제 강행,
<http://goo.gl/P0zlRw>

〈인터넷사이트〉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포털: <http://www.gjhr.go.kr/>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http://www.cchp.kr/>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홈페이지: <http://goo.gl/xxoABG>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홈페이지: <http://www.cfms.kr/>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http://goo.gl/RTSEqT>
신촌동성애반대청년연대 페이스북: <http://goo.gl/SooVmU>
서울 퀴어문화축제 홈페이지: <http://www.kqcf.org>

〈기자회견, 회의록, 공문, 자료집 등〉

서대문구 교통행정과, 2014.05.12, 서대문구 교통행정과-21227호.
서대문구 교통행정과, 2014.05.27, 서대문구 교통행정과-24050호.
무지개행동, 2013.11.20, 성소수자 차별하는 마포구청 규탄: 인권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문.
_____, 2014.06.11, 성소수자와 공적 공간, “물의인가, 무리인가?” 속기록
서울시, 2014.10.17.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강북권역 토론회 자료.

[이야기방]

광장에서 만난 기독교의 두 얼굴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2014년 서울 퀴어문화축제를 시작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기독교인 호모포비아들의 민낯을 마주했다. 그들은 점점 조직화되어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운동에 열을 올렸다. 서울시청농성장에도, 성북구에도 나타났고 기어코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집행을 반대하여 무산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신의 이름으로 혐오발언을 서슴지 않는 이들이 있는가하면,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믿음과는 대립되는 신의 모습을 얘기한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하며 선언하고, ‘차별에는 거룩하고 차가운 분노로, 배제에는 끈기 있는 연대로, 혐오에는 힘 있는 축복으로 끝내 승리하게 하소서.’하며 기도했던 퀴어퍼레이드, 시청접거농성장에서의 축복예배, 그리고 성북구청 앞. 그렇게 함께 자리를 지키며 연대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성소수자 이슈에서 서로 다른 얼굴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소수자운동과 함께하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연대하는 것일까?

차세기연은 성소수자 운동에 연대하는 기독교인들을 모시고 성소수자 운동에 참여하는 마음(신앙관)과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성소수자의 정체성, 인권감수성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들어본다. 그리고 공론장과 공공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보수 개신교인들의 성소수자 혐오 논리가 공공성을 획득해 가는 전략과 과정을 연구한 카이로스의 발제문을 갈무리하여 소개한다. 소개 후에는 종교와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현주소를 짚으며, 나아가 혐오세력들에 대한 전망과 대안을 모색해본다.

포럼 이후, 성소수자 운동에 보다 적극적인 연대 필요성을 공감하고, 특히 성소수자 운동에 함께 할 기독교인연대를 도모하는 자리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프로그램 참여자

진행자 - 하늘안개 (차세기연)

패널 - 자개오신부(길찾는교회), 임보라목사(섬돌향린교회), 김한나 연구원(카이로스)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차세기연) 소개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이하 차세기연)은 '예수를 따르는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더불어 함께 가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차이를 존중하는 공동운동체'라는 가치를 지향하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 활동하는 차세기연, 함께 삶을 나누며 서로 다독이는 차세기연, 퀴어 기독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차세기연이라는 세가지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소수자 인권지지 활동 모임입니다.

2007년 말, 일부 근본주의 기독교 세력이 차별금지법의 '성적지향' 조항에 대하여 '동성애를 허용, 조장' 한다며 거세게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을 때, 기독교 내에서 그들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1월, 국회도서관 내 차별금지법 기독교 토론회를 기획하여 실행한 후, 좀 더 긴 호흡으로 기독교 내의 모든 차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 해 4월 말, 차세기연은 여는 예배를 갖고 현재까지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his group consists of Christians who promote anti-discrimination with particular concern for the human rights of sexual minorities. It holds monthly meetings and participates in other joint activities like Korea Queer Culture Festival and the Solidarity for Enacting the Anti-Discrimination Act. The project team with KSCRC published a book, Homosexuality Meets God.

올해로 7년째 모임을 이어오고 있는 차세기연은 기독인 호모포비아 세력이 조직화 되는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무지개행동 단위체로의 연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주된 회원이지만(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등) 종교적으로 편협한 사고나 특정한 종교 교리에 대한 믿음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지양하고 있어 무교인 회원분도 있고, 타종교인 분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성향 또한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로 다양하고, 주로 20대 회원님들이 활발히 활동하지만 10대부터 40대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차세기연의 주요 활동과 모임

차세기연 외부 활동

- 무지개행동 단위체 소속
- 서울퀴어문화축제 참가, 대구퀴어문화축제 참가
- 욕우당 추모 기도회, LGBTI인권포럼, 교회의 날 외 성소수자와 기독교 관련 행사 참가

차세기연 내부 활동

- 정기모임(회의) : 매월 첫 번째 토요일 1시에 정기모임이 있으며, 같이 식사를 하며 일상을 나누고 정기회의를 통해 차세기연의 활동을 계획, 결정합니다.

- 소모임(영화소모임, 퀴어신학소모임) : 영화를 보고 감상을 얘기하는 것으로 친목을 다지면서도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영화소모임, 퀴어신학 책을 읽으며 보다 다양하고 열려있는 신학적 안목을 배울 수 있는 퀴어신학 소모임. 정기적으로 달마다 한 번 모임을 이어갑니다. 자세한 안내는 네이버 차세기연 카페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저도무지개축제 : 차세기연이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10월에 열리는 행사. 종교와 퀴어, 차세기연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축제입니다.

그 외 봄 가을 소풍, 여름 겨울 MT&총회, 송년회가 있습니다.

기독교 내 성소수자 이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차세기연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차세기연 후원 계좌

차세기연은 차세기연 회원님들과 지지자님들의 자유로운 후원과 회비로 활동을 합니다.
국민은행 031602-04-208079 유지혜(차세기연)

차세기연 공식 연락처, 페이지, 트위터

이메일: equalchrist.com@gmail.com
페이스북 페이지: <http://www.facebook.com/equalchrist>
트위터: <http://twitter.com/equalchrist>
웹진 물꼬기: <http://equalchrist.com/webzine>
공식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equalchrist>
또는 <http://equalchrist.com/cafe>

차세기연에 공식적인 요청, 제안, 문의, 기타 등은 모두 위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선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아멘.

하느님의 사랑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이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습니까?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느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신데 누가 감히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사람, 한사람을 손수 지으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참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를 일깨워주시고자 우리에게 무지개 빛을 선사하셨습니다.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이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가진 이들을 하느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소중한 당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를 향한 존경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폭력 쓰는 자를 몹시 미워하시는 하느님께서 이 땅은 물론이요,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퀴어를 향해 편견의 날을 세우고 혐오를 앞세워 폭력을 휘두르는 ‘악당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거만하여 업신여기며 무죄한 사람을 거슬러 함부로 말하는 저 거짓말쟁이들의 입을 틀어막으실’ 것입니다.

모진 억압과

비열한 방해공작에 굴하지 않고 제15회 퀴어문화축제에 모인 여러분!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우리들은 지극히 정상이야. 너희들과 약간 다를 뿐이지. 정 우리들이 역겹다면 제우스에게 따져. 오랜 세월 박해 받아 온 우리들. 이제는 희망을 찾아 무지개를 휘날리며 앞으로 나아간다.”(육우당)

금보다 귀하고, 보석보다 아름다우며

이 땅에 무지개 빛 환히 빛추고 계신 여러분!!

자 !이제 무지개 휘날리며 앞으로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느님께서 지금 나를 도우러 오시고 주께서 나를 돕는 이들과 함께 계십니다!

- 2014년 제15회 퀴어문화축제에 함께 하는 그리스도인 일동 -

〈 퀴어 퍼레이드 축복 기도문 〉

† 천지만물,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든 것들에 깃들어 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 이 좋은 날,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니 감사하나이다.

†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오니,

교회에서 상처받고 쫓겨난 모든 이들과 성소수자들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들의 새로운 식구가 되게 하시고,

⊙ 주님의 입맞춤이 주는 힘으로 사랑의 관계를 되찾게 하소서.

† 주님의 이름을 악용한

모든 차별과 배제 그리고 혐오를 거절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 차별에는 거룩하고 차가운 분노로,

† 배제에는 끈기 있는 연대로,

⊙ 혐오에는 힘 있는 축복으로 끝내 승리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성소수자,

⊙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과 춤추며 웃고 떠드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 우리가 모여 함께 울고 웃고

떠들썩하게 춤추며 즐거움을 나누는 이 자리를,

(여기서부터 한 구절씩 큰 소리로 외치며, 성수와 꽃잎을 뿌려 축복합니다.)

⊙ 연약함으로 강하게 하시는 성부와

참사랑이신 성자와

우리들의 호흡이신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 이 자리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삶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아멘

[이야기방]

그 페미니스트 참 귀어하다

언니네트워크

나기 (nagisa9@naver.com) | 언니네트워크

“언니네트워크는 여성단체가 아니다?”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한국여성단체연합(이후 여연)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인권헌장 폐기와 관련하여 시청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함께 모이고 목소리를 높였던 무지개 농성단에 <성평등 디딤돌 상>을 수여했습니다. 오래 전,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가 여연에 가입하려 했을 때 성소수자 모임이라는 이유로 반려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성소수자 이슈를 여성주의 이슈, 성평등의 문제의식으로 바라보려는 지금의 흐름들이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세월이 참 변했다는 생각과 함께 언니네트워크가 귀어 이슈를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질문들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2012년, 언니네트워크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징검다리 여성운동]의 첫 번째 제목은 “언니네트워크는 여성단체가 아니다?”였습니다. 그 제목의 구체적인 의미는 많은 현장에서 언니네트워크가 들어왔던 질문, “왜 여성단체가 이런 운동(성소수자 운동)을 해요?”라는 질문과 맞닿아있습니다. 그러게요. 왜 언니네트워크는 “이런 운동”, 성소수자 이슈를 이야기할까요? 언니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성소수자라서? (꼭 그런 것만도 아니고.) 언니네트워크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단체라서? (우리는 성소수자 운동을 ‘지지’하는 단체인가?)

당사자성이나 연대의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언니네트워크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언니네트워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페미니즘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나의페미니즘은귀어

언니네트워크는 단체의 설립취지에서 ‘차이로 구성되는 네트워크’를 지향하며 “성정체성, 피부색, 경제적 계급, 나이 등의 차이는 네트워크를 방해하는 조건이 아니라 더욱 풍부하게 하는 조건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성정체성의 문제를 여성주의의 문제로 인식하고 운동을 해왔습니다.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 무지개행동, 반차별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공동행동 등 성소수자/반차별 운동에 결합해왔을 뿐 아니라 (이성애)결혼과 출산을 통해서만 정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이성애중심주의와 정상가족이데올로기, 이를 통해 재생산되는 이분법적인 성별규범이 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을 강화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비혼운동을 열심히 해오기도 했지요.

‘여성가족부’가 되면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가족의 틀 안에서, 그 틀을 지키는 방향으로 흐르기 쉬우며, 이것은 분명한 퇴행입니다. 또한 ‘가족’을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한다는 건 결국 ‘정상가족’이거나 그와 비슷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가족’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한 결혼을 끝내고 행복해지기 위해 이혼을 선택했던 한부모 가족은 ‘위기 가족’으로 낙인찍힌 후에야 ‘복지와 상담’의 대상이 됩니다. 동성 가족은 ‘정상가족’과 얼마나 비슷한지 증명할 것을 요구받게 되며, 가족을 구성하지 않는 비혼 여성의 삶은 아예 존재할 공간조차 사라져 버립니다.

-2005년 언니네트워크 성명서 [여성가족부에 반대한다!]

〈Scene# L〉, 〈프로젝트부치웨이〉, 〈정상가족관람불가〉 전시, 퀴어트럭 등 레즈비언 섹슈얼리티 재현의 문제를 꾸준히 고민하고 액션을 만들어 왔고, 성적 지향, 퀴어 섹슈얼리티의 주제로 이야기되는 부치, 펍 정체성을 어떻게 페미니즘 주제로 읽을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언니네트워크는 레즈비언 단체?”

그런데... 언니네트워크가 이렇게 페미니즘으로 퀴어를 이야기 한다고 하는 와중에 “언니네트워크는 여성단체가 아닌가요?”라는 물음과는 비슷하지만 또 다른 결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언니네트워크는 레즈비언 단체인가요?” 여전히 퀴어 이슈가 여성주의 의제에서 비껴나가 있는 프레임 속에서 언니네트워크의 운동은 어떤 현장에서는 (페미니즘과는 상관없는) 성소수자 운동으로만 읽혀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 한 회원분이 언니네트워크는 여성단체를 표방하면서 레즈비언 운동을 위주로 하고 있으니 레즈비언 운동 위주의 여성단체라고 표기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성단체라면 여성운동을 ‘포괄’해야 하는데, 언니네트워크는 “레즈비언 운동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운동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서 레즈비언 운동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떤 여성운동도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 여성운동’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여성운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레즈비언 운동은 여성운동의 ‘일부’입니까? “레즈비언도 여성”이기 때문일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레즈비언은 여성일까요? 우리가 레즈비언의 경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 그것은 레즈비언이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개인의 정체성과 상관없이, 때로는 당연히 여성으로 또 때로는 여성이 아닌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략) 레즈비언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성주의 이슈가 됩니다.

- 2012년 언니네트워크 징검다리 여성운동 : 여성주의라이브러리에 접속하다.

[우리는 어떤 여성주의 운동을 하고 싶어서 여기에 모여 있을까요], 자루

언니네트워크의 운동은 아수라백작같이 반은 여성주의, 반은 성소수자운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성주의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 말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애와 비이성애를 가르는 경계, 이성애중심주의가 ‘여성’이라는 정의에 미치는 영향, 성소수자 혐오와 여성 혐오의 공통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곧 여성주의라고요.

‘며느리가 남자라니’로 시작되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사골멘트들에서 ‘남성’‘동성애자’에게 집중되는 성소수자혐오가 왜인지를 질문하는 것, 청소년들에게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성 정체성과 성역할에 대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유해’하다고 말하는 학부모 단체에게 우리가 어떻게 남성/여성으로 만들어지고 이성애중심주의로 인해 성역할이 어떻게 고착되는지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유해’하다고 말하는 것, 여전히 치마정장과 구두를 사규로 규정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 와중에 특정한 남성성/여성성을 수행할 때에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문제를 말하는 것, 이성애 남성 가장을 기준으로 짜여있는 노동시장이 여성 성소수자를 어떻게 빈곤하게 만드는지를 지적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페미니즘입니다.

Queering gender, Gendering queer!

젠더를 퀴어로, 퀴어를 젠더로 가로지르는 페미니즘,
언니네트워드를 돌아본다

더지(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언니네트워드 전 운영위원)

Queering gender

성·성별·성차를 의미하는 ‘젠더’는 사실상 국내외에서 sex와 다르지 않은 의미로서 남녀·양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법을 흔들고 있는 것은 오직 성소수자 존재와 페미니즘/퀴어담론이라 단언할 수 있다. 페미니즘과 퀴어담론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페미니스트 운동과 성소수자 운동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정치 작용에 주목하면서 언니네트워드의 운동과 기대되는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다. 한국에서는 언니네트워드, ‘끼리끼리’(현 한국레즈비언 상담소) 및 여성학(등) 연구집단이 그러한 작용을 촉발해왔다고 생각한다. 이는 1990년대부터 주로 여성운동계라는 영역 안과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레즈비언페미니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정치는, 현재 ‘죽어있다’고 표현하고 싶을 만큼 분란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 정치 작용이 다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흐름에서 언니네트워드 운동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다.

계층,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 여성 간의 ‘차이’에 주목하는 페미니즘의 등장과 발전 속에서, 언니네트워드는 ‘차이로 구성되는 네트워크’를 통한 ‘모든 종류의 성적 차별 및 억압이 종식된 새로운 사회구현’을 그 설립 목적에 명시하고 있다. 설립 이후 2005년부터 지금까지 발표한 언니네트워드 성명서를 살펴보면, 성폭력, 국제결혼, 동성애혐오, 호주제/정상가족, 임신 중절과 같은 다양한 사안에 대해 연대해왔음을 알 수 있다. 언니네트워드는 언제라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 (스스로 분개하여)목소리를 내거나 (더불어 분개하여)연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부적으로는(언니네, 언니네트워드 사업, 구성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성인 동시에 성소수자(정확하게는 레즈비언이나 바이섹슈얼)라는 점이 중추적인 에너지이자 기반이되어왔다. 당사자 운동과 정체성의 정치가 발휘하는 에너지는 성소수자인권운동의 성장과 더불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반차별공동행동(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족구성권연구모임>등 연대운동이 강화되면서 성소수자 이슈에 더 자주, 열렬히 분개하도록 만들었다. 이를 통해 언니네트워드는 무수한 여성 간의 차이 중에서도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이에 맞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날보다 퀴어문화축제를 기다리는 이 여성단체는 참으로 퀴어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페미니스트인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집단이 퀴어운동에 참여한다고 해서 Queering gender라는 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언니네트워드 페미니즘의 고유성과 독특성이 ‘퀴어한 여성운동’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퀴어운동에 참여한다’는 형식 이외에도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 목소리 낼 수 있어야 한다.

언니네트워드는 창립 이전부터 언니네(www.unninet.net) 채널[넷]을 통해 정상가족이데올로기 및 여성운동 및 여성·가족 관련 법정정책에 대한 비판을 수행해왔다. 2002년 4월 <나는 비혼여성입니다!>

를 시작으로, 〈정상가족, 명절 大비판〉(2005.2), 〈가족주의보〉(2006.11), 〈혼외 正事〉(2007.7)와 같은 특집을 게재했으며,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던 시기 여성정책과 성평등정책이 건강가족정책으로 틀 지워지면서 이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²¹⁾ 이는 이후 대안 가족 담론, 비혼여성운동은 문화기획을 통해 구체적인 모양새를 가지기 시작했고, 〈비혼여성축제〉(2007, 2008) 〈언니들, 집을 나가다〉(2007)발간, 〈비혼PT나이트〉 및 비혼 세대 연속 강좌(2011), 〈정상가족관람불가展〉 및 스토리북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2012)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부모나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삶과 여성들 간의 친밀성과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 대안적 삶의 형태를 상상하는 것이 비혼여성운동의 핵심메시지였는데, 실천적으로 비혼운동의 중심에는 여성 성소수자 활동가, 회원들이 있었다. 언니네트워크 비혼여성운동의 ‘당당함’은 결혼을 비판적으로 보는 페미니스트 관점과 이성애 결혼에 참여할 생각이 없는/그럴 가능성도 없는 포지션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더 선언적일 수 있었고 더 거침없을 수 있었다. 또, 언니네트워크가 이야기해왔던 비혼여성과 대안가족 속에는 항상 동성커플의 가족되기, 동성파트너십법 등을 다루고 있었다. ‘결혼과 가족’을 gendering하여 ‘비혼여성’을 드러내고, ‘비혼여성’을 다시 queering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점차 비혼 현상이 심화되고(수적으로 많아지고) ‘비혼’이 사회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집단이 되면서 비혼 현상에 대한 여론, 조사연구, 정책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여기서 비혼 여성의 모습은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또는 ‘눈높이에 맞는 남자가 없는’ 것으로 그려지면서 ‘결혼을 무덤과 같이’ 생각했던 언니네트워크의 어조는 ‘독립, 의지로서의 비혼’이라는 의미로 구별되면서 ‘상태로서의 비혼’과는 유리된 운동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이는 청년세대 남성의 ‘불혼’ 담론, 20-30 여성청년층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정책의 등장과 함께 비혼여성운동의 급진성과 의지주의가 희석되는 국면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성소수자 운동에서도 동성결합과 가족구성권에 대한 논의가 동성결혼으로 구체화되는 변화를 맞이했다. 따라서, 가족과 결혼을 둘러싼 언니네트워크의 gendering과 queering은 어떠한 위치에서 변화·발전할 것인지 재논의가 필요하다.

Gendering queer

여성 간의 차이를 강조하며 젠더를 쿼어로 가로지르는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예를 들어, 레즈비언은 여성이 아닌가!) 페미니스트들의 적성과 기질에 잘 맞는다. 그러나 쿼어를 젠더로 가로지르는 것은, 즉 쿼어 내부의 성차를 이야기하는 것은 (기질에 맞을지는 몰라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다. 성소수자 운동이 가시화되고, 외부의 적이 맹렬한 기운을 떨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단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차이에 대해 제기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끼리끼리’로 세력화된 레즈비언운동은 끊임없이 성소수자 운동 내에서 ‘여성으로서의 레즈비언’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이것이 그다지 성공적인 정치 작용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으며(게이운동이 가진 가부장성과 권력에 대한 문제제기, 커밍아웃-아웃팅 논쟁, 성폭력 사건화 등), ‘레즈비언 페미니즘’ 또는 ‘여성’을 기반으로 한 쿼어운동의 가치가 커뮤니티에서 자리잡지 못했다. 그래서 언니네트워크가 ‘성소수자운동에도 참여하는’ 여성운동이 아니라 페미니즘을 바탕으로 쿼어+여성운동에 풍부한 의미와 실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 언니네트워크는 여성의 날보다 쿼어문화축제를 손꼽아 기다리는 여성단체이다. 매년 부스, 쿼어트럭²²⁾에 참여하면서 부스 안에서 또는 트럭 위에서 무엇을 할지 연초부터 술렁이는 것이다. 여성주의사진 소모임 〈어떤사진관〉은 주로 gender bending(성역할, 고정관념을 바꾸거나 파괴하

21) 성명서 및 토론회 〈심란하다, “여성가족부”〉(2005.2)

22) 트럭 이름도 더럽다! 〈Bad Romance〉(2014), 〈Tell me three something〉(2013), 〈리얼 레즈비언 버라이어티, 언리미티드〉(2012).

는 것) 작업을 해왔는데, 전시 <경계 : 그녀들의 시선>(2008) <프로젝트 부치웨이>(2010) 등을 꼽을 수 있다. <고자극 신개념 레페(레즈비언페미니스트) 파티>(2008), <세상 모든 부치는 '트랜스젠더'23>(2008 LGBT 인권포럼 발표) 등 '다른 여성 되기'에 대한 관심은 여성을 queering하는 동시에 쿼어 내부에서 여성퀴어의 문화를 드러내고 의미화해왔다.

그러나 여성퀴어 당사자들이 이런 언니네트워크 문화기획을 맞보고 즐기고 가더라도,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또는 회원으로 남아 레즈비언운동의 대중 또는 커뮤니티로 자리잡지 못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성소수자라는 당사자성이 항상 페미니즘을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포지션도 아니며, 어느 정도 언니네트워크(‘비혼’이라는 우산 아래 숨어있다는 일각의 오해와 달리) 활동가들은 각자 개인을 페미니스트로든, 레즈비언으로든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페미니스트 비평과 자기 성찰이라는 것이 일정 정도의 학습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이 언니네트워크가 만든 운동장 위에 마냥 즐겁게 뛰어놀기에는 문턱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되돌아본다. 언니네트워크의 태동이 ‘영페미니스트’라는 일정 시대의 역사와 문화와 만나 발생한 절묘한 운동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 절묘함을 다른 절묘함으로 대체하거나, ‘경로’와 ‘과정’을 고려한 기획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무엇보다 레즈비언-페미니즘의 ‘이슈’가 없는 것은 아닐까.

사실 여성퀴어와 관련해서는 움직이는 그룹들이 다양하고 많다. 현재 여성퀴어운동 단체/모임은 이화여대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레즈비언 미디어 <레주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등을 꼽을 수 있겠다. <바이모임>, <트랜스젠더 조각보>,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등도 여성/남성/퀴어의 범주를 몸소 재정의하고, Queering gender, Gendering queer를 촉진하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슬럿워크로 시작된 <잡년행동> 역시 행동주의/급진적 여성운동과 성정치를 결합하는 움직임으로 포착할 수 있다. 각 대학의 퀴어모임에서도 여성 또는 페미니즘에 대해 고민하는 소그룹들이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무지개행동>에서 또는 각 활동가들이 서로 자주 만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이 각각의 고유한 입장을 바탕으로 만날 기회는 적었던 것 같다.

퀴어를 젠더로 가로지르는 것이 왜 중요한가? 남녀 간의 차이, 남성성/여성성이라는 경계를 빼놓고 성소수자의 삶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레즈비언페미니스트 운동 또는 여성퀴어운동의 정당성, 필요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여기서 ‘차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가부장적/남성중심적 권력에 주목하는 것(‘레즈비언 평균 소득이 게이보다 현저히 낮다’)과 비대칭적인 독특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권력의 차이에 주목하면서도 ‘레즈비언보다 게이 권력이 있다’는 단순한 결론에 빠지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관점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커밍아웃했을 때 그 관계가 악화되는 정도는 레즈비언보다 게이, 트랜스젠더남성(FTM)보다 트랜스젠더여성(MTF)에게서 높게 나타난다.²⁴⁾ ‘아들’로 인지된 자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것, 남성성과 권력의 상실의 더 비극적인 것으로 경험되기 때문이다. 즉, 가부장적 권력이 성소수자의 이야기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굴절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페미니스트 분석은 성소수자의 삶과 운동에도 도움이 되며 이를 매개로 성소수자가 연대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비대칭적 독특성’이란, 하나의 분석틀(예를 들어, 소득수준)을 가지고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마다 각각 다른 분석틀(차이화된 분석틀)을 통해 접근해야한다는 것이다.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를 살펴보면, 출생 시 성별이 여성인 응답자가 수적으로도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레즈비언·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젠더퀴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체화하고 있었다. ‘여성’ 또는 ‘젠더’를 키워드로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성소수자운동을 해나갈 때에는 다른 조건,

23) 현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난새님의 글로, 부치가 ‘남성의 모방’이 아니라 남녀의 경계를 넘는 trans한 존재임을 드러낸 글이다.

24)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2014),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최종보고서」 참조

다양성, 가능성과 위기를 짚어보면서 나아가야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여성퀴어/LBT 운동에 대해 생각해보기

앞서 다룬 두 가지 관점(또는 과제)을 바탕으로 언니네트워킹과 같은 단체가 다음과 같은 논의의 장을 열어젖혀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첫째, 운동의 현장으로서 당사자의 삶을 조직하기 위해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다르게 포착하는 것이다. 그 중 하나로 여성퀴어/LBT라는 프레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차이는 네트워크를 방해하는 조건이 아니라 더욱 풍부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설립 목적과 마찬가지로, ‘여성’을 고정핀으로 하되 여성성소수자 내부의 차이를 바탕으로 보다 역동적인 페미니스트 정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해외에서 ‘LBT운동’ 프레임은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 역사에 따라 그 맥락이 다르다) 게이운동과의 (이슈 또는 조직)분리, 여성운동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기반으로 등장하고 있다.

둘째, 성소수자를 인지하려는 ‘여성운동계’에 청자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관계맺는 것이다. 왜 굳이 여성운동계인가? 여성주의가 성소수자 이슈와 ‘당연하게’ 친연성을 가진다는 우리의 믿음과 동일한 이유에서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3.8 여성의 날에 무지개농성단에 ‘성평등디딤돌상’을 수여했다. 이는 여연이 성소수자 문제를 성평등의 문제로 보는 관점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여연에서의 적극적인 결정 이유를 발표하지 않은 것이 아쉽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우리 편에서 다시 해석해주는 것이 바로 언니네트워킹과 같은 곳에서 발휘될 수 있는 정치력이다. 한국여성재단에서 성소수자 펀딩과 관련하여 언니네트워킹 등과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 역시, 언니네트워킹가 ‘커밍아웃 전시회’와 같은 사업에 대한 공모 지원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여성운동과 인권운동은 다른데, 인권운동의 프레임에서 성소수자 운동은 ‘반차별’을 통해 나쁜 관습을 철폐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만, 여성운동은 시민권과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여성운동의 법적 성과 중에는 성소수자 권리 보장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체제를 구성하기도 한다는 점에서(혼인은 양성 평등을 기초로...) 내파가 필요하며,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지원법’으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수정하려는 여성운동의 움직임도 기회로 포착할 수 있어야한다.

셋째, 성소수자운동과 커뮤니티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페미니스트 지식을 만들고 확산하는 것이다. 현재 대학을 다니면서 인권운동에 관심을 가지는 성소수자들은 여성학 수업이나 페미니즘에 관심이 높다. 하지만 이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페미니즘은 성소수자의 삶을 해석하고, 차이를 이해하고 운동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식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 성소수자 운동 내에서 언니네트워킹 운동의 청자와 참여자를 불러모으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 아닌가 싶다.

[토론회]

성소수자 정당 정치의 과거, 현재, 미래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3당 공동 토론회

진보정당 흐름 속, 멈출 수 없는 성소수자 정치세력화

- 각 삼당 위원회의 시작과 현재

발제 : 정혜연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삼당위원회의 시작을 보면 진보정당의 흐름과 선거의 역사들을 볼 수가 있다. 민주노동당서부터 시작하여 진보신당 창당, 통합진보당의 창당과 분당, 녹색당의 창당 속에서 함께 해왔고 각 선거 때마다 참여해왔던 것이 각 삼당 위원회이다. 성소수자 정치의 문제의식은 진보정당의 흐름과 언제나 함께 해왔으며 선거를 통해서 드러나고 이슈화 되었다. 지난 그 흐름을 되짚어 보고 현재의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앞으로의 진보정당의 흐름과 선거에 있어 성소수자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망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 진보정당과 함께 시작한 위원회

노동당 성정치위원회는 2008년 총선, 종로구 최초의 레즈비언 국회의원 후보였던 최현숙 선거의 결과를 이어가는 진보신당 성정치기획단으로 시작하였다. 최현숙 선거를 통해 진보정치인과 성소수자 정치인 사이에서의 성소수자 정치세력화의 의미를 물었고, 이를 신호탄으로 진보신당 안에 성소수자 정치의 고민이 담긴 성정치기획단이 결성되었다. 이전 민주노동당에서 썼던 성소수자위원회라는 이름이 아닌 성정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설정한 이유는 결혼과 출산을 전제로 하는 소위 '4인 가구' 기준의 한국 행정체계 등에서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 다른 소수자들의 고통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진보적 성정치를 통한 사회 재구성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성정치위원회가 제기한 만 35세 미만 1인 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슈가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녹색당은 창당초기 성소수자 의제모임 준비 모임이 몇 차례 있었으나 아웃팅에 대한 우려 등으로 조직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지만 2014년 초, 주제별 대중강연을 하면서 당 내외에 성소수자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다시 확인 하게 되었고 당사자 운동의 확대, 이슈 대응을 폭 넓게 하기 위해 소수자 인권특별위원회 형태로 두기로 결정했다. 이슈, 캠페인을 포함한 정당의 정책 활동을 떠맡아서 소수자 인권활동을 고민했으며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성평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4개 분야 32개 세부정책을 발표 했으며 서울, 은평 등 지역에서 인권조례 관련 토론회를 개최 했었다.

성소수자 모임으로 시작된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진보정의당 창당 초기부터 함께 해왔다. 진보정당의 연속된 분열의 과정 속에서 주변화 된 진보정치는 이곳에 결합된 많은 운동들의 역량을 상실

했다. 활동가들이 부문위원회와 성소수자 정치에 희망을 가지고 진보정당에서 일귀낸 많은 결과물, 노력들이 이어지지 못하고 사그라져 가는 것이 2012년 진보정당의 현실이었다. 식어있는 ‘진보정치를 통한 열망’에 다시 불을 지필 필요가 있었다. 그런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새로운 주체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성소수자 가시화, 당원들에 대한 일상 교육 등 기본 밑바탕 일부터 시작했고 연대활동을 통해 위원회를 강화시켜 나갔다. 그럼과 동시에 끊임없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당의 목소리를 강화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렇게 진보정당의 통합과 분열, 그리고 새로운 창당과 활동 모색 속에서 각 삼당의 위원회는 끊임없이 정치를 향해 성소수자 이슈를 던지고자 했다.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부문위원회는 당의 지원과 당 외부와의 소통을 통해 부문위원회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당의 ‘부문위’의 역할에서는 성소수자의 삶의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한계점으로부터 시작하여 성소수자 정치가 한국의 현실 정치 위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현재의 위치와 역할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더 고민해보고자 한다.

- 당내에서 부문위원회의 위치와 역할

다른 보수정당들과 다르게 진보정당에는 성소수자의 인권 향상에 대한 부분이 강령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어, 부문위원회의 활동을 만들어가고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은 아니다. 약소정당이다 보니 재정적 지원이 크지 않아 활동하는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지만 당원들의 직접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당의 다양성과 인권분야 활동에 대한 열망을 끌어내는 역할을 해내고 있고 당원필수교육을 추진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성소수자 단체들과 진보정당의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고 성소수자들이 겪는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부문위원회’로서 역할도 해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실무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만 있을 뿐 당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의결기관’으로써의 힘은 크지 않은 부분도 있다. 대의원할당, 전국위원 등의 당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가 할당되었지만 여전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의회에서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힘은 크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진보정당의 분열 속에서 함께 약화된 진보정치 자체 내의 역량 한계, 당내 영향력 부족 등과도 관계 되어있다.

민주노동당 초기에 일부 정파의 성소수자 혐오발언에 대응하고 성소수자위원회를 건설하는 활동 이외에는 성소수자가 정당 내에서 당내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인 이력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성정치위원회의 주요 활동가들이 진보신당 시절 당직 선거에 부대표 후보로 최현숙을 지지하고 지원했던 일은 있다. 그러나 진행된 선거는 당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당내 정치력에 있어서는, 실무적 활동을 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다른 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부문위원회는 성소수자 이슈가 터질 때, 중앙당과 의원실을 통해 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제와 봤을 때 그 사안들이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크지 않았고 존재감도 크지 않았다. 그것은 여러 정치적 사안이 성소수자 운동과 진보정당 내부에서 시작된 사안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시작된 사안인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개인적인 성과를 위해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서울시의 시민인권헌장 등은 우리 내부와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외부에서 만들어진 의제가 아닌, 부문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성소수자 의제를 제안할 수 있는 내부역량의 한계는 명확히 존재했다. 그리고 진보정당과 시민단체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없었던 상황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당 내부 부문위원회 안에서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국 전체 정치 구도에서부터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 지점을 찾아가야 한다. 진보 전체의 역량 감소와 진보정치에 대한 낮아진 열망, 정파와 몇몇의 목소리들만이 과대대표 되고 있는 한국 정치 구도, 양당구조의 고

착화로 인한 성소수자 의제를 실현해낼 정치적 도구의 부족은 단지 부문위 안에서의 시각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이다.

- 한국 정치 구도 내에서의 한계, 그리고 그 변화 가능성

세 정당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전 민주노동당보다 낮은 지지를 받고 있는 진보 정당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과거 시민단체, 노동 쪽과 함께 진보정당을 통해 발의되었던 많은 의제들이 새민련의 일부 소수 의원들을 통해 발의되고 있다. 성소수자 영역 역시 비슷한 상황이 연출 되었다. 성소수자의제들이 새민련 의원을 통해서 발의되고 진보정당은 이전과 같은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근 3년간, 제 3 정당의 가능성이 계속 무너지고 양당구도가 점점 고착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정당이 목소리 내기란 더욱 더 어려워졌다. 한정된 정치적 도구와, 진보정당 안에서 낮은 영향력으로 부문위원회가 성소수자 의제를 실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런 한계 속에서 뚜렷한 제 역할을 못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소수자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더욱 더 어렵게 만들었다.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과정 속에서 서울시는 보수 기독교 세력의 혐오발언과 폭력을 방관하였고, 아주 기본적인 정교분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박원순 시장이 혐오에 가장 앞장서는 목사들 앞에 머리를 조아림으로써 동성애 혐오를 인정해버렸다. 이에 대해 세 진보정당이 강력한 비판을 던질 때, 새민련은 어떠한 발언도 꺼내지 않았다. 전시행정으로 인권도시 타이틀을 가져가고자 했던 박원순으로 인해, 공론의 장에서는 성소수자 인권 의제 대신 혐오가 등장해버렸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작년 2013년 차별금지법 제정 때도 일어났다. 차별금지법을 자신의 성과로써 가져가고자 했던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보수 기독교 세력 눈치만 보다가 자체 철회하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그 이후로 차별금지법은 꺼내기조차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진보정치가 약화되고 제 1야당이 동성애 혐오에 쉽게 무릎꿇어버리는, 이 정치판에서 어떤 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렇지만 변화의 가능성은 위기의 상황과 함께 감지되고 있다. 철웅성 같았던 호남-영남의 대결구도가 무너지고 호남에서의 새민련의 지지층이 무너지고 있다. 전남에서 첫 새누리당 의원의 당선과 정동영과 천정배의 탈당은 그것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새민련의 지지층이 이렇게 점차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성소수자 의제를 대하는 새민련의 자세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자신의 지지층과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잊고, 당면한 진보적 사안에 있어 어떠한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는 새민련은 결국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 1야당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변화의 가능성은 진보의 질적 전환을 통한 야당의 대안세력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질적 전환이라는 것이 단순히 진보의 세를 키운다는 의미를 넘어서 기존의 적대와 낡은 정파 틀을 극복하고, 한국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진보의 주체와 지지층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다. 몇몇의 목소리들만이 과대대표 되고 있는 한국 정치 구도에서 연대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실질적인 진보정치와 성소수자 정치의 역량을 강화하고 직면한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성소수자들이 정치판에 직접 뛰어들어 진보의 질적 전환을 이끌어내고 그 중심 속에서 소수자 억압, 혐오, 차별들의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를 세우자는 것이다.

우리 성소수자 세력은 정파로부터 자유롭다. 그와 동시에 성소수자 이슈는 새민련과 진보정당을 명확하게 분별해 줄 수 있는 사안이자 제 1야당이 교체되어야 하는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무지개 농성을 통해 인권의 가치에 동의하는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새민련에게 경고할 수 있는 세력으로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또한 단순히 성소수자의 인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이 사회의 배제 된 자들을 이야기 하고 함께 뛰어들어 변화를 만들어 냈다는 것은 더 큰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다시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가자면 성소수자에게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한국 사회의 모순이 단지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 다른 소수자들에게서 드러난다는 점에서, 더 넓은 시야 속에서 다양한 세력들과 함께 한국사회의 모순을 극복 하는 것이 진보의 질적 전환과 성소수자 정치세력화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 다각화된 성소수자 운동의 정치화

최근 몇 년간 성소수자 운동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성장해왔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활성화, 트랜스젠더 운동의 활성화, LGBTI 욕구조사 발표, 동성결혼 소송 등, 운동 또한 성소수자의 삶처럼 다각화되고 풍성해지고 있는데 반해 정치에서는 그런 다양한 논의들을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차별금지법, 시민인권헌장 등은 다양해진 성소수자 운동 담론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한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시민운동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논의들을 시민운동과 함께 현실에 반영시키고 성소수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떨어진 간극을 좁혀나가고 성소수자를 진보 정치의 주체로 세워 보수가 일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전면전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소수자에 대한 공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한국사회의 모순이 어디서 드러나고 있는지 명확히 인식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주도해야한다. 시민단체, 성소수자위원회, 진보정당이 주도하는 이슈를 바탕으로 성소수자가 진보 정치의 주체가 되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LGBTI 욕구 조사에서 드러난 우리의 욕망, 욕구들이 제대로 정치를 통해 재현되어야만 한다.

붉은 이반부터 18대 대선까지. 과거 선거와 정책을 통해 본 성소수자 정치.

김도화(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현실정치에서 성소수자의 가시적 행보는 2004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여야의 의원들이 발의하거나 2003년 청소년 보호법의 ‘동성애 차별조항 즉각삭제’ 운동 등에 동성애자인권연대를 비롯한 성소수자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진보 정당 혹은 진보 정당의 의원/활동가가 함께 참여한 경우는 있었다. 그러나 이를 현실정치 특히 정당 내에서 성소수자가 정치세력으로서 드러난 예로 보기에 어렵다. 90년대 시작된 성소수자 시민운동보다 약 10년이 늦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현실정치에서 성소수자가 적극적인 주체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붉은 이반과 붉은 일반

2004년, 민주노동당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정치를 정책 기본방향으로 설정’이라는 정책의 기본방향 아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동성애자 결혼권과 입양권을 포함한 동거제도 도입’ 그리고 ‘성소수자 차별금지 및 차별조항 마련’을 사법/윤리분야 정책 공약에서 제시했다. 당시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정당 중에서는 사회당만이 유일하게 ‘동성 배우자 간 결혼 인정’, ‘성전환자의 성별·호적·주민등록번호·이름 정정권 부여’, ‘성전환자의 노동권 보장’, ‘매체에서 동성애 관련 왜곡 표현 규제 및 처벌’, ‘성소수자 교류 억압 인터넷 내용등급제 완전 철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공약이 제시된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성소수자 정책을 총선 공약에 포함하고, 기존에 동성애 인권운동을 지지해온 동성애자 단체와 개인 약 76명의 지지 선언에 힘입어 13%의 정당투표 득표율로 8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해 원내 정당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 원내 정당 진입 이후 민주노동당 내부에 성소수자와 관련한 큰 사건이 생긴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에 입후보한 이용대 후보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네티즌 모임’인 민지네와의 인터뷰에서 “동성애라는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파행적인 현상으로 이해”한다는 발언을 하고 최고위원에 입후보한 김진선 후보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성소수자 모임 ‘붉은 이반’의 질의서에 “기독교인으로서 동성애는 언젠가 이성애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다”라고 답한 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던 많은 성소수자들이 우려를 표했고, 단체들이 반발했으며, 민주노동당 당내 모임인 ‘붉은 이반’은 강령에 성소수자에 인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근거로 후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진행하고 성공했다. 여기엔 ‘붉은 이반’을 지지하는 이성애자 모임인 ‘붉은 일반’도 구성되어 지지서명과 모금 운동을 통해 ‘붉은 이반’과 함께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붉은 이반’을 비롯한 성소수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당내 성소수자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소수자위원회를 구성했다. 한국 정당사 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민주노동당 성소수자 위원회는 당내 성소수자 인권교육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노동당의 성소수자위원회는 출범 이후 다양한 성소수자 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우선 2004년에는 헌혈 전 실시하는 문진(問診)에서 ‘동성(同性)과의 성 접촉 여부’를 묻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고, 2006년 말부터 성전환자 인권실태 조사를 하며 ‘성전환자 성별정정 특별법안’ 발의를 위한 논의하기 시작했다. 2002년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대표발의 했지만 무산된 법안을, 성기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요건을 제시하며 2007년 노회찬 의원을 통해 발의했다. 또, 2006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과 당원, 당 외 활동가가 함께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의 ‘생활동반자법’의 모태가 되는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을 만들었다. 2006년에는 성소수자 정치캠프를 열고,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상황에도 사례별로 대응했다. 그리고 2007년에는 법무부가 마련한 차별금지법이 ‘동성에 확산 조장’을 이유로 7개 차별금지 사유가 삭제되자 이에 민주노동당이 주도적으로 수정법안을 마련하였고,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동성 커플의 사실혼 법적 인정’과 ‘성소수자의 실질적 입양권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성소수자 운동에서 ‘정당’은 익숙지 않은 존재였지만 성소수자위원회의 이러한 다양한 활동과 정책·공약 제시 이후 ‘진보정당’에서 성소수자 이슈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레즈비언 정치도전기

2008년은 성소수자의 현실정치 참여에서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가 출범한 2004년 만큼이나 중요한 해로 기억된다. 진보신당의 최현숙 후보가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으로서 대한민국 최초로 총선에 출마한 해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큐멘터리 영화 <레즈비언 정치도전기> (2009)로도 만들어져 개봉되었다. “대한민국이여 커밍아웃하라”는 선거운동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전면으로 드러낸 최현숙 후보는 출마를 통해 정치권 그리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성소수자’를 가시화했다. ‘소수자를 위한 정치’를 걸고 출마한 만큼 최 후보는 ‘차별금지법’과 ‘동반자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정책콜로키움에서 ‘성정치와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성소수자 인권 현실과 제도 개선을 발제하기도 하였다. 최 후보는 결국 총선에서 1.61%의 득표율을 받고 낙선하였지만, 성소수자가 현실 정치에서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음을 보여줬다.

최현숙 후보의 총선 출마와 함께 진보신당은 성정치위원회를 만들었고, 성정치 위원회는 기존의 성소수자위원회와 달리 35세 미만 전세금 대출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청년운동과 연대하여 정책에 내놓는 등 성소수자 의제 외에도 다양한 의제에 정책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18대 총선에서 ‘군대에서의 성소수자 인권 보장’, ‘생활동반자 관계 공동체의 법적 지위 보장’, ‘성소수자 인권실태 조사’, ‘언론 및 방송에서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 ‘성전환자의 성별변경권리 보장과 성전환 수술 건강보험 적용’, ‘HIV 감염임 인권 보장’, ‘학생 성소수자 인권 보장’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총선 후보들이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주최의 ‘18대 총선, 무지개 정치를 말하다’에서 ‘성소수자 반차별 선언’을 했다.

2010년 이후의 정치세력화

2010년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두 번째로 시도된 해였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무지개행동, 반차별공동행동과 공동 주체로 기자회견을 열어 많은 성소수자 단체와 함께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을 비롯한 단체의 동성애혐오조장 중단을 촉구하고, 조속히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를 계기로 각 성소수자 단체가 정치와 정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은 각 후보자에게 성소수자 요구안을 마련했고, 무지개 행동은 ‘우리 동네 무지개가 떴어요’ 캠페인을 진행하여 각 지역의 성소수자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다. 또 ‘마포레인보우유권자연대(마레연)’가 만들어져 마포지역 후보자들을 초청하고, 질의서를 보냈고,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서울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친구사이는 친구의 교육감 후보들에게 질의를 보내고 답변을 준 후보를 공개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이 다양하게 펼쳐진 2010년은 성소수자들의 적극적 정치 의견 표명이 더욱 활발해짐과 동시에 성소수자가 정치세력화를 통해 현실정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해였다. 덧붙여 각 정당의 성소수자 관련 공약들도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2012년은 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선이 함께 있는 해였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각 정당과 후보자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의견 검증이 치열했고 또 성소수자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등장한 해였다. 제19대 총선에서는 기존의 민주노동당이 통합진보당으로 합당되면서 통합진보당 성소수자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새롭게 합당된 통합진보당이 2012년 창당된 녹색당과 진보신당이 성소수자 인권운동 및 지지단체와 정책연대를 맺어 성소수자 인권 5대 영역, 20개 과제 실현을 위해 논의한 정책을 총선 공약과 당의 중요 정책 과제로 채택했다. 당시 <4.11 총선 그리고 동성애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게이유권자파티 준비위원회가 성소수자 인권정책 질의를 하고 결과분석 후 공유하기도 하였다. 반면 민주통합당에서도 내부 경선에서 성소수자로 커밍아웃을 한 후보가 두 명이 출마하였고, 당내 성소수자 인권모임 ‘노란무지개’가 제안되었으며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성소수자 차별 철폐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차별금지법’ 등을 우선순위로 해결할 것을 밝혔다.

제18대 대선에서도 성소수자 정책에 대한 검증에 대한 열기가 지속되어 무지개행동이 각 대선 후보캠프에 성소수자 정책 질의서를 보내 종합하여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92조 5항 폐지’, ‘동성결혼/파트너십’, ‘트랜스젠더 성별변경’,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성소수자’, ‘방송 미디어 등에 나타나는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입장과 ‘주거, 의료, 교육, 노동 등 사회정책에 있어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는 계획’ 등을 질의한 결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전반적으로 구체적이지 못하고 미흡한 답변을 하였고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무소속 김소연, 김순자 후보의 경우 높은 이해수준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검증이 있는 와중에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경우 “앞으로도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는 발언을 하여 무지개 행동이 민주당과 문재인 캠프에 항의 성명과 질의서를 보냈다.

나가며

이처럼 1990년대 사회운동으로 시작된 성소수자 운동이, 2004년을 기점으로 정치적 주체로 나서고 있고, 성소수자들은 이제 현실정치에서 꾸준히 정치세력화하여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진보정당에서는 성소수자 이슈는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정당의 중요한 정책이 되었고 현재 진보 정당들에는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와 같이 성소수자의 권리를 논의하는 위원회들이 존재한다. 이는 오랜 시간 한국사회 내에서 ‘비시민’으로서 존재해온 성소수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직접 현실정치의 장으로 발을 내디디고, 시민이라는 정치적 주체로 나선 유의미한 발자취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들은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이름을 바꾸거나 혹은 합당이나 분당과 같이 정당 구성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의 성소수자와 관련된 위원회들의 지속성이 떨어졌고 뚜렷한 정치적 성과 또한 얻어낸 것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정당의 조직으로서 꾸준히 성소수자와 관련된 정책을 연구, 발표하고 성소수자들의 정책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할 진보정당과 각 정당의 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성소수자 시민단체에 비해 잘 해오지 못한 것이다. 정당이란 이익집단과 달리 선거에서 공식적 브랜드를 만들어 공직을 목표로 한다.(Sartori 1976) 각 정당에서 성소수자/성정치 위원회가 꾸준히 성소수자 이슈를 다루고 성소수자의 삶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정책을 이끌어 나간다면, 성소수자의 사회적 가시화는 물론이고 성소수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적 욕구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은 정치 안에서 이루어진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의 더 나은 삶은 이를 고민하는 정당들에 달려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에 각 정당은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성소수자 정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2016년 총선, 대한민국이여 (다시 한번) 커밍아웃하라!

박자민(노동당 성정치위원회 위원장)

성소수자 인권운동 20년, 성소수자 정당운동 10년을 지나오며 한국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빠르게 개선되어왔다. 퓨리서치센터가 2007년과 2013년 실시한 조사²⁵⁾에 의하면 한국은 동성애에 대한 포용의견이 18%에서 39%로 조사대상 국가 57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로 포용의견이 증가한 국가이다. 보다 오랜 기간차이를 두고 2001년과 2014년 실시된 한국갤럽의 동성애 관련 인식조사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호의적인 응답이 2001년에 비해 2014년에 평균 17% 증가했다.²⁶⁾

그러나 성소수자가 인식하는 한국사회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²⁷⁾에 따르면 성소수자가 인식하는 한국사회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93%가 한국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는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지난 20년간 해온 노력에 비해 한국사회가 제도적 변화를 이루지 못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같은 조사에서 성소수자가 선택한 중요한 정책 이슈 가운데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차별금지법제정과 동성결혼은 물론이고 조사대상 항목 가운데 어느 것도 의회에서 논의조차 없는 상태이다.

성소수자가 선택한 중요한 정책적 이슈에서 응답자수 상위권의 문항들은 대부분 행정부의 역할보다 입법부가 담당하는 영역의 항목들이다. 그러나 성소수자가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을 고르라는 질문에서 ‘선거와 정당참여’는 최하위 응답(8%)을 기록했다. 성소수자 관련 주요 정책이 논의되고 이것이 성소수자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생략된 한국정치를 성소수자가 외면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2004년부터 성소수자 위원회를 세우고 정책을 마련해온 진보정당이 새누리당(75%)과 민주당(51%)에는 못 미치지만 29%의 부정 평가를 받은 것은 진보정당내 성소수자 운동의 10년이 부정되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정치 불신의 불뚝이 된 것일 수도, 진보정당이 주도적으로 성소수자 문제 해결에 나서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10년간 해온 성소수자 정당운동에 전환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다니엘 튜더의 칼럼에 주목해야한다

성소수자 국회의원이 탄생한다면 그의 소속 정당은 새누리당일 것이라는 외신기자출신 칼럼니스트의 기고문²⁸⁾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박원순의 인권헌장 폐기 사태와 무지개농성단의 서울시청 점거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시점에 보수 일간지에 실린 칼럼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과 박원순에 대한 실망감으로 동조하는 의견과 ‘새누리당과 한국정치를 너무 모른다’는 회의론이 맞섰다. 가능성은 둘째 치더라도,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성소수자 개인의 보수화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며, 성소수자 운동과 연대해온 진보정치는 다시 한번 무능함을 시인하게 될 것이다. 또한 보수 정

25) 'The Global Divide on Homosexuality', Pew Research Center, 2013

26) '데일리오피니언 제143호', 한국갤럽, 2014

27)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4

28) [삶의 향기] 동성애 어젠다와 대한민국 진보주의, 중앙일보, 2015. 1. 3.

당이 명망 있는 성소수자를 영입하려 한다는 소문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도 영원히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미국에서는 커밍아웃한 성소수자가 처음으로 하원선거에 당선된 80년대부터 현재까지 9명의 성소수자 하원의원(하원 정원 435명)이 당선됐고, 2012년에는 처음으로 성소수자 상원의원(상원 정원 100명)이 탄생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성소수자 문제에 적극적인 민주당 출신은 아니다. 1994년 임기 중에 성정체성이 폭로된 스티브 건더슨과 임기 중에 커밍아웃하고도 재선에 성공한 짐 콜브는 공화당 소속의 의원이었다. 비록 연방의회에서 더 이상의 공화당 소속 성소수자 의원이 탄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커밍아웃한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이 지역의회에서는 공천을 받고 당선되는 등 성소수자 정치가 온전히 미국 민주당의 역할은 아닌 상황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2007년 민주당이 처음으로 커밍아웃한 성소수자인 오쓰지카나코를 참의원(상원, 정원 242명)선거에 공천한 이래 2011년 사민당 소속 이시가와 타이가가 최초의 성소수자 공직선거 당선자가 되었고, 2013년에는 민주당 비례대표로 다시 한번 출마한 오쓰지카나코가 비례 선 순위 당선자의 사퇴로 의원직을 승계하며 일본 최초이자 동북아시아 최초 전국단위 선거에서 당선된 성소수자 정치인이 되었다.

양대 정당가운데 상대적으로 중도에 가까운 정당이 최초의 성소수자 의원을 배출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새누리당에서 최초의 성소수자 국회의원이 탄생할 것이라는 다니엘 튜더의 주장은 참고할만한 사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의 DADT 정책 시행과, 미국의 대표적인 성소수자 차별 법률이었던 DOMA의 통과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 그리고 일본 우익정당인 자민당과 정책보다는 계파적 차이가 더 큰 일본민주당의 배경은 상대적 진보성향이 성소수자 공직자 배출의 조건은 아닐 수 있으며, 결단과 전략의 문제라는 다니엘 튜더의 주장을 강화한다.

보다 정확해진 성소수자 인구 추정

한편, 취임 첫해 연두교서에서 DADT 폐지선언을 시작으로 올해 연두교서 최초로 LGBT를 호명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도 주목해야 한다. DADT를 시행한 민주당 대통령 클린턴과 DADT를 폐지한 민주당 대통령 오바마 사이의 10여 년 동안 네오콘과 이라크전쟁의 부시가 있었고, 오바마 정부의 적극적인 성소수자 친화 정책은 부시 정부의 신보수주의 정책의 반작용으로 볼 수도 있다.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은 90년대까지의 연구결과에선 2%부터 10%까지 천차만별로 추정되었던 전체 인구대비 성소수자 비율이, 2000년대에 들어 보다 신뢰성 높게 집계되기 시작한 점이다. 에디슨 미디어리서치와 미토프스키 인터내셔널이 실시한 2004년과 2008년 미국 대선 출구조사²⁹⁾에서 성정체성을 LGB로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4%로 나타났다. 비슷한 결과는 2011년 UCLA 법대의 연구³⁰⁾(LGBT, 3.8%)와 2012년 갤럽의 조사³¹⁾(LGBT, 3.4%)에서도 나타난다.

한편, LGB 그룹의 투표 성향은 2004년과 2008년 모두 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는데, 이는 각각 77%와 70%가 존 케리와 버락 오바마에게 투표한 것으로, 이성애자 그룹보다 월등히 높은 민주당 지지를 보였다. 이는 2008년 기준 등록 유권자 1억 2900만 명 가운데 LGB 그룹은 517만 명으로 오바마와 매케인의 표차인 952만 표의 54%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에디슨 미디어리서치와 미토프스키 인터내셔널의 출구조사 결과중 성소수자 비율을 한국 대선에 대입시킨다면 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과반득표 당선이 이뤄진 18대 대선에서 1,

29) 'Evaluation of Edison/Mitofsky Election System', Edison Media Research and Mitofsky International, 2004-2008

30) 'How many people are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Gary J. Gates, 2011

31) 'Special Report: 3.4% of U.S. Adults Identify as LGBT', Gary J. Gates and Frank Newport, 2012

2위 표자인 3.6%보다 많은 LGB 유권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접전으로 치러진 15대, 16대 대선의 표차도 각 1.6%와 2.3%로 LGB 유권자보다 적다고 볼 수 있다. 직선제 개헌 이후 접전으로 치러진 세 번의 대선에서 두 번 패배하고 한번 승리한 새누리당에게 성소수자 유권자는 재집권을 위한 현실적인 숫자일 수 있다. 더군다나 18대 대선에서 LGBTI 그룹은 미국 LGB 유권자의 투표성향과 유사하게 76%가 민주당에게 투표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³²⁾

앞서 언급한 미국 갤럽의 성소수자 인구 비율 조사결과(3.4%)를 한국인구 5134만 명에 대입하면 국내에는 약 174만 명의 LGBT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새누리당이 이자스민 의원을 비례대표로 공천하며 지지를 흡수하려 했던 14만 명의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가족 보다 많은 숫자이다. 조금 무리한 가정법을 쓰자면 174만 명의 성소수자가 특정한 지역에 모두 모여 살 경우,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평균 인구인 21만 명을 기준으로 8명의 국회의원이 배당될 수 있다. 현재 원내 제 3당의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규모이지만 성소수자의 이름으로 성취한 공직선거 당선증은 아직 없다.

2008년 총로 선거를 돌아보며

최현숙 선거는 과소대표 되고 있는 성소수자의 정치를 해결하는 시도였고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 사회에 충격을 던졌고 지역구의 상징성도 온전히 흡수했다. 정치, 행정, 외교, 경제의 중심인 서울 종로구에서 트랙퀀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일은 앞으로도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당선되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정치신인, 그것도 성소수자의 당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국회로 가는 문은 비례대표 정원이 54석, 지역구 정원이 246석으로 산술적으로는 지역구의 문이 더 넓다.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위한 조건은 보통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며 터전을 닦거나, 출마자 본인이 명망가이거나, 또는 소속 정당의 실세에 기대어 텃밭지역에 공천을 받는 방법이 있다. 2008년의 최현숙은 어느 조건도 해당되지 않았다. 물론 현재 정치활동을 하는 성소수자 가운데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도 없으며, 조건을 충족했지만 정치에 뜻을 가진 성소수자도 알려진바 없다. 설령 조건을 충족하며 정치에 뜻을 가졌다 하더라도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될 것을 쉽게 바라보기는 어렵다.

결국 더 이상 지역구 선거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출마하는, 또는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커밍아웃을 하고 지역 터전을 닦을 성소수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소수자 정치를 위한 목표를 갖고 선거를 준비한다면 반드시 당선권에 오를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 성소수자의 비례대표 출마는 미약하나마 가장 현실적인 설계가 될 수 있다.

비례대표 출마는, 출마자 개인과 조직이 소모될 가능성을 줄이며, 더 많은 성소수자 정치인을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또한 전국구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살고 있을 174만 성소수자가 자신과 같은 이유로 차별 받고 있는 공직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

성소수자의 공직 진출 꼭 필요한가?

당장 2016년 총선에서 진보적 정치성향의 성소수자 국회의원이 탄생한다 하더라도 역할과 성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회의론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성소수자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 성소수자 운동 전체가 전력을 쏟는 것 보다, 19대 국회에서처럼 성소수자 문제에 적극적인 의원들을 지원하면서 차별금지법 등의 주요 입법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의회정치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며 성소수자 운동진영이 절약할 수 있는 노력보다, 성소수자

32)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4

당사자 의원이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는 의회정치는 더 많은 성과를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의원발의로 호주제 폐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1986년, 1988년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기 직전인 2004년까지의 민법개정안 4건 가운데 3건(나머지 한 건은 당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은 여성이원이 대표 발의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정당법에 의해 국회의원 비례대표후보 여성 50% 의무 공천이 처음으로 적용된 17대 국회에서 16대 국회보다 2배 많은 여성이원이 당선(16대: 15명, 17대: 39명)되며 여성관련 법안의 여성의원 대표발의가 6배 이상 급증(16대: 24건, 17대: 149건)한 사례도 당사자 정치의 중요성을 증명한 다.³³⁾

대한민국이여 커밍아웃하라!

2016년 총선에 성소수자가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는 이 글의 고민은, 사실 2008년 총로선거의 시작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정치의 잔잔한 물결에 ‘레즈비언 국회의원 후보’라는 파문을 일으킨 성과보다 조금 더 전진하자는 것이다. 더 이상 언론³⁴⁾이나 혐오세력이³⁵⁾ ‘불심으로 대동단결’ 또는 ‘판문점에 UN 본부 유치’를 외치는 후보들에게나 붙던 ‘이색후보’라는 평가절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당선되는 것이다. 성소수자 공직자의 당선을 위해 성소수자 운동 전체가 다시 한번 나서야 한다.

진보정당 또한 2008년과 같이 결단해야 한다. 정치 1번지의 지역구를 성소수자 후보에게 공천한 정신을 되살려 성소수자 후보가 당선되어 돌아올 수 있는 비례대표 순번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당 강령 정신의 실천임은 물론이고, 보다 구체적인 인구통계로 확인되고 있는 막대한 숫자의 성소수자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한국정치 삼분지계의 시작점이다.

2008년보다 나아지지 않은 성소수자 인권 현실 앞에, 진보정치가 위기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금, 성소수자 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이 함께 찾을 해법은 ‘대한민국이여 커밍아웃하라!’로 시작되는 2008년 최현숙 후보의 출마선언문 속에 있다.

33) '여성대표성 확보의 기제로서 할당제 효과', 김은경, 2010

34) "총선 앞으로"...스포츠맨·방송인 등 이색 후보들', <뉴시스>, 2008. 3. 7.

35) '[간급]MBC 항의전화-동성애자후보 방영', 에스더기도운동 공지사항, 2008. 4. 11.

〈토론문 메모〉
시민/유권자로 성소수자에게 다가가는 진보정치

토론 : 조승수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진보정당의 역사와 함께 사회적 소수자들의 정치세력화, 각 부문의 핵심 이슈들을 의제화 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과임.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진보정당의 역사에 따른 성소수자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한 각 당의 발표문은 그런 의미에서 연도별, 의제별로 자세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봄. 사회운동 특히 여성, 장애, 성소수자의 경우 조직의 존속 여부에 따라 자료가 유실되는 경우가 많으며, 진보정당의 분열과 창당의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기 역사의 발자취를 구축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곤 함. 기록된 역사는 이후 사회운동과 정당 정치 발전에 중요한 자료로서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그 흔적을 남기고, 보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함.

[시민/유권자로 성소수자에게 다가가는 진보정치]라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는 제목임. 성소수자가 특정한 정치적 이해를 가진 시민/유권자로서 ‘민원인’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님에도, 진보정치의 성과를 바라고 있는 객체로 보고 있기 때문.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통해 현 이성에 중심 사회, 정치체제에 다양한 요구와 압력을 전달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참석자 모두가 공감하는 바일 것. 박상훈 교수의 「정당의 발전」에서 일부 인용하자면

운동으로 정부를 이끌어 갈 수 없다. 운동으로 시장경제체제와 사법질서를 운용할 수 없다. 운동으로 정치 과정 밖에서 불만과 항의를 조직할 수 있지만, 공공 정책의 내용을 형성하고 이를 정책 수용자 집단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만들 수 없다. (중략) 정부 영역에 “독립적인 대안 세력”으로 참여할 것이냐의 차이는 크다.

때문에 성소수자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성소수자 관련 주요 정책을 진보정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도화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가 정당에서 일정한 지위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임. 또한 성소수자 관련 의제들이 현실화되기 위한 로드맵과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후보자의 선거 승리 비전을 보이는 것으로 정당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야 할 것.

그러나 현 진보 정당은 당위로서 ‘성소수자 인권’을 ‘부분적 과제’로서 다루는 것에 그치고 있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것.

우선 정의당 정혜연 위원장이 지적했던 것처럼, 더욱 강화되고 있는 양당체제에서 원내 비교섭 단체로서 또는 원내로 진출하지 못한 정당으로서 갖는 물질적 토대의 어려움이 정치 활동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일 것임. 예산은 곧 그 사업의 중요도를 말하는 것인데, 성소수자위원회만의 독자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당의 재정 상황 속에서 정책개발은 차치하고, 부문위원회 사업

비 지원조차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향후 부문위원회의 발전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봄. 어떤 경로와 기준으로 사업비를 확보, 책정할 것인가를 중앙당에서 정리가 되어야 함.

둘째,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이 성소수자의 인권 감수성을 자신할 수 있느냐의 문제. 진보정당이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좀 더 민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당원 개개인의 의식 수준까지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예를 들어 과거 진보신당 최현숙 후보가 출마하였을 때 당내 동상이몽이 지금이라고 더 나아진 것은 아님. 레즈비언이 커밍아웃을 하고, 그것도 지역구 후보로서 출마했다는 것은 어떠한 정당도 시도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것이었지만, 한편에서는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을 염려하는 시선들이 혼재해 있었던 것이 사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로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당의 강력한 의지, 이를 신념으로 한 후보는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정당은 유사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시민들의 집합체이지만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유독 인식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와 관련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당론과 인권 의식 개선 교육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셋째, 성소수자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다는 점. 혹은 논의가 있으나 당원들 사이에서 이것이 의제화 된 적이 없다는 점일 것임.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기존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남성중심, 이성애중심주의 정치에서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드러내고 정당 정치를 통해 직접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수임.

그런데 그 전에 ‘성소수자의 정치세력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정돈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 ‘정치세력화’는 종종 특정 이해를 가진 세력이 정치영역으로의 진출을 늘리는 것으로 이해되곤 함. 그러나 여성 할당제를 통한 ‘여성정치세력화’의 딜레마에서 볼 수 있듯이 소수자에 대한 토크니즘 정도로 활용되거나 정치영역 내에서의 성소수자를 대변하는 것으로만 그 역할을 한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모든 성소수자는 자신의 처지와 조건 때문에 대다수 진보적일 것’이라는 생각임. 이와 관련하여 노동당 박자민씨의 발표문 중 ‘보다 정확해진 성소수자 인구 추정’ 부분에 대한 약간의 문제의식이 있음. 자신의 존재 기반이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을 규정짓는 요소이기는 하나, 성소수자라고 해서 진보정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 진보정치가 유권자인 성소수자들의 이해를 대변해야 하고 관철시켜 진보정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유권자로서 성소수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뒷받침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정당 내에서의 발언력을 높이기 위해 결정권을 가진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업 지원을 넘어 정치인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함. 이것은 여성이나 장애인도 마찬가지.

퀴어 정치학은 정치 영역으로 성소수자가 ‘끼어들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새판짜기’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함. 기존 이성애 중심의 질서 틀을 바꾸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여기서 정당의 역할은 진보 정치의 한 축을 성소수자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의제를 다룰 수 있는 정치인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 또한 당원들의 성소수자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마련하여 당 외적인 행보뿐만 아니라 내적인 문화를 만들 때 성소수자 시민/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임.

성소수자 운동과 진보정치의 관계 모색에 관한 토론문

한가람(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1.

2004년 여름 무렵으로 기억한다. 한 선배가 무슨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자고 했었다. 어디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곳, 강의실만한 크기에 낯선 사람들 수십 명이 모여서 담배를 피워대며 열린 회의와 토론을 늦게까지 이어가고 있었다.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를 건설하기 위해 모여 회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중에는 나중에 친숙해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회원들(당시 나는 친구사이 신입회원이었다)도 있었고, 지금은 다른 곳에서 쟁쟁하게 활약하는 분들도 있었다. 당비만 내던, 그리고 성소수자 단체에 첫 발을 담근 나에게는 낯설고 불가해한 모습이었다. 그렇지만 그 열기, 자욱한 담배연기, 그 얼굴들. 성소수자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 그분들을 위원회 이름으로 별로 만나지 못했던 것은 같지만, 그 열정 있던 공간의 모습은 진보정당과 성소수자를 함께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다.

성소수자위원회가 건설된 직후 몇몇 단체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공동성명이나 연대단위에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가 함께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었다. 2004년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학교를 준비할 때에는 실제로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과 단체는 위치나 성격이 서로 다른 데, 연대단체 차원으로 함께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오랜 회원이 있는 친구사이에서도 나온 이야기였다. 나로서도 좀 어색한 점이 있었고, 당에는 당의 역할이 있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원내정당으로서 의회 안에서, 또 정부를 상대로 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준국가기구가 단체들과 섞이는 것은 이상하다고 했던 기억이 있다. 결국은 같이 준비하기로 했고,³⁶⁾ 이후에는 점차 별다른 논란 없이, 지금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같은 연대체에도, 함께해 오게 됐다. 그렇지만 당시 단체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는 거 말고 딴 거’ 하기를 바랐던 흐름, ‘우리랑 다른 데’라는 인식도 있었던 것이다.

2006-7년 무렵에는 당사를 자주 오갈 일이 생겼다. 성소수자위원회 중심으로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꾸려졌고,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이 만들어졌다. 나는 공동연대 운영위원으로, 연구모임에는 친구사이 담당자로 참여했었다. 이때를 계기로 트랜스젠더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만나게 되어 지금도 이러저러한 일을 하게 되었고, 연구모임에서 역시 1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³⁷⁾ 나로서는 당이 내 활동의 영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셈이다.

36) 2004년 제7회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학교는 청소년 이반모임 Any79, 고려대학교 동성애자모임 사람과사람, 동성애자인권연대, 연세대학교 이반공동체 컴투게더,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서울대학교 이반모임 QIS,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등 7개 단체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주최했다.

37) 연구모임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가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단체들에게 참여를 요청하여 2006년에 만들어졌다. 초기에는 당사에서 회의를 했고, 당 기금으로 간담회를 하고 여성발전기금을 따내서 책을 내기도 했었지만, 간사 역할을 하던 정책연구원이 그만두고 성소수자위원회 담당자도 없어지면서 회의 장소도 친구사이 사무실로 옮겨 가고 자연스럽게 단체나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네트워크를 이어오고 있다. 연구모임을 조직하는 실무를 하고 간사 역할을 하던 정책연구원은 지금도 개인연구자 자격으로 연구모임에 함께하고 있다. 진보정당의 이름으로 결합했다가, 이제는 다른 적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가 더 있기도 하다.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역시도 함께했었는데, 이때에는 진보신당 상산연구소와 함께 연중기획으로 “가족정책포럼”을 매월 공동으로 당사에서 열기도 했었다.

이때는 사실 당이 먼저 일을 벌였고, 당직자와 전문가를 투입하고 단체들을 조직해서 참여를 요청하고, 당은 법안을 만들고 국회대응을 고민하고 단체들은 단체대로 국회대응에 참여하면서도 대중적 활동, 연구, 홍보 등의 역할들을 했었다. 당이 이슈를 잡고, 조직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당기관과 상근자, 당 안팎의 전문가들이 움직였다. 성소수자들을 모았고, 단체 결성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직접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2005년 “성소수자가 함께 하는 진보국감” 역시 기억에 남는 장면이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방송과 언론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개선, 학교 안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개선, 형사절차과정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개선 등의 의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내고,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는 보고대회도 열었다. 생판 ‘국감대응’이라는 것을 모르던 단체 활동가 입장에서는 보고대회에서의 논의가 새로운, 제도정치 안에서의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대응방식으로 신기하기도 했다.

2006년 군대 내 동성애자 병사 인권침해 사건이 불거졌을 때에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힘을 보태줬고 국회에서 토론회도 함께 주최했다. 2007년 차별금지법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부안에 맞서는 안을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나중에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마련한 초안을 가지고 또 18대 국회에서 권영길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성소수자 위원회가 자리잡으면서 상근자를 배정받기도 했고, 성소수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에 관심 있는 활동가들의 활동공간을 만들어줬고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성소수자 운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과 제도를 고민하게 했고, 여의도에 다니는 법을 익히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진보정치가 성소수자 의제에 관해 제기하고 논의할 공간을 열어주고 직접 지원하고 참여해 왔던 순간들이 있었다.

2.

그렇다고 진보정당과 성소수자 운동과의 관계가 마냥 좋았다고 하다가는 낭만화할 생각은 없다. 그 과정은 지난한 협상과 투쟁이기도 했고, 사람 한두 명의 있고 없음으로 변하는 일도 많았다. 당 상근자는 언제나 오래 버티지를 못했고, 당 차원에서 사업과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애초에 진보정당이 성소수자 관련 의제를 부담스러워 했던 것은 이미 다른 발제문에 나와 있다. 또 운동(물론 진보정치 ‘운동’ 역시 인식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경계와 성찰을 필요로 하고, 제도/제도화/제도정치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물음들을 가진다. 그래서 진보정당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비판과 문제제기의 대상이 되고, 진보정치와 성소수자 운동이 한몸이거나 동의어가 되기도 힘들다. 원내 정당이라면 더욱 그렇다.

19대 국회가 열렸을 때 한 의원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사실상 마련한 차별금지법안을 아무런 논의 없이 거의 그대로 발의했다. 18대 국회 때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안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아마 이전 국회에서 내놓았던 안이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단체들은 당혹스러워했고 항의했다. 맥락이 있는 법안을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후 외려 의원실과 통로가 열리는 계기이기도 했고,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운동과의 소통이 사라졌을 때의 한 모습이기도 했다.

2013년 균형법상 추행죄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논의가 열리고, ‘계간’이 ‘항문성교’로 개정되는 과정에서도 한 의원실에게 소통을 요청했다. 단지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문제를 넘어 이것은 ‘동성애 범죄화’ 조항으로 가장 기초적인 제도적 현실을 드러내는 문제였다. 직접 의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고, 보

좌관들과 미팅이라도 잡아달라고 했었다. 그러나 자료만 보내주고 사실 끝이었다. 다른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긴 했지만, 어떠한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은 19대 국회 초기에 진선미 의원실에 가서 직접 의원에게 연구모임 소개와 관련 이슈 브리핑을 할 수 있었다.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에도 적극적이었다. 생활동반자 법안이나 군형법 폐지안은 의원실에서 직접 만들었지만,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활동가들이나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이 과정에서 진보정당 의원들에게 동참을 요구할 때도, 솔직히 반응은 그저 그랬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그나마 선뜻 나서주는 모습으로 인상이 남아있다.

이러는 과정에서 사실 진보정당을 덜 찾고, 덜 기대하게 되었던 것 같다. 물론 개별 의원들이나 위원회 차원으로 진보정치와의 관계를 바라본다면 그 폭은 좁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런 장면들은 구체적인 사건으로 다가온다. 몇몇 활동가끼리는 ‘어차피 말해도 안 되는 의원’들의 이름을 올리기도 한다.

안 그래도 불편한 게 당이고 의원실이다. 진보정당과의 관계에서는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접점이 더 있는 듯해서 더 위축되는 이상한 경험. 정당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했나? 그러면 어디를,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지?

성소수자 운동이 곧잘 하고 있는 이슈들 말고도, 진보정치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을 놓친 것도 큰 문제이다. 진보정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인권적인 호포포비아 종교편향 인사들이 법원과 정부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장악할 때, 무엇을 했는가. 교육부가 ‘반동성애’ 단체들의 요구와 공문을 참부해서 교과서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청소년 성의식 운운하며 학생인권조례들에 재의를 요구할 때 어떤 목소리를 냈는가. 보수정당 의원이 대놓고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언행을 할 때, 일언반구라도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놓칠 때 진보정당의 의미 역시 스스로 증명하기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닌가. 운동과의 관계 맺음은 이런 역할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을까.

종종 성소수자 활동가들을 정당이 부르기도 한다. 내가 하는 사건을 국감에서 다루고 싶다고 연락을 하기도 한다. 간담회나 교육 자리가 있으니 와달라는 이야기는 반갑다. 사실 당원이나 위원회를 넘어 당 지도부와 공직자들에게부터 교육이든 이슈 브리핑이든 하고 싶다. 그런데도 얼마 전 한 활동가에게 진보정당에 와서 어떤 일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무심코 내가 한 이야기는 “동원되고 이용될 텐데요, 뭘”이라는 말이었다. 말하고 나서 이내 내 얘기를 듣지도 않은 정당에게 미안해졌지만, 이것은 사실 안타까움과 답답함에 가까웠던 것 같다.

3.

이 답답함과 안타까움은 누구나 이야기하는 진보정치의 위기에서 오는지도 모른다. 당장 내년에 총선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부터 고민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조직 보위를 위한 논의로 쉽게 흐르게 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 ‘조직 보위’가 장기적으로 ‘보위’에 도움이 된적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른바 위기 속에서, 무엇무엇을 위해 진보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당의 존재이유는, “당을 존립을 위해”라는 말로 갑작스레 변하기도 한다.

성소수자 의제는 당사자들에 국한되는 의미를 넘어 가치의 문제이고, 제도와 체제의 문제이다. 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 평등, 진보의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들을 박원순 서울시장같이 정치적 계산으로 이용하는 모습은 큰 실망을 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것은 정치적으로 효과 있는 전략도 아니다. 소수자에 대한 태도, 인권의 가치, 존엄성의 문제를 흥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는 누구에게든 비판과 조롱의 대상의 된다. ‘표’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를 넘어서 소수자 의제를 가치의 문제로 제대로 제기하고 있는지는, 내가 불민하거나 관심이 없어서 잘 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의문이다.

성소수자 의제(‘성정치위원회’의 이름처럼 젠더, 섹슈얼리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가로지르는 성정치)는 당에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면피되거나 할 건 다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거 때마다 그럴 듯한 말로 성소수자 단체들의 공개질의서에 답변을 한다고 해서(때로 선거에 참여한 단체 활동가가 답변서를 담당하면서, 운동이 묻고 운동이 답하는 상황도 있는데)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정책을 되뇌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넘어서 당 차원의, 진보정치의 중요한 의제로서, 이것을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와 연결시키고, 사회적 변화와 진보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진보정치의 중요한 과제이고 진보정당의 중요한 존재의의라고도 생각한다.

성소수자 운동과 진보정치의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위와 같은 경험과 감정과 생각들을 나누고 싶었다. 운동과 진보정치의 상황과 환경은 계속 바뀌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떠한 관계가 형성될지는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성소수자 운동 쪽에서 진보정치를 추동하는 게 있을 것이고, 진보정치가 성소수자 운동과 함께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도 할 테지만, 진보정당 차원의 인식 변화, 그리고 실질적인 조직의 구축 없이는 쉽게 풀리지는 않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진보정당이 성소수자 운동을 자주 찾아오고 부르면서 당의 정치력을 가지고 발휘해주었으면 좋겠다. 위원회 중심으로만 사업을 펼치려고 하다 보면 함정에 빠지기 쉽다. 당 자체가 해야 할 일과 역할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진보정치에서 젠더, 섹슈얼리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인식하며 성정치, 성평등을 비롯해 사회적 이슈로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미 어디선가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당 안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안에서 당 활동가와 조직, 상근자 등을 키울 수 있도록 자원과 네트워크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 사람과 조직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앞에서 말한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발전적 관계의 모색은 여기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당이 대중조직으로서 위원회를 넘어서 성소수자와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의 연대모임(Gay-straight alliance, GSA)를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와 당직자들에 대한 질 높은 필수적이고 직접적이고 전문적이고 정기적인 교육, 이슈 브리핑, 위원회/단체와의 간담회, 네트워킹, ▲성정치 관련 당 상근자와 팀의 구성(팀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또한 당내에서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상근자를 포함한 팀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당내외 법/정책/이론적 전문가들과의 적극적 연결, ▲이를 통해 비범죄화,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기구, 가족구성권, 성별정정 관련 제도 등 핵심적인 이슈는 반드시 잡고 나가겠다는 인식과 이에 대한 정책 연구, 개발, 대안 제시(이러한 이슈들은 어떻게든 진보정치의 성과로 남길 수 있는 이슈들이다. 이 이슈들에 대해 운동이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하면 안 되고, 자체적으로 운동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정당의 권한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연대, ▲당 정책위원회 등 당 기구가 직접 성소수자 단체들을 찾아가고 이슈를 듣고 귀찮게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 ▲성소수자 진보국감 시스템의 복원, ▲성장하고 있는 성소수자 운동의 자원을 활용한 당/위원회 활동가들의 개발, 교육 등을 해 나갈 때, 운동과의 관계라든가 진보정치의 역할들에 대

해서는 더 나아간 논의가 가능해 질 것이다.

구조와 체제와 현실에서 짝트고 정치권에서 부추기고 확대하고 확산시킨 혐오와 증오와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성소수자들은 가장 앞에서 당하고, 경험하고, 체감하고 있다. 이런 현실들을 인식하며 진보정치와 성소수자 운동이 따로 또 같이, 나름의 역할들을 가지고 함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토론회]

조직화된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는 성소수자 운동의 자세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이데올로기적 성장치’로서의 한국의 보수 개신교와 정치적 기반을 통해 본 혐오의 프로파간다

나영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GP네트워크 팀장

장면 1.

2015년 3월 6일, “현재가 인정한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매매 합법화의 근거이기도 하다”라는 제목의 전면 의견광고가 동아일보에 게재되었다. 이 광고에서 서술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시킨 헌법재판소가 유럽의 신마르크스주의는 인정하는가?”라는 부제를 주목해볼만 하다. 이들은 이 광고에서 <성정치>를 서술한 빌헬름 라이히를 언급하며 ‘성해방’, ‘성정치’, ‘성평등’이 유럽 마르크스주의의 소산이라고 주장한다. 근래에 보수-개신교 계열의 혐오세력으로 가장 전면에서 프로파간다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블로그에서는 이러한 맥락의 글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이들의 의견광고가 과거 동성애 관련 내용에 집중되어 있던 데 반해 최근에는 이주민 관련법이나 다른 성윤리에 관한 내용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경향을 주목해볼게 된다.

장면 2.

지난 해 대한민국 개신교 신자들을 멘붕에 빠뜨렸던 화제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홍혜선 전도사다. 그녀는 수많은 교회들의 초청을 받아 설교 강연을 다니며 자신이 보았다는 천국과 지옥을 묘사하면서 2014년 12월 14일에 한국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 제2 롯데월드 지하를 비롯하여, 이미 서울 시내 곳곳에 엄청나게 많은 땅굴이 있고 청와대와 종로가 제일 먼저 공격을 당할 것이라는 등의 연사로 결국 수많은 이들을 태국 등지로 피난가게 만들었던 것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또 한 가지 유명한 강연 영상이 있다. “자위행위 지옥간다”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지금도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 이 영상에서 그녀는 ‘여성은 낙태해서 지옥에 가고, 남성은 자위를 해서 지옥에 간다’는 내용의 설교를 한다. 낙태는 여성이 지옥가는 죄이고, 자위는 남성이 지옥가는 죄인데 결국 자위나 체외수정 등으로 생명인 정자를 함부로 버리게 하는 남성들의 죄는 여성들이 남성들의 욕구를 받아주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는 것이 이 설교의 중요한 맥락이다. 여기에 더해 성적 상징으로 가득찬 지옥에서의 형벌 묘사와 성경 구절 인용을 들으며 청중들은 “아멘”을 읊조린다. 홍혜선 전도사의 전쟁 예언으로 교인들 사이에 혼돈이 발생하고 일부는 피난을 가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자 뒤늦게 보수 개신교계에서는 그녀를 이단 내지는 ‘제 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취급하며 선 굿기에 바빴지만, 사실 결정적인 아이러니는 그녀의 설교 내용이 이미 기존 보수 개신교 교회에서의 설교 내용과 맥락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나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을 ‘사탄’, ‘마귀’로 묘사

한다거나 ‘언제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른다’, ‘미군이 떠나면 한반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와 불안을 조장하며 이를 선교와 교세 확장의 기반으로 삼았던 보수 개신교의 논리, 한국 사회의 이성애 중심주의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며 순결운동과 성윤리 운동을 했던 논리들이 그녀의 설교 안에 다 녹아들어가는 것이다.

장면 3.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한성총회 신도들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폐유를 기원하는 기도회를 열었다. “리퍼트 대사님 힘내세요”를 외치며 광화문에서 부채춤을 추고 엄마부대봉사단 회원들은 신촌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입원한 마크 리퍼트 주한미대사의 폐차를 기원하는 피켓과 꽃다발을 들고 그를 응원했다.

그런데 이 사진들을 보며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이들의 복장이었다. 부채춤을 추고 난타 공연을 하는 이들의 복장이 묘한 기시감을 불러 일으켰는데, 알고 보니 그들이 지난 2014년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반대하러 나와서 광화문에서 하늘하늘한 한복을 입고 춤을 추던 이들과 동일한 소속의 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물론, 엄마부대 봉사단이야 말할 것도 없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한다. 근래 5년여 간 눈에 띄게 활발해진 보수-개신교 조직들의 공격적인 선전 활동과 행동이 도대체 어떤 동기에서 시작되었으며,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초기에는 그저 일부 극단적인 개신교 신자들의 행위로만 보고 그들의 비상식적인 논리와 막말을 비웃을 뿐이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이들의 혐오 선전과 행동은 더욱 극단적인 방식으로 치닫고 있으며, 극우/보수 단체들과 보수 개신교 조직들의 연대와 연합 또한 점점 긴밀해지고 있다. 이에, 한편에서는 이들의 동기와 목적, 관계망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자료들 역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맥락을 검토해볼 수 있다.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 분석으로, 기독교 근본주의에서 시작된 종교적 입장과 신도들의 감정적 동기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로 대표되는 동성애와 성적 타락으로 인한 멸망의 두려움이 교회와 신도들을 적극적으로 길 위에 나서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부여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성경의 해석을 달리하는 입장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논쟁하면서, 종교적 두려움과 사명감을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앞의 분석과 연결되는 것으로, 근래의 사회적 변화로 인한 가치관과 문화가 보수 개신교계가 담지하고 있는 종교적 혹은 종교 윤리적 가치관과 충돌하는 지점을 보는 것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진전된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 파트너십의 제도적 인정 추세는 보수적 가족 가치와 저출산·고령화 시대 위기담론과 맞물리며 보수 개신교계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고 본다.

세 번째는 한국 개신교의 위기 대응 차원에서 그 동기를 분석하는 것이다. 90년대 이후 대형 교회들의 비리와 세습, 목사들의 성추행 등 사회적 범죄 행각이 드러나고 교회의 무리한 확장과 난립, 무리한 선교활동 등으로 비난과 위기에 처하자,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교회 위기와 사회적 위기의 원인을 돌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수 개신교는 ‘문제를 일으키는 꼴깍덩어리’가 아닌, 사회의 윤리와 질서를 지키고 혼란으로부터 세상을 구제할 담지자로 나서게 된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모든 맥락들을 바탕으로 이들이 사회적 불안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극심한 경쟁과 양극화, 파편화된 관계, 아무리 값싸도 쌓이는 빚과 불안정한 고용, 치솟는 물가, 전 세계적 경제 불황과 전쟁 소식 등으로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느끼는 사회적 박탈감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근래에 새로운 시민적 주체로 가시화된 이들을 향해 혐오의 화살을 돌리도록 함으로써 보수-개신교가 차지해 온 기

득권과 가부장적 기반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혐오세력, 그 중에서도 특히 보수 개신교를 기반으로 한 혐오세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중 한 가지의 원인만 분석해서는 적절한 대응의 방향을 찾기가 어렵다. 이 모든 맥락들이 한 데 뒤섞여 다양한 동기로 작동하고 있고, 심지어 교단이나 세력 지형 등에 따라 각기 복잡한 맥락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이 모든 맥락들을 관통하는 중요한 사실은, 한국의 보수 개신교가 단지 종교적이거나 문화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존재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한 가운데에서 탄탄한 기반을 다져온 정치적 존재라는 점이다. 한국의 개신교 복음주의 보수 세력은 일제시대와 미군정기,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정부수립, 한국전쟁과 근대화 등의 과정에 한 몸처럼 붙어있었던 존재로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무엇보다 이들은 정·재계 뿐만 아니라 학교, 사회복지, 의료재단 등을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등을 맡고 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윤리를 단속하고, 체제에 따른 사회적, 성적 규범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이들이 그간 한국 현대사의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관계와 변화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현재 이들이 행하고 있는 혐오와 그 근처에 있는 맥락이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정치·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 보수 개신교의 이러한 위치와 성격을 한국의 성체계를 유지하는 ‘이데올로기적 성장치’로 간주하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데올로기적 성장치’로서의 한국 보수 개신교의 역사와 영향

‘이데올로기적 성장치’라는 개념은 고정갑희의 성이론과 알튀세르의 국가장치 개념에서 가져온 것이다. 고정갑희는 자신의 저서 <성이론>에서 성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체제 규정으로 ‘가부장체제’를 제시하고, 이를 이론화하기 위해 먼저 성체계의 이론화를 시도한다. 고정갑희가 제시한 이론에 따르면 ‘성체계’는 체제를 유지하는 토대인 ‘성관계’, 성관계를 유지하는 노동으로서의 ‘성노동’, 그리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물질적/이데올로기적 장치인 ‘성장치’로 구성된다.³⁸⁾ 현재는 이 모두가 가부장적 성관계, 성노동, 성장치로서 작동하고 있지만 비가부장적 혹은 반가부장적인 내용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 중에서 ‘성장치’는 알튀세르가 제시했던 국가장치의 개념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성적 위계와 억압의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들을 의미한다. 성장치는 여성/남성 과 다양한 성적 주체들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데 동원되며, 체제의 국면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는데 이를 작동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것들로 신체, 서사, 시장, 국가, 가족, 교육, 종교, 미디어 등이 있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중에서도 체제 유지의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기반으로 작동하는 ‘종교’, 특히 한국의 보수 개신교에 관한 것이다. 즉, 한국의 보수 개신교는 어떻게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적 가부장체제를 유지하는 ‘성장치’로서 기반을 다지고, 역사적 국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들이 주도하고 있는 혐오의 조직화는 이들이 구축해온 성장치로서의 기반과 체제 유지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를 파악해보는 것이다. 물론, 이 내용은 매우 방대할 것이기 때문에 이 짧고 부족한 글에서 모두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기초적인 수준에서나마 그 배경과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 미군정기와 이승만 정부-한국 보수 개신교의 특혜적 기반과 정체성 형성기

38) 고정갑희, <성이론>, 도서출판 여이연, 2011. 여기서 ‘성’은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고정갑희는 ‘성’을 토대로 기존의 개념들을 재구성하거나 새롭게 이론화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성관계’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인간생산, 쾌락생산, 상품생산 등에 걸친 성적 생산관계와 성적 권력관계, 성적 계급관계로 구성되고, ‘성노동’은 이러한 생산과 관계, 계급을 유지하는 노동으로 구성된다.

한국의 개신교는 해방 이후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에 의해 압축적인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 소련과 사회주의 세력을 견제하고 한국에서의 영향력을 확고히 해야 했던 미국의 필요성과, 해방 이후의 혼란한 정국에서 자신의 취약한 정통성을 개신교 기반을 통해 확보하려 했던 이승만 정부의 필요성이 만나 한국의 보수 개신교는 엄청난 후원과 특혜를 받았다. 게다가 일제 시대에 탄압을 받고 해방 정국에서 공산/사회주의 계열과 싸우며 남쪽으로 내려온 개신교인들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의 정당성을 확보해줄 수 있는 최적의 종교집단이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추어 한국의 개신교 지도자들은 소련을 세계적화 야욕을 지닌 ‘제국주의 세력’으로, 남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소련제국주의의 하수인인 ‘반민족세력’으로 낙인찍고, 자신들을 이들에 대항하는 ‘민족진영’ 혹은 ‘자유진영’으로 묘사함으로써 자신들의 정당성과 기반을 확보해갔다.³⁹⁾

해방 이후 미군정은 한국에서 활동해 온 미국 선교사들을 주요 공직에 발탁하면서 이들과 친분이 있는 한국인 개신교 신자들을 대대적으로 채용했다. 그리고 일본이 소유했던 재산을 불하하는 과정에서 압도적인 특혜를 받아 일본 종교 단체들이 남기고 간 자리에 100개가 넘는 개신교 시설이 들어설 수 있었다. 한경직 목사가 세운 영락교회도 이 때 서울에서 가장 큰 천리교 포교당 자리를 불하받아 세워진 것이다. 한편, 이승만은 제헌의회를 기도로 시작하고, 한국기독교연합회(KNCC)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요일로 예정되어 있던 첫 제헌의회 선거일을 월요일로 연기하였으며, 국영방송에서 선교를 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첫 민간방송으로 기독교 방송 CBS를 인가했다. 군목, 형목, 경목제도를 도입해 군대와 형무소, 경찰에서 특혜적으로 선교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였고,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했다. 또한 개신교는 건국 과정에서 중요한 교육 정책과 행정에 밀접하게 참여하면서 수많은 교육기관들을 운영했으며, 해외 원조의 배분권을 쥐고 사회복지 기반을 장악했다.⁴⁰⁾ 결국 현재까지도 한국의 보수 개신교계가 군대와 경찰, 정치권, 언론, 의료, 사회복지, 교육기관 등 정치·사회 영역 전반에서 특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거의 대부분 이 당시에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이 시기의 이러한 특혜적 기반이 곧 현재 한국 보수 개신교의 중요한 이데올로기 기반이자 자기 정체성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예수교 나라’로 세우고자 했으며 제헌의회가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었고 해방 이후 개신교가 공산세력과 싸우면서 동시에 중요한 정치·사회 각 분야에서 건국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일련의 역사 인식은, 이 모든 역사적 과정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기에 가능했다는 ‘선민의식’의 토대가 된다.⁴¹⁾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선민의식이, 보수 개신교의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한국사회가 움직여야 하며, 따라서 그들이 사회 전반에 영향력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리화하면서 신도들에게 그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는 기제로 적극 활용된다는 사실이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는 ‘주권운동’ 혹은 ‘신사도 운동’ 계열의 개신교 집단들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한편 이 시기에 공창 폐지와 첩을 둔 자의 공무원 자격 제한, 음주 및 흡연 제한, 아편 제한 등을 요구하고 이를 미신타파 운동과 함께 ‘신생활운동’으로서 전개한 한국 개신교의 시도⁴²⁾는 낙인과 배제를 통해 자신의 기반을 다지면서 사회 윤리의 담지자이자 통제자 역할을 자임하는 이들의 ‘이데올로기적 성장지’로서의 초기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39) 강인철, ‘한국 개신교 반공주의의 형성과 재생산’, 〈역사비평〉 2005년 봄호(통권 70호), 2005.2.

3) 백중현, 〈대통령과 종교:종교는 어떻게 권력이 되었는가〉, 인물과 사상사, 2014

41) 현재 성소수자 및 사회적 소수자 혐오를 조직하고 이를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려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수 개신교 단체인 ‘선민네트워크’의 홈페이지 단체소개는 이렇게 시작한다.

“선택된 민족! 선진민족! 선한민족! 기도 위에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소서!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제1차 회의는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의원 이윤영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개회사로 시작되었다.....(후략) “

42) 강인철, ‘대한민국 초대 정부의 기독교적 성격’,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0호(2009년 3월 25일)

○ 박정희 정부-친미와 반공/반북, 근대화의 이데올로기이자 성 윤리 단속의 주체

박정희 시대 보수 개신교는 이전 시대에 형성된 물질, 정치·사회적 기반과 반공, 건국 선민사상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군사 독재 정권에 부응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박정희 정권은 초기에는 4.19 혁명 등 이승만 정권과 개신교에 대한 적대감을 의식해 미션스쿨에서의 종교교육을 규제하고, 일요일 국가행사를 부활시키는 등 개신교를 규제했으나 다시 정권의 필요성을 위해 보수 개신교계의 영향력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정치적 정당성이 취약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다. 보수 개신교는 반공/반북, 친미의 적극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이 필요성에 충실히 기여했다. 한국기독교협의회는 5.16 쿠데타 직후 “금번 5.16 군사혁명은 조국을 공산 침략에서 구출하고 부정과 부패로 기울어가는 조국을 재건하기 위한 부득이한 처사였다”는 내용의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10월 유신과 긴급조치 발령으로 민주인사들이 탄압을 받던 시기에 구국기도회 등을 열어 사회 분위기를 반공으로 몰아갔으며, 베트남 파병도 적극 지지했다. 한경직, 김장환 목사는 군사정권을 옹호하는 민간 사절로서 미국에서 순회 강연과 방송 출연 등에 나서기도 했다. 베트남 파병, 3선 개헌 지지, 주한미군 철수 반대 등에 반공을 근거로 내세우며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개신교의 반공 관련 활동을 적극적인 체제 유지의 도구로 활용했다.⁴³⁾

특히, 베트남 파병 이후 창설되었다는 ‘구국십자군’은 이 당시 보수 개신교가 어느 정도까지 종교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을 뒷받침해 주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멸공대, 기동대, 전도대 등의 구성, 발대식에서 ‘순교적 신앙으로 총결기하여 기독교의 선과 미로써 조국의 성업에 총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는 사실 등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보수 개신교의 강력한 반공/반북, 친미/애국 사명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확인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또한, ‘서북청년단 재건위’ 등에 나서는 보수 개신교 인물들 역시 이와 같은 박정희 시대 보수 개신교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시기 보수 개신교는 ‘새마을 운동’에도 적극 부응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다. 청교도주의와 근면 이데올로기는 새마을 운동을 기독교적 가치로 내면화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기제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이다. 조용기 목사는 박정희와 만난 자리에서 “새마을 운동을 벌이라”는 조언을 하면서 “과거를 뒤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자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시골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다. 교회가 새마을 운동의 중심이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함으로써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순복음교회는 급격하게 성장한다. 1963년에는 재적교인이 3천 명을 넘어섰고, 1973년에는 1만 8천 명을 돌파했으며, 1972년부터 1981년까지 평균 9.3% 성장했다. 이 시기에 조용기 목사의 유명한 ‘3박자 구원론’도 나왔다. 신앙생활을 잘 하면 물질도 생기고 건강도 얻는다는 3박자 구원론, 소리지르고 울고 나뉘는 영적 체험은 혹독한 시기를 견뎌야 했던 도시 영세민들에게 체제로부터 비롯된 고통을 종교적 체험으로 해소하면서 동시에 신앙과 근대화에서의 자기 역할에 충실히 임하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했다.⁴⁴⁾

주지하다시피, 이 시기는 정부 주도의 압축적인 근대화와 함께 가족계획 정책, 성 윤리 단속으로 대표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1975년 12월 18일자 경향신문은 ‘모자의 불행을 사전에 막는 것이라면 권장할 수 있다’고 응답한 개신교인이 70%에 달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가족계획사업이 국가정책으로 결정되었을 때 카톨릭은 반대 성명을 발표한 데에 반해 개신교는 적극적인 수용 의사

43) 백중현, 앞의 책

44) 백중현, 앞의 책.

정연복, ‘종교와 파시즘, 그 역사적 교찰-기독교를 중심으로’, 〈2013 만해죽전 학술세미나〉

를 밝혔다. 이는 미국 교회와 당시 미국 교회가 주도하고 있던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들은 1950년대부터 인구제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토의하면서 ‘자의적 가족계획과 책임적 부모의 원칙’을 내세우거나 가족계획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1960년대부터 WCC에 많은 제3세계 교회들이 정식으로 참여하면서 WCC에서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이들을 방어하고, 제3세계 국가들의 물질적인 부의 창조를 위해 인구조절 계획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논리가 제시된 배경이 있다. 한국 개신교는 이들로부터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특히 당시에 공산주의 세력을 ‘사탄’, ‘적그리스도’와 동일시하던 한국의 보수 개신교는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과 일본의 경제 정책 사이의 위기에서 한국을 하루빨리 살기 좋은 금수강산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와 자유를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국 개신교의 최대 목표는 남한사회에 경제적인 부를 앞당기는 것이고, 이를 위해 가족계획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이들이 가족계획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이유였다.⁴⁵⁾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한국 보수 개신교는 근대화 시기 가족계획과 근대적 가족가치 모델을 종교적 가치로 내면화하고, ‘근로하는 아버지’와 ‘알뜰한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한 근대 가부장제의 가족상을 교회 규범이자 사회적 규범으로 확립하는 데에 일조해 나갔다.

○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반 변화와 위기감

그런데 이렇게 다져온 한국 보수 개신교의 기반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크게 타격을 받았다는 위기감이 현재 한국 보수 개신교가 공유하고 있는 기본 정서이다. 우선은 햇볕정책을 강조하는 김대중 정부의 등장으로 친미/반공을 위시로 성장해 온 보수 개신교의 기반부터가 대중적으로 설 자리를 잃었다. 게다가 김대중 정부에서 연이어 교회와 목사의 비리 사건이 보도되고,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보수 개신교계는 이를 ‘친북 좌파 정권의 개신교 탄압’으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때, 조갑제가 보수 우파 단체들과 보수 개신교계를 잇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조갑제닷컴’에 ‘전 인구의 약 30 퍼센트나 되는 잘 조직된 거대한 반공보루’로서 개신교를 언급하고, 이후 2년간 <월간조선>을 통해 조용기, 김장환, 옥한흠, 김진홍, 길자연 등 대형교회 목사들을 인터뷰하는 등 보수 개신교와의 연대활동을 본격화했다. 뿐만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한국 교회가 반김대중, 반공산주의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2001년 7월 한 달 동안 ‘기독교의 쫓겨간 카인의 후예, 사탄의 제자 타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김일성-김정일’, ‘기독교 뿌리에서 나온 이승만과 김일성의 차이’등을 게재하면서 적극적으로 보수 개신교계의 역할을 선동했다.⁴⁶⁾

이에 부응해 보수 개신교계는 수차례의 친미, 반공 집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거리에 나섰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을 비롯한 4대 개혁입법⁴⁷⁾ 국면을 맞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위시로 한 보수 개신교계는 본격적으로 광장에서 연일 대규모 집회를 열기에 이른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은 해방 이후 수백 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학교법인을 쥐고 있었던 보수 개신교의 기반을 흔드는, 최대의 적으로 여겨졌다. 목사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해 삭발 투쟁을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으며 의원 낙선운동까지 벌였다. 그리고 바로 이 때, 적극적으로 이들과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에 나섰던 박근혜가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와 같은 당시의 흐름을 반드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 때 형성된 네트워크와 정치적 경험 이후 뉴라이트전국연합을 비롯한 각종 보수 네트워크에 보수 개신교가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이를

45) 윤정란, ‘국가·여성·종교: 1960-1970년대 가족계획사업과 기독교 여성’, 여성과 역사 제8집, 2008.6,

46) 백중현, 앞의 책

47)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주도하는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민주당 계열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를 한 축으로, 이명박, 박근혜 등 뉴라이트, 보수 정권을 세우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뿐만 아니라, 인권의 제도화 정책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좌파적 음모’를 가지고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평등권이나 인권 보장과 관련된 법·제도의 주장은 이들 정부 당시에 유입된 ‘특혜 정책’으로 규정짓는 선동 방식으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형성되었다. 현재까지 보수 개신교계에서 선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논리와 교회 위기 대응, 사회적 소수자들을 중북이나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집단으로 낙인찍고 혐오를 조장하는 주장들은 모두 이 당시에 형성된 보수 개신교 세력들과 그들의 활동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흐름 속에서 노무현 정부 말기의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이 이후 보수 개신교계가 반 동성애 운동을 본격화하는 데에 결정적인 불씨를 당겼다.

○ 한기총과 뉴라이트전국연합 그리고 이명박 정부 이후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투쟁을 벌이면서 한국의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뉴라이트 단체들과의 연합을 강화하면서 ‘뉴라이트 네트워크’, ‘한국기독교개혁운동’, ‘기독교 뉴라이트’, ‘기독교사회책임’ 등 보수 단체들을 연이어 결성하였고, 특히 한기총은 그 핵심 세력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후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서경석,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진홍,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인명진,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박영모,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추부길 등 개신교 목사들은 뉴라이트를 장악하면서 정치권에까지 진출했다.⁴⁸⁾

재밌는 점은 미국에서도 기독교 우파가 뉴라이트에 적극적으로 연합하게 된 계기가 카터 행정부의 사립학교 면세제도 폐지였다는 점이다. 결국 사립학교가 기독교 재단들의 재정적,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의 핵심 기반을 이루는 현실에서 미국과 한국의 자유주의 정부들이 이를 건드린 것이 중요한 원인 이었던 셈이다. 미국의 기독교 우파가 사회의 성적 타락을 명분으로 학교에서의 성교육 대신 채플 수업을 통한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피임, 낙태, 동성애 등을 적대시했던 것이나, 한국 보수 기독교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임신출산과 성적 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등에 동성애 공포 조장으로 맞서는 것, 전교조를 한국 교육의 절대적인 적으로 규정하는 방식 등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기독교계 사립학교 재단에 대한 위협을 막아내기 위한 흐름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⁴⁹⁾

한기총이 김진홍 목사를 위시로 하여 뉴라이트전국연합에 적극적으로 결합했고, 이명박 정부의 당선에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동원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의 내분 과정에서 유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3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출처가 모호한 거액 후원금이 31차례에 걸쳐 8억 2천여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이 중 김진홍 목사가 있는 두레교회 명의로 입금된 것이 3억 8천만 원 가량이었다.⁵⁰⁾ 김대중 정부 당시 비리 문제로 수세에 몰렸던 금란교회 김진홍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은 대놓고 “다시는 좌파 정권이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장로 후보를 마귀의 참소, 테러의 위협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등의 설교를 하며 전면적으로 이명박 후보의 선거활동에 나섰다.⁵¹⁾

이렇게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보수 개신교는 이후 정치권

48) 정상호, ‘미국의 네오콘과 한국의 뉴라이트에 대한 비교 연구 : 정책이념 · 네트워크 · 정책의 형성 및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3호

49) 나영, ‘미국 뉴라이트의 성적 보수주의와 프로라이프, 그리고 한국’, 〈적녹보라 패러다임과 섹슈얼리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2013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2012년 포럼주간 발표문)

50) 정상호, 앞의 글

51), 15) 백중현, 앞의 책

와 연계된 내/외부 네트워크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보수 개신교계 코드 인사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매년 심각한 논란을 겪으면서까지 보수 개신교계 인사들을 앉히게 만드는 양태로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후보 캠프 시절부터 중앙선거대책위원장과 부위원장, 대변인 등이 모두 개신교 인사로 채워지고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핵심 실장과 수석도 개신교 인사가 맞는 등 보수 개신교 네트워크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⁵²⁾ 현재 교육부장관을 맡고 있는 황우여를 비롯하여 다수의 장관직도 보수 개신교인들이 차지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정치적 위치를 기반으로 보수 개신교계는 교과서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동성애/동성혼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등을 주장하며 수년째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행동 그룹들

한편, 2010년 이후 한기총 외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새로운 행동그룹들이 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선민네트워크, 기독교사회책임, 기독교유권자연맹, 기독교싱크탱크 등과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이하 바성연)’, ‘참교육어머니전국연합’, ‘동성애허용법안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국)’ ‘엄마부대 봉사단’, ‘홀리라이프’ ‘예수재단’ 등이다.

차별금지법의 경우 2007년 당시에는 한기총이 성적지향, 학력 및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등 7개 항목을 차별금지 영역에서 제외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2010년 바성연이 창립된 이후에는 바성연이 관련 이슈를 거의 전담했다. ‘바성연’과 ‘참교육어머니전국연합’, ‘동반국’은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를 반대하는 신문광고를 비롯해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광고를 수차례 게재하고 학생인권조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동성애 조장’을 내세워 노골적인 혐오를 드러내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벌였다.

이를 움직이고 있는 핵심적인 인물들로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의 명예총재이자 선민네트워크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삼환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명예총재 조용기 목사, 역시 세계성시화운동본부의 총재인 전용태 장로, 기독교사회책임의 공동대표인 서경석 목사, 사무총장 김규호 목사, 선민네트워크 공동대표이자 한기총 정보통신위원회 기획위원, 바성연 실행위원 등을 맡고 있는 안희환 목사, 에스더기도운동본부의 이용희 목사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2010년경부터 정치적 활동과 공격적인 선전·선동 활동 등을 본격화해왔는데,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나 기독교사회책임을 위시로 수시로 새로운 조직과 해체를 반복하면서 종교편향 지원 반대, 종교와 선교의 자유 보장, 한국사회에 대한 기독교 기여 부문 인정, 낙태 반대와 동성애 옹호 조장법 반대 등 건전한 윤리 회복, 공정한 기독교 역사 서술, 종교 교육의 자율성 보장, 기독교 역사박물관 건립, 북한인권법 제정과 탈북자를 위한 종교단체와의 협력 강화 요구 등을 정책으로 내세우며 선거 시기마다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지자체의 인권조례/인권헌장 반대나 이제는 동성애 반대에서 더욱 확장되어 이주민 지원정책, 간통죄 폐지 비판 의견까지 의견광고로 내고 있는 활동들 대부분이 이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특히, 이들이 주로 ‘주권운동(dominionism)’ 혹은 ‘신사도운동’으로 분류되는 급진적 개신교 운동을 공유하고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도 이들 계열이 보수적 가족가치를 내세우며 레이건 정부를 당선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영향을 받은 한국의 보수 개신교 역시 이들의 목표와 행적을 따라가고 있다. 주권운동은 존 칼빈이 1500년대에 스위스 제네바에 주입했던 신정(神政)을 정치적 모델로 삼는데, 하나님께서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도록 명하셨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중국에는 지구 자체를 기독교인이 ‘지배’해야 한다고 믿는다. 예수의 재림

과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 비즈니스-재정, 교육, 가정, 미디어, 예술, 스포츠, 종교 등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이 모든 분야를 신사도 운동의 교회가 지배하고 통치하여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예수가 재림 하신다고 믿는다.⁵³⁾ 그리고 이 목표 하에서 노동조합, 각종 인권법, 공립학교 등은 사라져야 할 대상이고, 창조론과 기독교적 가치들이 교육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기독교적 가치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시민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⁵⁴⁾ 이런 믿음 하에, 이들이 유포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바로 가부장적 성체계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서 타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미국 보수 개신교에서 이들이 주권운동을 통해 미국 개신교를 통한 세계 지배를 목표로 삼았듯, 현재 한국의 ‘세계성시화운동본부’나 ‘선민네트워크’같은 단체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 대한민국’이 이 과업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미국은 아직까지 한국의 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타락한 나라’로써 위치지어진다. 이와 같은 ‘주권운동’ 혹은 ‘신사도운동’의 논리는 현재 한국의 보수 개신교의 정치적 활동과 공격적 행동들에 강력한 사명감과 명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의 지형들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시민단체, 온라인, 대중적 선전·선동의 적극적인 활용

이제 다시 우리가 궁금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어떻게 한국의 보수 계신교계는 지금과 같은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도대체 왜 이들은 중복과 계이를 연결시키고, 동성애, 이주민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선동을 하면서, 한편으로 ‘애국 보수’ 세력과 연합하고, 서북청년단 재건위를 만들거나, 세월호 유가족을 비판하는가. "리퍼트 대사님 어서 일어나세요"를 외치며 부채춤을 추는 이들과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반대하며 북과 소고를 들고 나와 춤췄던 이들이 같은 이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각각의 사건들은 모두 동떨어져 보이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사실은 이 모두가 한국의 보수 개신교가 지니고 있는 정체성의 기반 위에 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현재의 지형에서 중요한 지점들을 이 글의 첫머리에서 언급했던 맥락들과 연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① 신사도운동과 선민사상에 근거한 자기 정체성의 확보
- ② 정치적 위치 변화에 따른 기반 다지기
- ③ 한국의 보수-개신교 교회가 부딪힌 위기에 대한 대응
- ④ 성적 단속을 통한 위기, 불안의 전가와 자기 정당성, 위치 확보

특히, 2010년을 전후로 하여 안희환 목사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기반의 활동들과 시민단체를 내세운 활동, 선전·선동 활동 등이 위의 목적들을 달성하는 데에 최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전략은 확실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지나 이명박 정부를 지나오며 형성된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중요한 변화는 이전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시민단체, 민간영역의 활동과 블로그, 카페, 포털, SNS, 모바일 메신저 등의 ‘온라인 여론 공간’이라는 것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전 시대의 보수 개신교가 정부 주도의 정

53) 리그베다 위키, ‘신사도운동’

54) 정연복, 앞의 글

책과 국가계획에 부응하며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그에 수반되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성장지’의 기능을 했다면, 현재의 보수 개신교는 기존의 기반을 가지고 움직이는 대형교회 기반의 세력과, 아무런 기반 없이 시작했지만 시민단체와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자기 위치를 확보한 이들이 서로 연합하거나 경쟁하면서 이중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안희환 목사, 에스테르기도운동, 홀리라이프의 이요나 목사, 예수재단의 임요한 목사,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khTV 등이 후자 쪽에 속한다.

특히, ‘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운동’ ‘국제인터넷선교회’ 등을 만든 안희환 목사의 경우 각종 비리와 세습, 성추행 문제 등으로 공격받던 대형교회를 ‘안티 기독교 대응’의 차원에서 온라인 공간을 이용해 적극 방어하고, 악플, 음란물 단속 등의 명분과 자신의 목적을 결합시키면서 사회적 명분을 확보해 나가는 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만 하다. 이후 ‘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운동’은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앞장섰으며, ‘국제인터넷선교회’는 북한, 청소년, 문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문단’ ‘사진세계’ 등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그는 지난 해 ‘5대 권력의 하나가 된 시민단체를 잘 활용해야 한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는데 이 글에서 그는 ‘시민단체들이 권력이 되었다’며, ‘제대로 된 시민단체를 만들기 위해’ ‘기독교청년 NGO 센터’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기독교청년 NGO 센터’는 앞서 언급한 ‘선민네트워크’의 산하단체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을 훈련하여 시민단체 리더들로 세워나가겠다’는 것이 그가 밝히고 있는 포부이다.⁵⁵⁾

한편, 또 한 가지 이들에게서 주목할 점은 대중적 영향력을 위해 성서적 논리보다는 세속적 논리와 프로파간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보수 개신교계에서 만든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의 경우 종교적 언급들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해외 가족가치 운동의 주장과 성 담론, 이론적 파편들을 가져와 자신들의 프로파간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처음에는 동성애 반대를 위한 혐오논리를 조장하는 데에 집중했지만 최근동아일보에 게재된 간통죄 폐지 관련 의견광고에서 보다시피 이제는 이전에 동성애 혐오에 동원되던 논리들을 근거로 하여 사회 전반의 성윤리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이 단체와 함께 지난 해 만들어진 khTV가 적극적인 선전·선동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서울시와 성북구청의 경험을 통해 주목하게 된 민관협력 거버넌스, 주민참여 영역에서의 보수 개신교 기반을 짚고자 한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본격화 된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지자체의 열악한 기반은 이 영역마저도 보수 개신교의 영향권으로 만들었다. 교회의 촘촘한 지역사회 연결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에서의 영향력, 물질 자원, 게다가 보수 개신교가 구축해 온 사회복지 분야의 기반들은 어떻게든 민관협력의 성공 사례를 만들고 열악한 자원으로 지자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지자체 정부가 절박하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중요한 자원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반이 근래에 인권조례를 만드는 등의 활동으로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지자체장들이 보수 개신교계의 압력에 꼼짝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정치권에 큰 자기 기반이 없는 박원순이나 김영배 같은 이들이 한편으로는 민주당 계열과 한통속의 ‘좌파 정치인’으로 엮이면서 보수-개신교의 공격을 받고, 그러면서도 성소수자 인권과 같이 확고한 자기 가치관과 추진력이 필요한 사안들에 명확한 자기 입장이 없는 상황은 결국 혐오세력의 압력에 밀림으로써 이들의 정당성과 기반을 확보해주는 악순환으로 나타나고 있다.

혐오의 프로파간다와 성적 이데올로기

55) Chistian Q&A 게시판 (http://www.christianqna.org/bbs/board.php?bo_table=z5_1)에 게재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글이 삭제된 상태임.

이제, 현재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프로파간다와 성적 이데올로기를 정리해보며 이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현재 이들의 프로파간다 지형을 읽어내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성장지’로서 보수 개신교가 지금의 체제와 성체계를 유지하는 데에 어떤 부분에서 기여하고 있으며, 또 이를 통해 어떠한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읽어내야, 권리 옹호 차원을 넘어 보다 적극적이고 급진적으로 현재의 성체계를 건드리며 사회적 변화의 방향과 언어, 담론 기반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 가부장적 성체계를 유지할 시민 주체와 비(非)시민, 반(反)시민의 구분

우선 가장 근간이 되는 맥락은 이 글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사회적 불안과 위기감을 이용하는 프로파간다이다. 그리고 이는 매우 확고하게 가부장적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담지하고 있다. 이들은 성소수자, 이주민, 종북 등으로 돌려 이들이 질병, 사회불안, 범죄, 성윤리의 파괴, 세금 낭비를 가져오며 나라를(세상을) 망하게 한다는 위기감과 불안을 조성하고 이를 막아낼 대리자이자 강력한 사회적/정치적 주체로서 애국 보수-개신교를 내세운다. 종북세력, 성소수자, 이주민 등을 ‘건강하고’, ‘건전한’, ‘대한민국 시민’으로부터 타자화하면서 세금과 질병을 타자화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다.⁵⁶⁾

세금과 군대는 가부장적 시민 주체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핵심 근간이다. 남성 가부장이 돈을 벌고 가족을 지킨다는 이데올로기적 명분을 차지함으로써 성적 관계의 주체로 자리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가 세금을 내느냐, 나라를 지키느냐는 이 사회의 가부장적 성체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정서적, 이데올로기적 근간인 것이다. 특히 얼마 전 연말정산과 담배값 인상 문제가 박근혜 정부의 지지도를 대폭 하락시킨 것에서 보듯이 세금은 매우 예민한 문제이고, 누가 세금을 내고 있으며, 세금을 낼 자격이 있는가는 ‘힘들어도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고 있는’ 개인들에게 강력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문제이다. ‘이 나라는 내 세금으로/내가 지켜서’ 돌아가고 있는데 ‘나라가 제대로 대접을 안 해준다.’는 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인데 보수 개신교의 프로파간다는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한다.

이 프로파간다 논리 안에서 (외국에서 왔고, 한국에서 돈 벌어서 외국으로 보내고, 한국에서는 일 자리를 빼앗는) 이주민이나 (항문섹스에만 탐닉하는 성중독자들인) 성소수자는 비-시민으로 전제되고, (사회 곳곳에 숨어서 나라를 말아먹으려는) 종북 세력은 반-시민으로 전제된다. 즉, “시민인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을 정부가 비-시민/반-시민에게 쏟아 붓게 될 것이다.(쏟아 붓고 있다)”는 논리로 억울함과 박탈감을 자극하는 것이다. 사실 여성 혐오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작동한다. “남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경제발전 시키고 일자리 만들어 놓으니깐, 그 동안 남자들 돈으로 먹고 살아 온 여자들이 이제 와서 여권(女權) 내세우며 특혜 받아서 다 차지하고 있다”는 논리가 그런 것이다. 이런 논리의 프로파간다를 통해 ‘소수자 인권’은 사실상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라, 정당한 시민

56) 다음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건사연)’의 발기문과 강령 일부이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에 대한 이들의 논리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외치고자 이렇게 모였는가! 우리를 불러 모은 것은 정치적 의도도 아니고, 경제적 이해관계도 아니다. 바로 ‘상식’과 ‘기본 윤리’를 통해 사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갈망이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 제도를 통해 가정을 이루는 것은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 건강한 세상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윤리이며 가치이다.” (발기문)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 윤리’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건전한 성 윤리가 무너지고 있으며, 특정 가치의 강요로 인해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또한 위협받고 있다. 이 현상은 결국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의 쇠퇴로 귀결될 것이다.

...

첫째, 우리는 이성애만을 인류의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믿으며, 사랑하는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정만을 정상적인 가정으로 인정한다.” (강령 전문)

주체들의 가부장적 위치 기반을 흔드는 '특권'으로 자리하게 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대로 '종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이성애-일부일체제 가족을 지켜 '(하나님의 선민인) 대한민국 시민'의 윤리와 건강을 타자들로부터 지켜내는 것'을 자신들의 정당성이자 사명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국 보수 개신교는 이 가부장적 시민 주체들을 이끌어 나갈 가치의 담지자로 나선다.

○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타락의 근원 또는 범죄자로 낙인찍기⁵⁷⁾

질병, 세금 말고도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지는데 이주민, 성소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논리이다. 이들의 프로파간다 안에서 이주민은 이슬람이나 조선족을 떠올리는 동시에 범죄자로 전제하게 만들고, 성소수자는 의도적으로 에이즈를 퍼트리거나 동성 강간, 소아 강간을 하는 잠재적 성범죄자로 전제한다. (무슬림으로 전제되는) 이주민, 성소수자 모두 일부다처제, 성적 방종 등으로 질병을 퍼트리고 성윤리를 파탄내며,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존재들이므로, “이대로 가다가는 성 변태들, 이슬람, 이주민,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한다”는 극단적인 논리도 서슴없이 등장한다. 특히 여기서 동성애와 에이즈 감염을 끈질기게 연관시키는 이들의 프로파간다는 앞서 언급한 세금 논리와 연결하여 ‘에이즈 감염인의 치료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성애나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에이즈 환자가 더 증가하고, 그러면 에이즈 환자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이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논리로 이어진다.

○ 혐오자, 차별자의 위치에서 자신들을 삭제하고 개념을 전복시키기

한편 최근 눈에 띄는 것은 이들이 ‘호모포비아’, ‘혐오세력’ 같은 용어들을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근래 1년 사이에 이들은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호모마니아’ 같은 용어를 쓰는 것이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블로그는 이 ‘호모마니아’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호모포비아’가 아니라 당신들이 ‘호모마니아’라는 것이다. 그리고 보수 개신교계의 언론에 칼럼 등을 게재하면서 ‘성소수자’ 개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 개념이 윤리적 기준을 흐리고 문제적인 사람들을 약자, 소수자로 보이게 만든다면서 성소수자가 아니라 ‘변태’라고 불려야 한다는 주장 등을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신들의 위치는 혐오자, 차별자의 위치에서 삭제하고 자신들이 공격하고 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각종 개념들을 왜곡하고 전복시킨다. 권리, 인권, 건강, 복지, 평등, 다양성, 소수자, 차별/역차별, 민주주의 같은 용어들이 이들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대표적인 개념들이다.

○ “동성애는 전파된다”,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논리

-부모, 특히 어머니 역할의 강조, 전교조 반대, 교과서 개정 주장의 근거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된 내 아들 동성애자 되서 에이즈 걸리면 KBS가 책임져라"

"동성애라는 나쁜 문화 전파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항문섹스 권장하는 동성애는 사탄 집단"

57) "또한 최근 성중독이 난무하여 각종 성폭력, 성매매, 음란물, 동성애, 수간, 집단혼음 등 문란한 성문화가 우리 사회를 타락시켜 국민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있으며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성애로 최근 동성애자 공개 결혼식, 혼인신고 등을 통해 단순히 소수자의 인권보호 차원을 넘어 온 국민에게 비윤리적인 동성 간의 성행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_2014.5.29 제2회 <중독 추방의 날> 성명서 중

보수 개신교에서 김원평 교수 등을 내세워 열심히 전파하고 있는 프로파간다 중에 핵심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이미 오래 전에 애기된 다양한 과학적 근거와 자료들을 가지고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취향이나 학습된 것일 뿐이므로 동성애 문화가 용인되면 보다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동성애를 '이해할만한 행동', '인정해야 할 개인의 취향'으로 이야기 하거나 동성애자나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타고난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기에 소수자로서 존중해줘야 한다'는 등의 논리는 동성애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게 만드는 논리가 되는 것이다.

특히, 교과서에서 동성애에 대해 관용적으로 서술한다거나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언론이나 드라마, 영화 등에서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묘사하는 것 등은 동성애를 전파시키고 결국 에이즈를 확산시켜 사회적 성문란과 공중 보건 악화를 가져오는 일이기에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일이다.

이들은 무엇보다 청소년을 명분으로 한 사회적 공포를 조장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이들로 호명되는 것은 '어머니'들이다. 청소년들은 절대 주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이들로 간주되지 않으며 '혼란기'에, '쉽게 물들 수 있고', '한 번 물들면 평생을 망치게 되는' 대상이 될 뿐이다. 또한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는 관용적이지만 그 당사자가 '내 자식'이라면 공포가 되는 사람들의 심리를 적극적으로 선전에 활용한다. 이러한 논리들은 결국, 끊임없이 여성을 '내 가정', '내 자식'의 관리자로서의 역할로 호명하여 위치시키고 청소년들을 자기 결정권이 없는 비주체적 대상으로, 부모와 가정, 국가의 종속 대상으로만 위치시키는 보수 기독교의 가족 가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는 이른바 '청소년 사역'을 중요한 사명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학교법인, 복지재단 등 청소년 사업에 광범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보수 개신교계가 자신들의 기반과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중요한 프로파간다이자, 끊임없이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핵심 매개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탈 동성애'와 '성 중독 치료'

이 운동의 주축이 되고 있는 사람은 이요나 목사(갈보리채플서울교회, 홀리라이프)이다. 그는 스스로를 '탈 동성애자'라고 소개하며 현재 '홀리라이프'를 통해 홀리라이프 청년포럼, 한국성교육상담사협회, 성경적상담사협회, 한국성경적상담신학원, 성경적상담사 자격검정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는 동성애를 '성동일성장에 관계중독'으로 규정한다. 동성애는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적 품성이 훼손된 성적 욕구'에 중독된 것이며, 이를 성경적 상담 방법에 따라 '치료'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는 이러한 활동을 전면화하기 위해 2010년 김규호 목사와 함께 '중독예방시민연대'를 만들고 2013년부터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 제정 촉구' 운동을 하고 있으며 신의진 의원을 주축으로 한 법 제정에 압력을 넣는 등의 활동을 주도했다. 특히, 술, 마약, 게임, 도박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는 신의진 의원 발의안에 '성 중독'을 추가해서 '5대 중독'으로 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성중독예방치유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2014.5.29 제2회 중독추방의 날 성명)

'탈 동성애', '동성애 중독치유'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사연과 홀리라이프가 주도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들은 계속해서 '동성애에서 변화된 이들'의 사례를 책과 영상, 기사 등으로 제작해서 확산시키고 있으며 레즈비언 여성 두 명의 변화사례를 영상으로 만들어 유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나아가 '탈 동성애' 운동은 '탈 동성애자들의 권리' 주장으로 이어진다. 동성애자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탈 동성애'를 하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동성애자 인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지점에서 조금씩 입장을 달리하는 태도들을 보이는데, 예를 들면 가끔씩 이요나 목사가 바성연의 '어느 동성애자의 양심 고백' 게재 중단을 요청하는 글을 쓴다든가, 동성애자를 단죄하

는 방식은 원치 않는다는 등의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가 한 편으로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활동의 특성상 동성애자들을 계속 만나야 하며, 동시에 보수 개신교 내에서도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딜레마로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을 대신하여

이 글은 앞으로 계속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되면서 방향을 찾아나가야 하는 글이다. 지금 우리는 날이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다. 온라인이나 선전·선동의 공간을 넘어 공적 공간에서 폭력적인 집단행동이나 개별적 테러가 실행되고 있는 상황은 현재 존재하는 혐오의 공간들과 그 맥락을 주목하고 방향을 예측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점점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체제의 변화, 성체계의 변화에 따라 자신들의 기반을 유지, 확보하기 위해 불안과 위기를 조장 또는 이용하는 보수 개신교의 움직임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직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더욱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분석해 본 과정에서 조금 더 선명해지는 사실 한 가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혐오의 프로파간다와 조직화가 더 이상 권리의 호소나 제도적 요구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차별금지법, 군형법, 동성결혼 또는 파트너십법 등 제도적 장치들을 요구하고 마련하는 일은 한 축으로 여전히 매우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와 동시에, 주체들의 권리가 연결되어 있는 체제의 핵심을 발견하고 이를 건드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동성애자 대 보수 개신교’의 구도를 넘어 서야 한다.

성적 존재이자 사회적 존재로서의 LGBT/퀴어의 위치는 무엇인가, LGBT/퀴어는 무엇을 생산하고 무엇을 재생산하는가, 어떠한 사회적, 성적 관계들을 맺으며 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LGBT/퀴어 내부의 다양한 위치와 차이들은 앞으로의 요구와 방향에 어떻게 고려할 것이며, 배제와 혐오의 고리에 함께 연결되어 있는 다른 성적/사회적 주체들과는 어떻게 만나고 함께 요구를 만들어갈 것인가. 앞서 살펴본 바대로, 성적 보수주의의 흐름은 절대 그 사회의 경제적, 안보적 상황과 별개로 가지 않는다.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이 현재 ‘이데올로기적 성장지’로서 체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기여하고 있는 보수 개신교를 비롯한 혐오 세력들에게 제대로 맞서기 위해 지금 반드시 적극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고정갑희, 〈성이론〉, 도서출판 여이연, 2011.
- 백중현, 〈대통령과 종교:종교는 어떻게 권력이 되었는가〉, 인물과 사상사, 2014
- 강인철, ‘한국 개신교 반공주의의 형성과 재생산’, 〈역사비평〉 2005년 봄호(통권 70호), 2005.2,
- 강인철, ‘대한민국 초대 정부의 기독교적 성격’,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0호(2009년 3월 25일)
- 정상호, ‘미국의 네오콘과 한국의 뉴라이트에 대한 비교 연구 : 정책이념·네트워크·정책의 형성 및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3호
- 정연복, ‘종교와 파시즘, 그 역사적 고찰-기독교를 중심으로’, 〈2013 만해축전 학술세미나〉
- 윤정란, ‘국가·여성·종교: 1960-1970년대 가족계획사업과 기독교 여성’, 여성과 역사 제8집, 2008.6,
- 나영, ‘미국 뉴라이트의 성적 보수주의와 프로라이프, 그리고 한국’, 〈적녹보라 패러다임과 섹슈얼리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2013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글로벌액티비즘센터 2012년 포럼주간 발표문)
- 나영, ‘한국 보수 기독교계의 동성애 혐오논리와 맥락’,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글로벌액티비즘센터

〈기독교와 여성, 섹슈얼리티〉 잡담회 발표 자료, 2014

나영, ‘2014년 퀴어문화축제의 경험, 성적 혐오의 조직화를 방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 〈진보평론〉 2014년 가을 (제61호), 2014.9,

이신철, ‘미국 기독교 우파의 이념적 특징과 정치참여’, 〈사회와 철학〉 제10호.

신진옥, ‘보수단체 이데올로기의 개념 구조, 2000~2006:반공, 보수, 시장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2008년 여름호(통권 제78호)

정원희, ‘한국 개신교의 동성애 논쟁과 사회적 실천:감정 동학과 종교적 의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석사학위논문, 2013년 8월

프레시안, ‘장행훈의 광야의 외침(8)-미국은 어떻게 보수가 되었나⑤’

<http://me2.do/FPfQR7S6>

리그베다 위키, ‘신사도운동’ <http://me2.do/GR7NjTOV>

Chistian Q&A 게시판 http://www.christianqna.org/bbs/board.php?bo_table=z5_1

경향신문 1975년 12월 18일자 기사, ‘개신교 성직자 26%가 신의 존재 안 믿거나 의심, 1575명 의식 구조조사’ <http://me2.do/x13y2r2q>

[홈페이지]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선민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홀리라이프

한국성경적상담사협회

[이야기방]

성소수자 자살예방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간담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마음연결 프로젝트

프로그램 순서

사회 : 전재우 (친구사이 고문)

1. 소개
2. 발제 1 : 소수자 스트레스와 LGBT 정신건강 (발표: 호림)
3. 발제 2 : 자살로부터 더 안전한 커뮤니티 만들기 (발표: 박재완)
4. 질의 & 응답
5. 휴식
6. 간담회

소수자 스트레스가 한국 성소수자(LGB)에게 미치는 영향⁵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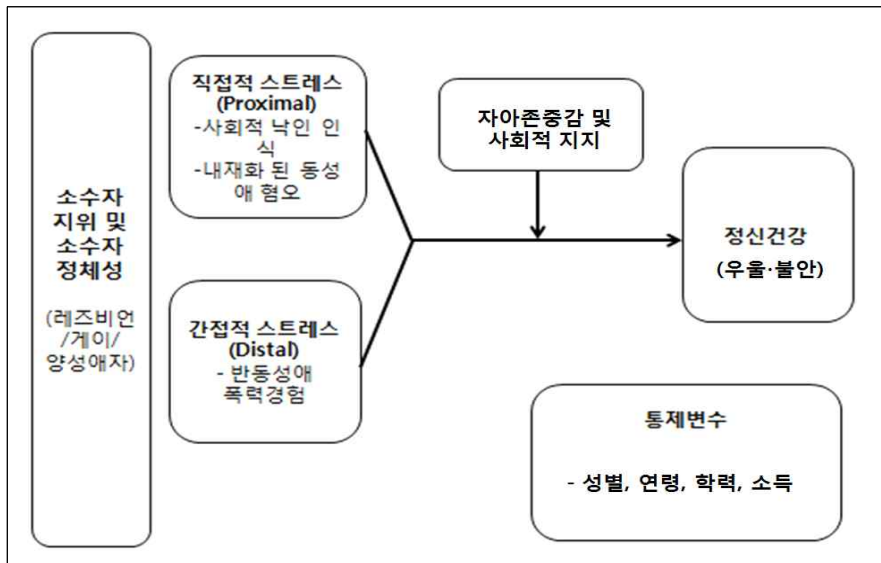
이호림(사회복지학 석사)

1. 들어가기

본 연구는 성소수자라는 소수자 지위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서 비롯되는 소수자 스트레스가 한국 성소수자(남녀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Lesbian, Gay, Bisexual)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수자(LGB)의 소수자 스트레스 과정 모형(Meyer, 2003)을 활용하여 직접적 소수자 스트레스인 사회적 낙인 인식과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와 간접적 스트레스인 반동성애 폭력 경험이 성소수자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소수자 스트레스가 성소수자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어떻게 조절하는 가를 살펴보았다.

58) 본 발표는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논문으로 인준 된 연구 내용 요약 및 설문조사에 포함되었으나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자살관련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담았습니다.

* 소수자 스트레스 : 소수자 지위에서 기인하는 심리적 스트레스(Brooks, 1981; Meyer, 2003에서 재인용)로, 성소수자와 같은 낙인을 받는 소수자 집단의 구성원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높은 수준의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의미한다(Meyer, 1995; Meyer, 2003). 소수자 스트레스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받는 사회적 편견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의미하는데, 이는 독특하고, 장기적이며, 사회적인 것이다(Meyer, 2003). 따라서 소수자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스트레스에 비해 더 많은 대처전략과 자원, 추가적 적응이 요구될 수 있으며, 대처전략과 자원에도 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한 독특한 특징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림 26] 연구모형

- 연구문제 1.** 소수자 스트레스는 한국 성소수자의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소수자 스트레스가 한국 성소수자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소수자 스트레스가 한국 성소수자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 연구대상 :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성소수자(동성애자와 양성애자) 중 만 18세 이상의 성인 (548명)
- 조사기간 : 2014년 8월 초에서 9월 중순까지
- 표집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한 의도적 표본추출
- 자료의 분석 : 다중회귀분석

3.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548)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396	72.3
	여성	152	27.7
연령	10대 이하	52	9.5
	20대	385	70.3
	30대	81	14.8
	40대 이상	30	5.5
학력	고등학교 이하	21	3.8
	고등학교	66	12.0
	대학교	387	70.6
	대학원 재학 이상	74	13.5
가구소득	2000 만원 미만	85	17.1
	2000 만원 이상 - 4000 만원 미만	140	25.5
	4000 만원 이상 - 6000 만원 미만	115	21.0
	6000 만원 이상 - 8000 만원 미만	56	10.2
	8000 만원 이상	101	18.4
	무응답	51	9.3
직업	학생	295	53.8
	자영업	19	3.5
	사무직관리직	57	10.4
	서비스업	48	8.8
	기능직일용직	7	1.3
	전문직	53	9.7
	무직(실직, 퇴직)	62	11.3
	기타	7	1.3

2) 연구결과

첫째, 연구문제 1은 소수자 스트레스가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으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투입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통제 한 상태에서도 직접적 스트레스인 사회적 낙인 인식과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간접적 스트레스인 반 동성애 폭력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인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스스로 내재화 한 동성애 혐오의 수준이 높을수록, 반동성애 폭력 경험이 많을수록 성소수자의 우울과 불안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연구문제 2는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독립변수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은 주 효과로 성소수자의 우울 및 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을 투입한 모형(Model 2)과 독립변수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Model 3) 간의 설명량의 변화량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수자 스트레스가 한국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조절효과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연구문제 3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일반적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지지는 주 효과로 성소수자의 우울 및 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지지를 투입한 모형(Model 4)과 독립변수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Model 5) 간의 설명량의 변화와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사회적 지지는 소수자 스트레스와 우울 및 불안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지향을 고려한 정서적 지지인 성정체성의 수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성정체성의 수용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정체성의 수용을 투입한 모형(Model 6)과 독립변수와 성정체성의 수용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Model 7)의 설명량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내재화된 동성에 혐오와 성정체성의 수용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인 내재화된 동성에 혐오와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난 성정체성의 수용의 조절효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정체성의 수용의 조절효과를 검토한 결과, 성소수자가 커밍아웃 했을 때 커밍아웃 상대의 성정체성의 수용 수준이 높거나,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수록, 내재화된 동성에 혐오가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전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조절변수 및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모두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조절변수를 투입한 모형(Model 8)과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Model 9) 간의 설명량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내재화된 동성에 혐오와 성정체성의 수용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통합모형에서도 성정체성의 수용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성정체성의 수용은 내재화된 동성에 혐오와 우울·불안의 관계에서 강한 조절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자살관련 변수에 대한 추가분석 결과

1) 자살생각

[표 2] 자살생각 빈도

퍼센트(빈도) (n=548)

	전혀없다	지난달 없다	한달 1번	한달 2-3번	일주일 1번	일주일 2-3번	거의 매일	결측
1. 자살을 할 까 생각했다	33.2 (182)	35.8 (196)	12.0 (66)	6.9 (38)	3.3 (18)	4.6 (25)	4.0 (22)	0.2 (1)

2. 어떻게 자살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봤다	40.3 (221)	33.2 (182)	11.1 (61)	5.8 (32)	2.0 (11)	4.2 (23)	2.9 (16)	0.4 (2)
3. 언제 자살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봤다	45.8 (251)	32.3 (177)	8.2 (45)	4.9 (27)	2.4 (13)	3.5 (19)	2.6 (14)	0.4 (2)
4. 내가 죽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46.5 (255)	25.9 (142)	11.7 (64)	5.8 (32)	2.7 (15)	3.6 (20)	2.9 (16)	0.7 (4)
5. 사람들이 자살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다	39.6 (217)	30.1 (165)	15.1 (83)	6.6 (36)	2.0 (11)	3.6 (20)	2.7 (15)	0.2 (1)
6.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48.4 (265)	24.6 (135)	11.7 (64)	5.5 (30)	2.0 (11)	4.2 (23)	2.9(16)	0.7 (4)

[표 3] 자살생각 변수의 기술통계

평균	표준 편차	범위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1.19	1.39	0-6	0	6	1.659	2.372

- 지난 1년간 1번 이상 “자살을 할까 생각했다”고 응답한 연구참여자가 전체의 64.8%
- 자살생각 변수와 다른 변수들의 상관관계 - 성정체성의 수용 변수와 자살생각 변수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음.
- 국민건강영양조사(2010), 전체 대상자 6,283명 중 지난 1년간 자살 생각률은 14.8% (박은옥, 최수정, 2013)
- 세계정신건강조사(The World Mental Health Surveys), 1년 자살 생각률은 2.1 ~ 2.2% (OECD, 2011)

2) 자살 시도 및 횟수

[표 4] 자살 시도 경험

(n=548)

	빈도	퍼센트
있다	140	25.5
없다	402	73.4
결측	6	1.1

[표 5] 자살 시도 횟수

(n=142)

	빈도	퍼센트
1번	59	10.8
2번	36	6.6
3번	25	4.6
4번 이상	22	4.1

- 한국 LGBTI 사회적 욕구조사 보고서(2012) 전체 응답자의 28.4%가 자살을, 35.0%가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음.

4. 결론

-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까지 적은 수이지만, 선행연구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및 이로 인한 소수자 스트레스가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으며, 본 연구결과도 선행연구와 연장선상에 있음. 본 연구는 ‘성소수자의 소수자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된 연구였음. 연구를 통해 내재화 된 동성애 혐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주변인들의 성정체성에 대한 수용이 완충함을 발견할 수 있었음. (하지만, 자살생각과 성정체성의 수용 변수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성정체성의 수용이 자살생각에 대해서는 완충효과를 가지지 못할 수 있음.)
-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 성소수자의 자살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줌. 자살위험성과 관련된 요인(보호요인/위험요인)에 대한 연구 등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및 자살위험성에 대한 개입의 단초를 찾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박은옥·최수정 (2013). 한국 성인의 자살생각률과 관련요인. 정신간호학회지, 22(2), 88-96.
- 성적지향성별정체성법정책연구회(2014).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최종보고서.
- Meyer, I. H. (1995). Minority stress and mental health in gay me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1), 38-56.
- _____ (2003). Prejudice, Social Stress, and Mental Health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opulations: Conceptual Issues and Research Evid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29, 674-697.
- OECD. (2011). "Suicide", in health at a glance 2011: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자살로부터 더 안전한 커뮤니티 만들기

발제자: 박재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마음연결 팀장)

○ 배경 및 기획의도

매 해 전 세계 대략 일 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다[1]. 국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자살한 사람은 15,566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31.2 명으로 전년도 대비 19.3%가 상승하였음을 보고 하였다[2,3].

국내 자살률은 해마다 증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높다[2,3]. 한국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 기관들은 다양한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3,4,5,6,7]. 공성욱 등(2002)은 20~30대 남성 동성애자군과 남성 이성애자군을 대상으로 삶의 질과 정신건강 비교에서 삶의 질과 가족의 결속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우울감과 자살사고가 높게 나타났다[8].

강병철, 하경희(2005)는 청소년 동성애자 연구에서 70% 이상이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매우 자주 해 봤다’ 도 18.1% 이었고, 실제로 자살시도를 해 본 경우가 45.7%로 전체 청소년의 자살시도 10%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을 하였다[9].

나영정 등(2014)은 4,176명이 참여한 한국 성소수자(LGBTI)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28.4%가 자살을, 35.0%가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으며, 특히 연령이 낮은 18세 이하의 응답자 중 45.7%가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고 53.3%가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어, 거의 두 명 중 한 명꼴로 그 비율이 심각하게 높다. 또 성소수자라는 점 때문에 차별이나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자살시도와 자해시도의 비율은 각각 40.9%와 48.1%로, 차별이나 폭력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각각 20.7%,26.9%)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보고를 하였다[10].

외국 성소수자 자살 관련 연구들도 이성애자에 비해서 성소수자들의 자살시도가 2~3배 높다고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전 세계적인, 국가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살위험이 높은 한 집단에 대한 깊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으며, 이들은 바로 성소수자 집단이라고 주장을 하였다[11].

다시 말하자면, 국내 성소수자의 자살위험은 이성애자에 비해서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도, 국가적 차원의 예방 노력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이에 자살로부터 더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커뮤니티 전체적으로 지혜를 모우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친구사이 성소수자자살예방프로젝

트- 마음연결은 성소수자의 자살위험 인식을 커뮤니티가 높이고, 자살예방이라는 공동의 활동 목표를 만들고자 한다. 그 첫 순서로 LGBT 포럼에서 자살에 대한 커뮤니티 경험을 나누고 우리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참고문헌]

- World Health Organization, Public Health Action For The Prevention Of Suicide A Framework, 2012.
National Evidence-based Collaboration Agency(NECA). NECA 원탁회의 합의문: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 각계 전문가가 바라보는 해결책은? J Korean Med Assoc, 2013 February;56(2):111-119.
Available from; [http:// dx.doi.org/10.5124/jkma.2013.56.2.111](http://dx.doi.org/10.5124/jkma.2013.56.2.111)
3. 임세원 등.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적 접근
J Korean Med Assoc, 2012 April;55(4):349-355.
Available from: [http:// dx.doi.org/10.5124/jkma.2012.55.4.349](http://dx.doi.org/10.5124/jkma.2012.55.4.349)
 4. 임현우 등. 우울증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의 과학적 근거,
J Korean Med Assoc 2011 March;54(3):275-283.
Available from DOI:10.5124/jkma.2011.54.3.275.
 5. 김성완 등. 자살과 위기중재,
J Korean Med Assoc 2012 April;55(4):341-348.
Available from: [http:// dx.doi.org/10.5124/jkma.2012.55.4.341](http://dx.doi.org/10.5124/jkma.2012.55.4.341).
 6. 전홍진 등 청소년 자살 관련 현황 및 위험요인,
J Korean Med Assoc 2013 February;56(2):93-99.
Available from:<http://dx.doi.org/10.5124/jkma.2013.56.2.93>.
 7. 배정미 등. 청소년 자살 관련 중재현황, 전략 및 연계방안,
J Korean Med Assoc 2013 February;56(2):100-110.
Available from:<http://dx.doi.org/10.5124/jkma.2013.56.2.100>
 8. 공성욱 등.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 비교,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Vol 41, No 5.2002.
 9. 강병철, 하경희(2005). 청소년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특성이 자살위험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제 12권 제 3호,2005,267-289.
 10. 나영정 등 (2014).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주년 기념사업.
 11. Suicide Prevention Resource Center, (2008). Suicide risk and prevention for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youth. Newton, MA: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Inc. This publication is available for download
: http://www.sprc.org/library/SPRC_LGBT_Youth.pdf

2. 자살로부터 더 안전한 커뮤니티 만들기 위한 간담회

(사회: 전재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고문)

[이야기 주제]

- 자살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알아보기
- LGBT 커뮤니티에서 경험한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
- 자살예방 관련 기관 이용할 때 불편함들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
- 위기에 빠진 친구를 도왔던 경험이나 커뮤니티에 바라는 점
- 정리

자살위기에 빠진 친구를 돕고 싶다면

대다수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을 꺼내기 두려워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친구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어봐주고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위기상담을 하도록 격려를 해 주세요.
우리는 사랑하는 친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연결은 성소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살위기에 빠진 성소수자들을 돕고 격려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마음연결에 전화를 해 주세요.,
훈련을(ASIST) 받은 자원 활동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 02-745-7942

이메일: chingusai@naver.com

트위터 <http://twtkr.com/chingusai>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chingusai?fref=ts>

후원 : http://chingusai.net/xe/support_130502

● 응급상황시 연락처

공공 서비스: 119, 112, 129

자살예방센터 핫라인 (24시간 상담전화) : 1577-0199

* 핸드폰으로 하실 경우 (지역번호) 1577-0199를 누르시면 됩니다.

강원도광역자살예방센터: 033-251-1970

경기도자살예방센터: 031-212-0435

광주광역시자살예방센터: 062-600-1900

부산광역시자살예방센터: 051-242-2575

서울시자살예방센터: 02-3444-9934

성북구자살예방센터: 02-916-9193

수원시자살예방센터: 031-228-3279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032-468-9911

천안시자살예방센터: 041-571-0199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02-318-3079

자살유가족 지원 기관 정보제공

한국자살예방협회: www.suicideprevention.or.kr(자.유.지.대)

3월 22일 섹션3 10:30 ~ 12:00 K203호

[이야기방]

땅동, 앞으로 뭐 할 건데?

-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땅동 설립의 의미와 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땅동

무지개청소년세이프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1년 가깝게 모금을 하고, 2014년 12월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땅동이 설립되었습니다.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니 불과 1개월 조금 넘은 신규단체입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성소수자 운동의 역사가 있었고, 위기 청소년 지원정책에서 배제되어 온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차별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땅동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단체의 자립적 운영은 물론 위기지원에 도움이 될 사람을 찾아야 하고, 기존에 운영 중이던 청소년 위기지원 단체들과의 관계망도 넓혀가야 합니다. 땅동이 위치한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무엇보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땅동을 알리고 고민이 있을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LGBTI인권포럼에서는 땅동 설립과정과 의미를 나누고, 이야기손님과 함께 성소수자 커뮤니티 안에서 땅동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지역과 위기 청소년 지원활동 안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 걸음마를 떤 땅동, 땅동이 가야할 길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야기손님

정율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땅동)_ 땅동의 설립과정 소개, 그리고 풀리지 않은 고민

이나경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_ 거리에서 만난 청소년 성소수자, 땅동의 역할

안영신 (즐거운교육상상)_ 지역에서 땅동이 할 수 있는 역할

윤영호 (전 쿼어벙, 서울시립청소년건강센터 나눈 봄 활동)_ 건강권 문제를 통해 본 청소년 성소수자, 땅동의 역할

※ LGBTI인권포럼이 진행되는 이틀 동안 땅동 홍보부스에서는 <청소년무지개와함께지원센터> 사업예산 불용관련 주민감사청구 서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북구에서 거주하는 분들, 꼭 참여해주세요!

땡동, 앞으로 뭐 할 건데?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땡동 설립의 의미와 기대

청소년위기지원센터 땡동 정을



땡동은 10대 레즈비언들 사이에서 서로를 알아봤을 때 사용하는 은어입니다. 줄여서 '땡'이라고도 말합니다. 땡동이 서로를 헌터하고 정체성을 공유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서로의 어려움, 욕구를 알아보고 함께 채워나가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땡동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보장받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편하게 쉬고, 놀고, 먹고, 자고, 씻고, 공부하고, 인권에 대해 배우고, 자립을 위해 도움을 주는 종합적인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한 전문 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존재를 거부당하는 청소년 성소수자

[단위: 명, %]

고민분야	중학생		고등학생		합계	
	인원	%	인원	%	인원	%
동성친구 감정느끼기	111	10.0	55	7.2	166	8.6
동성친구와 스킨십생각	41	8.7	47	8.8	88	8.8
성정체성 고민	62	5.6	56	4.5	118	5.0
성전환 수술 생각	16	1.5	17	1.4	33	1.4
이성 관심 없다	55	4.9	55	2.9	90	6.5
기타	15	1.8	11	0.9	26	1.1
해당없음	515	78.0	979	78.4	1,792	7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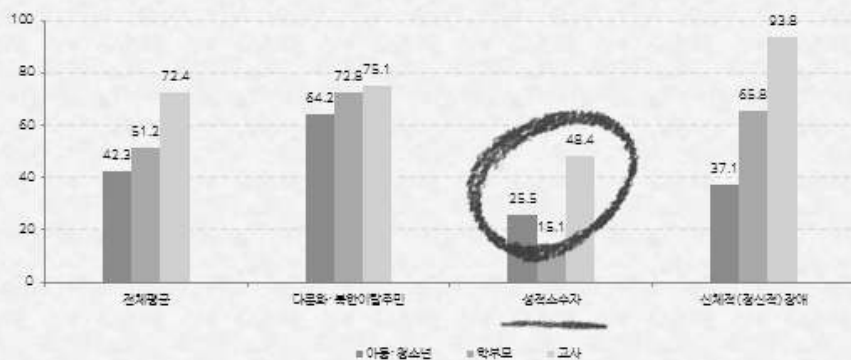
※ 2016 서울시청소년 성문화연구조사 결과 '동성과의 성관련 고민 경험'

왜 필요할까요?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부재, 차별받을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성소수자

[단위: %]

※ 2012년 서울시 아동인권실태조사 '퀴어교육에 대한 인식'
 ~를 도래 친구로 사귄 생각이 있다, 인정할 의향이 있다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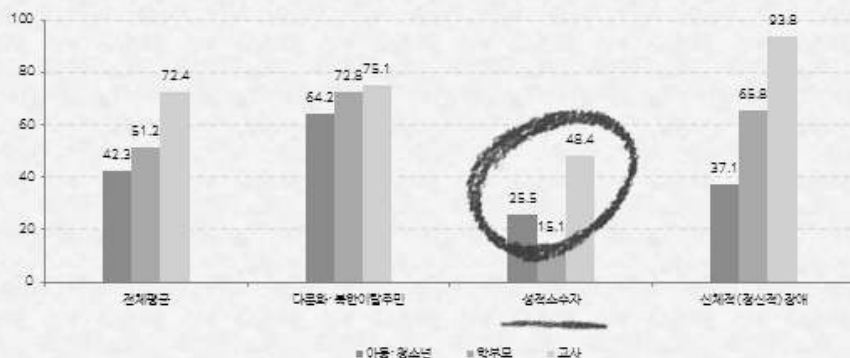


왜 필요할까요?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부재, 차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성소수자

[단위: %]

※ 2012년 서울시 아동인권실태조사 '퀴 학개념에 대한 인식'
 ~를 도대 친구로 사귄 생각이 있다, 인정할 의향이 있다
 문항



왜 필요할까요?

안전하지 않은 학교, 괴롭힘과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 성소수자

학교 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정도

	매우 심하다	심하다	보통이다	별로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응답자총계	16.1	37.8	29.3	16.9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의 종류



※ 2012년 서울시 성소수자학생인권실태조사, 단위: %

왜 필요할까요?

정신건강 위협에 노출된 청소년 성소수자

	자살시도를 한적이 있다		자해시도를 한적이 있다	
	전체	만18세미만	전체	만18세미만
응답자 통계	28.4	45.7	35.0	53.3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과 폭력경험이 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과 폭력경험이 없다	
	자살시도	자해시도	자살시도	자해시도
응답자 통계	40.9	48.1	20.7	26.9

※ 2013년 한국LGBT이슈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결과,
단위: %

2014년을 돌아보면



바자회
영화상영 및 토크쇼
모금 성공파티
해외모금
인테리어공사
개소식

2014년을 돌아보면

시기	활동내용
2014.03	무지개청소년세이프스페이스 소개 국내 웹사이트 개설 (3월25일)
2014.04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과의 간담회 (4월2일), 너나들이바자회 (4월27일)
2014.05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서울인권영화제 홍보부스 운영
2014.06	미국 뉴욕 방문 (6월27일~7월6일), 실편방문 및 모금활동
2014.07	〈Out: 이반검열 두 번째 이야기〉 후원상영회 (7월19일)
2014.08	연분홍치마 커밍아웃 다큐멘터리 3부작 후원상영회
2014.09	1단계 모금성공 축하파티 (9월26일) 2014년 아름다운재단 인큐베이팅사업 최종선정
2014.10	무지개청소년세이프스페이스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준비위원 11명) 사무실 계약, 인테리어 공사시작 (서울시성북구)
2014.11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자원활동가세미교육
2014.12	사무실 개소식 (12월22일~23일), 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 간담회 단체명 변경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핑통' 위기지원 연계기관 방문 (나는봄, 실편여성인권센터,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등)

2015년, 활동의 시작



매주 목요일 8시 실편동아웃치 활동



아웃리치용 카드



매주 토요일 핑통식당



핑가핑가모집중

땡동이 생각하는 위기지원 1순위는 누구인가요?

청소년 성소수자 그리고 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

- 정체성으로 인한 가족학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급히 위기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성소수자
- 먹거리, 주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
- 학교폭력, 괴롭힘, 따돌림으로 학교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성소수자
-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성매매를 통해 하루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청소년 성소수자
- 종교적 갈등으로 고통 받고 있고 위기중재가 필요한 청소년 성소수자
- 아직 땡동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 지 못한 청소년 성소수자

땡동 공간을 소개합니다.

 주방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잠시 눈을 붙일 수 있는 낮잠 방	 샤워실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고민을 더할 수 있는 상담실	 오픈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편하게 볼 수 있는 (컴퓨터 이용가능)
--	--	--	---	---

명동 공간을 소개합니다.



OPEN HALL
KITCHEN
SHOWER STALL
BEDROOM
COUNSELLING ROOM



명동 활동을 소개합니다.



위기상담 및 개입

이웃연결 (가려움증상담)
긴급 상황 물품지원 (의류, 장갑, 콘돔, 성지대, 위생용품 등)
피해 법률상담 및 지원
국립적 구제 (소송제, 진정제 등)
프라이데이 카페, 카루일동화스 등 우형별 전문상담
형제연결



지친 몸을 잠시 쉬게 할 안전한 공간

깨끗한 물, 깨끗한 토 시체 및 세탁기 이용 가능
당연치 않은 간식, 음료
편의차 이용 가능
낮잠 가능



청소년 성소수자들과 '함께'

다들한 법상 나누기
어울림교
문화프로그램
(청소년 스스로 기획하는 프로그램) 평등성소, 여형(가)적 프로그램 등
안전교육 프로그램

밍동 활동을 소개합니다.



'인권지수를 높여보자' 정책과 연구, 캠페인

국가당당하게 발표대회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옹호를 위한 국내외 연구
청소년인권 교사, 학부모 연례지문 및 교육
세미코론 참여인



지역에서 함께 살기

지역 아동 청소년 교육기관과 협력활동
안전교육 진행

그 외 센터 등 주거지원 준비

누가 상담을 하나요?

- 가족학대로 집을 나와 찜질방에서 잠을 자며 홀로 생활하는 레즈비언 영희
- 자신이 양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 고민하는 중3 민희
- 민희의 정체성을 알고, 홀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민희 엄마
- 동성간 성매매 경험이 있고 여전히 잠잘 곳을 찾고 있는 가출팜 19살 철수
- 철수의 페이스북 친구로 사무실에 눌러 온 19살 송환
- 그냥 우울하고 속마음을 남에게 털어놓기 어려워 전화를 한 97년생 민수

**혼자 힘들어하는 더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밍동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가길 바랍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문제 해결되었나요? (2014.4.2 성소수자인권활동가들과간담회내용중)

★ 법적 기준에 맞는 무지개쉼터 운영은 과연 가능할까.

- 가출청소년의 가정 사회로의 복귀 (법적 정의)
- 청소년기본법에 맞는 전문인력 구성
- 보호자 연락조치 원칙 (단학대 등의 요인에 의한 경우 제외)
- 단기 (3개월 내외), 중장기쉼터 (2년 내외) 성별구분 명확화
-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신고의무 준수
- 정부지원이든 아니든 여성가족부에 신고해야 할 의무 있음.
- 개인정보 통합전산시스템으로 집적

★ 24시간 운영하더라도 '일시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 일시 쉼터는 법적 제재를 피하되
- 단 며칠 간이라도 (일주일 정도)
- 기본생활지원서비스(식사, 잠자리, 샤워, 세탁 등)와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것.
- 아무리 자율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상주할 활동가가 필요함.

1년이 지난 지금, 이 문제 해결되었나요? (2014.4.2 성소수자인권활동가들과간담회내용중)

★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활동에 대한 장기적비전 부재

- 독립적인 단체로 운영하되 운영위원회 구성 고민.
- 정부위탁? 독립적 운영?

★ 어디에서 '24시간'을 해야 할 지 잘 보이지 않음. -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삶 개선험

- 낙원동? 이태원? 신촌공원?
- 서울지역에서 이미 이동상담을 하고 있는 곳 (권악, 노원 등) 과 함께?
- 이동버스도 없는데 뚝자리? 이동버스? 아니면 공간대여? 그리고 과연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

★ 위기를 드러낼수록 '청소년보호, 돌봄' 입장의 강화.

[이야기방]

성소수자 운동과 만난 연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기획의도 : 2014년 12월은 성소수자 인권운동 진영에는 중요한 시기로 기억할 것이다. 서울시민인권헌장 폐기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동성애 행보, 그리고 성북구청의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 센터> 주민참여예산의 불용과 김영배 구청장의 불성실한 사과 등으로 성소수자 인권운동 진영은 12월 서울시청에 6일간 점거 농성하고 성북구청에 하루 항의 농성을 진행했다. 인권의 제도화, 행정 과정에서 성소수자 인권 문제는 성소수자 혐오세력 등의 집단적인 혐오행위 등으로 쟁점과 논란으로 부각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들의 혐오성 발언들이나 항의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해야하는 과정도 존재했다. 이 과정에서 함께 해준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지지하고 인권운동 현장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활동가 세분을 모셔 그 과정에서의 경험들,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함께 모색해야 할 숙제들,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고자 한다.

주요 이야기 주제

1. 성소수자 혐오 세력과의 대응 경험을 통해 느낀 점
2. 성소수자 운동이 연대를 통해 만들어야 할 과제
3. 연대라는 것은 어떻게?
4. 우선 무엇을 통해 만나고 싶은지

프로그램:사회 :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이야기 손님 : **초코파이** (인권운동사랑방),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안영신** (즐거운 교육 상상)

[이야기방]

성소수자와 성소수자를 자녀로 둔 부모 간의 솔직담백 토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소수자 부모모임

사회: 모리(성소수자 부모모임)**이야기손님:** 성소수자를 자녀로 둔 부모**진행 순서**

- 짧은 강의 [5분]
- 이야기주제0: 자기소개, 참가 이유, 고민 나누기(모두) [20분]
- 이야기주제1: 왜 커밍아웃 하고 싶어요? [20분]
- 이야기주제2: 커밍아웃 전과 후, 어땠어요? [20분]
- 이야기주제3: 갈등, 상처, 화해, 지지 - 서로의 마음 느끼기 [20분]
- 이야기주제4: 커밍아웃,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왜. [20분]

<자녀/가족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가족들의 반응 단계>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바로 ‘충격적인 발견’이다.

1 단계 : 충격**● 부모가 자녀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대부분의 부모들에게 해당된다. 만약 자녀의 성정체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충격’이라는 초기 상태를 예상할 수 있다. 그것은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1주일이 지나도록 지속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보통 충격은 며칠 안에 사라진다. 충격은 우리 모두가 심각한 고민과 불쾌감을 피하기 위해 경험하는 (그리고 한동안 필요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 몇몇 부모들은 이미 알고 있기도 하다.

가끔, 어떤 부모는 아무런 충격도 받지 않을 것이다. “난 항상 네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

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다. 괜찮아. 난 널 사랑한다. 넌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거야.” 때로는 부모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우린 지난 여름에 네가 탁자에 놓고 간 편지 때문에 오랫동안 알고 있었어. 네가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이런 경우에는 그들이 이미 스스로 몇몇 단계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당신의 과제는 훨씬 더 쉬울 것이다.

2 단계 : 부정

● 위협에 대한 방어

부정은 위협적이거나 고통스러운 소식에서 어떤 사람을 방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그 사람이 그 소식을 들었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방어 기제를 만들려고 시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충격과는 다르다.

부정하는 반응은 여러 형태를 가질 수 있다.

- 1) 적대감 (“내 아들은 호모가 되지 않아”)
- 2) 새겨들지 않기 (“잘 됐구나, 애야, 저녁엔 뭘 먹고 싶니?”)
- 3) 신경쓰지 않기 (“네가 그런 생활 방식을 선택한다면,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구나.”)
- 4) 거부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극복하게 될 거다.”)

부정을 표출하는 방식은 조용한 최면부터 히스테리적인 울음과 외침까지 다양할 수 있다. 많은 부모들은中间的 방법을 택한다. 흔히 그들은 운다.

부모들은 커밍아웃한 자녀가 현재 자신의 성적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아들이 위험하고 자극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끌리게 된 어떤 형태의 동성애자 해방 활동에 말려든 것이라고 확신했다. 우리는 그 아이가 동성애에 대한 대중매체 보도에 이끌렸고 아직 미숙해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그에게 1년 넘게 쌓여온 분노를 해결하러 정신과 의사에게 한 번 가보자고 주장했다. 우리 역시 다른 시간에 의사에게 방문하기로 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치료를 원한다면

부모들은 “전형(norm)”과 “정상적인” 것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대체로 동성애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상담원들이 가족 상담을 진행할 때 치료나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를 만나기란 어렵지 않다. 선부르게 부모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단정 짓기보다 동성애, 트랜스젠더라는 성적체성이 자연스러운 한 부분임을 쉬운 용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왼손잡이라던가 어떤 사람은 두 눈이 같은 색이지만, 또 어떤 이들은 두 눈의 색이 서로 다르다라는 점을 지적해두자. 그들은 자녀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자연스럽고 솔직한 반응이란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 부모 중 한 사람은 더 느릴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부모에게 개별적으로 대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부부들은 한 사람이 주도력을 발휘해 다른 사람보다 앞서 해결책에 다가선다. 느린 쪽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흔하다. 더 빠르게 적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쪽은 그/그녀의 배우자가 실제로는 고통스런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듯이 보이게 할지도 모른다. 더 느리게 나아가는 쪽은 다른 쪽이 너무 쉽게 그 상황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속도로 나아가는 부모들은 표출되든 아니든 긴장을 경험할 것이다.

3 단계 : 죄책감

● 부모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느낄 것이다.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그것을 하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렇게 묻는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원인을 밝혀낼 수 있으면, 치료법도 멀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 원인을 유전적으로 보든 환경적으로 보든, 명백히 부모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부끄러움과 우울함을 느끼게 되어 다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보통 부모 두 사람 모두가 죄책감을 느끼지만, 그 아이와 같은 성(gender)인 부모가 대체로 더 많은 죄책감을 느낀다.

● 한 부모들은 더 큰 자책감을 느낀다.

일찍이 배우자를 잃거나, 별거, 이혼을 했다는 것 때문에 한 부모들이 더 큰 자책감을 갖는 일도 드물지 않다. “내가 널 망쳤어. 난 동시에 엄마와 아빠 모두가 될 수는 없었다.” 부모들이 죄책감을 느낄 때는 자기중심적이다. 그들은 아직 당신이 겪어온 일들에 관심이 없다. 이런 단계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열중해서 당신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 그들이 부모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인정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당신에게 그런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내가 너에게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기게 했어. 내가 널 다르게 만들었어. 나를 탓하거라.”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부모들에게는 불편한 일이다.

●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라.

상담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를 도울 수 있다. 당신은 그 원인이 그들이 보는 것만큼 단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한다. 많은 이론이 있지만 동성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라.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추천해주는 책을 부모님에게 추천해 주는 것이 좋다.

그들은 이제 신뢰하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됐을지도 모른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믿는 교회나, 성당, 절을 찾을 수도 있다. 그들이 당신이 보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서 방향을 틀게 만드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상담자를 알고 있다면, 미리 이름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동성애자 상담자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부모들은 도움을 구하러 “적진”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 부모들이 이런 제안에 바로 응답하리라 기대하지는 말라. 부끄러움과 죄책감 때문에 그들은 주저할지 모른다.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과일을 수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4 단계 : 감정 표출

●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한다.

죄책감과 자책이 헛된 일이란 것이 분명해지면 부모들은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그들의 감정을 인정할 준비가 된다. 바로 이 시점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가장 생산적인 대화가 벌어질 것이다. 이제 온갖 종류의 감정들이 쏟아져 나온다. “손자를 볼 수 없다니 정말 실망스럽구나.”, “다른 가족들한테는 말하지 말렴. 난 아직 다른 사람하고 이 문제를 마주할 준비가 안 됐다.”, “너무 외롭고 고통스럽구나. 모르는 게 나았을 것 같아.”,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니?”,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회에 살면서 성소수자들은 수많은 감정들(고립감,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상처, 혼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상담가는 성소수자들이 경험했던 감정들과 유사한 감정들을 부모님과 함께 나눌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그들 자신을 표출할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 그들의 욕구를 눌러버리지 말라. 그들이 책을 읽거나 다른 부모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 다시 한 번 그런 방법들 가운데 하나를 시도해보도록 제안하라.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해 보자고 제안해보라.

5 단계 : 결단

:: 선택의 기로

감정의 상처가 아물면서, 부모들은 대개 문제에 점점 더 합리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이 시점에 부모들은 보통 잠시 뒤로 물러나 그들 앞에 놓인 선택지를 깊이 생각해 본다. 이것은 수많은 갈래가 뻗어난 길에서 선택의 기로에 닿은 것과 마찬가지다. 각각의 사람들의 선택은 그 또는 그녀가 상황에 대처하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된 태도를 반영한다.

부모가 반드시 같은 길을 선택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많은 요인들이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친다. 동성애에 대한 책을 읽고 다른 부모들과 대화를 하는 것은 대개 그들이 좀더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해줄 것이다. 종교적 지향성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들이 평소에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지 아니면 보수적인지 또한 관련이 있다.

[결단의 선택]

1) 지지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의 성적지향이 현실임을 받아들이고 지지하며, “사랑한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자녀에 대한 사랑을 이어간다. 사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서로 신뢰하고 솔직한 단계에 있는 지금,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들의 관계가 예전보다 더 좋다고 말한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더 좋게 느끼기 시작한다. 이전에도 어렵פות이 알았을 수도 있지만, 지지자가 된 부모들은 당신의 필요를 점점 더 잘 알게 된다. 그들은 당신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 관심을 갖게 된다.

:: 여기까지만, 이제 그만.

때때로 부모들은 그 문제에 더는 토론이 필요하지 않다고 못 박는다. 그 문제를 토론할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허약한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한계를 알고 있고 그 한계를 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당신이 그런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

2) 끊임없는 불화

몇몇 경우에 자녀의 성적체성이 끊임없는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모든 행동과 말이 “문제”의 징후로[정체성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귀가 시간, 언어, 친구 선택, 직업 선택, 학교 성적 등. (그러나 실제로는 부모 개인의 불만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부모와 자녀 모두 승산 없는 상태에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쪽 부모가 이런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면, 다른 한 쪽도 다른 태도를 선택하기 어렵기 마련이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부모들은 흔히 겉으로는 서로를 지지한다. 뒤에서는 서로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말이다.

3) 퇴보

퇴보란 말은 중요하다. 문제 해결과 개인적 태도 변화는 종종 이보 전진 일보 후퇴와 같은 그림을 나타낼 수도 있다. 부모들이 한두 걸음 뒷걸음질 치거나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다시 반복하는 일은 아주 흔하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신은 실망할 수 있겠지만 사실 보통의 부모들이 그렇다.

6 단계 : 참된 용인

● 모든 부모들이 여기까지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몇몇 부모들은 이 단계까지 도달한다. 대부분은 결국에 자녀의 삶을 용인하지 않으면서도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 많은 부모가 자녀의 남다름을 축하해 줄 수도 있는 지점에 다다른다.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들은 동성애를 인간 성(性)의 정당한 표현이라고 본다. 그들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길 바라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답한다. “오히려 나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서 내 아이가 냉대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부모들은 죄가 있는 사회,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회의 일부인 자신들의 죄책감을 인정한다. 그들은 수년 동안 동성애자들을 비웃고 농담거리로 삼았던 일을 반성한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주었던 문제들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 화해하면서 그들은 모든 동성애자들에 대한 억압을 새로운 견해로 보게 된다.

그들은 억압에 맞서 주장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타인을 교육하는 방법으로서 친구들에게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은 자신의 아들딸의 성소수자 친구들을 지지한다. 그들은 다른 부모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부모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 요컨대, 그들은 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긍정적인 기여를 할 편안한 방법을 발견한다. 어떤 부모들은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어떤 부모들은 조용하게 활동한다.

당신의 성소수자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를 겪을 위험성을 줄여주고 자녀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가족들의 행동들(도움이 되는 행동들)

- 당신의 자녀와 함께 성소수자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 당신의 자녀가 동성애자 혹은 트랜스젠더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하기
- 불편한 기분을 느끼더라도 자녀의 성정체성을 지지하기
- 성정체성을 이유로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대우를 받았을 때 자녀를 옹호하기
-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당신의 성소수자 자녀를 존중해달라고 요구하기
- 자녀를 성소수자 단체나 행사에 데려가기
- 성직자와 대화하고 신앙 공동체가 성소수자를 지지하도록 촉진하기
- 장래에 대한 눈을 넓힐 수 있도록 자녀를 어린 성소수자 롤모델과 연결시켜주기
- 자녀가 성소수자 친구 혹은 연인을 집에 데려왔을 때 반갑게 맞아주기
- 자녀의 젠더표현을 지지하기
- 자녀가 어른이 되었을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임을 믿기

© Caitlin Ryan, Family Acceptance Project, 2009

공식 카페: <http://cafe.naver.com/rainbowmamapapa>

문의 메일: morithedreamer@gmail.com

[2015LGBTI 인권포럼 마무리 문화제]

우리는 원한다!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2014년 12월,

동성애,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맞서고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목사들에게 고개를 조아린 인권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에 사과를 요구하며 성소수자들과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청 로비에서 밤낮을 함께 보냈습니다.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다.’라고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며 인권은 생존권일 수 밖에 없음을 소리쳐 외쳤습니다. 멀리 지방에서 찾아온 성소수자가 농성장을 찾아왔고 단 하루만에 인권, 노동, 정당, 여성, 장애, 청소년, 교육, 종교, 이주, 시민사회 등 300여개 단체의 지지와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선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2015년 3월,

그동안 서울시와의 만남을 통해 확인한 것은 ‘자신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속내를 우아하게 내비친 것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리길 바라는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인 퀴어퍼레이드는 관변행사와 요식적인 행정절차만을 앞세우며 외면하고 있고 서울시민인권헌장 공청회 장소에서 벌인 혐오 세력들의 반인권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결과가 과연 우리들에게 희망적일지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혐오 조장 세력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빌려 버젓이 ‘탈동성애 인권포럼’을 개최하는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요.

2015년 LGBTI 인권포럼 마무리 문화제에서는 광장에서 외친 우리들의 목소리와 승리의 자긍심을 떠올리며 2015년 펼쳐질 성소수자들의 자긍심 넘치는 실천을 계획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진행 : 장병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성평등디딤돌상 및 천주교인권위원회 4회 이돈명 인권상 수상 보고
- 무지개농성단 활동 영상 스케치 (영상편집 : 김일란 _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연분홍치마)
- LGBTI 인권포럼 참가자 이야기
- 2015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공동행동 소개 등

2015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디딤돌 상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맞선 ‘무지개농성단’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인권규범으로, 인권변호사 출신인 시장이 추진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2014년 11월 30일에 서울시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조항’이 ‘전원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6차례 토론과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서울 시민이 직접 만든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가 공표를 거부함에 따라 성소수자와 인권단체로 구성된 ‘무지개농성단’은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12월 6일부터 6일 동안 점거농성을 벌이면서 ‘성소수자 차별 금지조항’이 포함된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를 요구했다.

성소수자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조차 어려운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집단적 커밍아웃’을 통해 한국사회 구성원임을 당당히 알려냈고, 시민들의 다양한 방식으로 지지와 연대를 끌어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제기하여 공감대를 넓혔고, 행정부의 인식수준과 일하는 방식에 대해 시민들과 성찰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했다.

4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 인권상 수상자 선정 이유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보수정권의 집권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보수화 되어가며 혐오범죄까지 등장한 흐름 속에서, 무지개 농성단이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고 폭넓은 연대로써 이를 넘어서고자 했던 활동이 많은 시민들의 의식을 환기시켜주었고, 이후 우리 사회와 인권운동진영이 차별과 혐오에 맞서가야할 방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무지개 농성단’을 4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인권이 숨쉴 수 있도록 서울시민인권헌장이라는 울타리를 지켜보고자 노력했고, 향후에도 인권침해와 혐오에 맞서나갈 무지개 농성단이 “법이 따뜻한 한 그릇의 밥일 수 있다”는故 이돈명 변호사님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지개 농성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차별과 혐오에 맞서 지난한 분투를 이어갈 이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4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심사 결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은주입니다.

추천서를 보내주셨던 4회 이돈명인권상 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지난 2월 말에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포함 외부 심사위원 2인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내부 심사위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4회 이돈명인권상 수상자는 무지개 농성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4회 이돈명인권상 후보였던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무지개 농성단>,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변호인단>,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모두 어느 쪽에 상을 드리더라도 무방할 정도의 후보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수상자를 선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수구정권의 집권이 장기화되면서 혐오범죄까지 등장한 흐름 속에서, 무지개 농성단이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고 폭넓은 연대로써 넘어서고자 했던 활동이 많은 시민들의 의식을 환기시켜주었고, 이후 우리 사회와 인권운동진영이 차별과 혐오에 맞서야할 방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무지개 농성단을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추천서들이 모두 공유하고 싶을만큼 좋은 글, 따뜻한 추천서였습니다. 한 곳만 선정하기가 너무 송구한 마음입니다. 추천해주신 곳들에서 계속 이어나갈 활동에 지지와 연대로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추천서를 써주시고 자료를 모아서 보내주신 것도 많이 품 들여주신 일인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시상식은 3월 19일 목요일 저녁7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열립니다.

일정이 되신다면 오셔서 수상자에게 축하해주시고 식사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뜻한 봄날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 드림

평등을 향한 성소수자들의 발걸음을 2015년에도 멈출 수 없습니다.

- 3월 21일, 22일 '2015 LGBTI 인권포럼'과

5월 16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 Day)에 평등한 세상을 바라는 광장에서 만납니다!

2014년 12월 성소수자들과 인권의 평등한 가치를 바라는 지지자들은 서울시청에서 6일간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농성 참가자들은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찬반으로 논하며 혐오를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서울시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인권 변호사 출신 선출직 공무원인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다!'를 외쳤습니다. 저항의 목소리는 종소리처럼 서울시청 밖으로 번져갔고 수많은 이들이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자발적인 성소수자들의 참여와 분노와 재치 넘치는 피켓구호 들은 시청 로비를 인권교육의 장으로 만들었고 정당, 노동, 인권, 장애, 종교, 교육 등 나열하기 벅찰 정도로 300곳이 넘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지와 연대의 발걸음이 닿았습니다. 더불어 1,000만 인구의 대도시 수도 서울 시청을 점거하는 한국 성소수자 운동의 용기 있는 직접 행동에 세계 곳곳의 응원의 목소리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답이 없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커져가는 농성장의 외침과 그림자 시위 그리고 연일 이어지는 기자회견에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12월 10일 농성 5일차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소수자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6명과의 면담과정에서 “제 책임이고 잘못이다”라는 말로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실무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관련 공무원들에게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014년 12월 11일, 서울 시청 점거 농성에서 확인했던 힘과 최근 몇 년간 확대되고 있는 혐오세력의 발흥으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세워온 인권의 원칙과 제도를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각오를 남기며 농성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무지개 농성단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후 무지개 농성단은 회의와 공개 토론회를 통해 “차별 금지 원칙이 공격받을 때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면서 성소수자 인권을 보편적 인권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하며, 무지개 농성에서 확인한 성과, 연대의 폭과 깊이를 늘려야 한다.”, “박원순 시장이 사과했다는 사실의 정치적 효과와 현실적 힘을 고려하여 어렵게 농성 종료의 결정은 비록 아쉽지만 성소수자들의 욕구, 조직력, 힘, 자원, 연대에 대한 감각이 달라지는 계기”였다는 평가들을 나누었습니다. 무지개 농성단은 이후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에 활동을 위임하며 ‘성소수자 인권 증진 활동’, ‘성소수자 혐오 대응 활동’, ‘성소수자 인권지지 세력을 넓히는 연대’의 큰 틀로 서울시청 농성의 성과를 이어가고 농성 과정에서 1,024명이 보내준 후원금을 기금으로 활용하길 부탁했습니다. 이후 무지개행동은 그간의 회의를 통해 2015년 활동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첫째, 서울시청 점거 농성의 구체적 성과를 얻기 위해 서울시 인권 행정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며 서울시청 점거 농성 백서를 제작하여 승리의 기록을 나누고 이후 활동에 큰 자산으로 삼고자 합니다.

무지개행동은 지난 1월 21일 서울시 인권과 관계자들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

시민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의 반인권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의거한 성소수자 인권 현실 파악을 위한 서울시 내 인권 실태 조사, 시 직원 대상 등 인권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마련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 포함, 시 차원의 성소수자 인식 개선의 노력, 성소수자 자긍심 축제인 퀴어문화축제-퀴어퍼레이드의 안정적 개최를 비롯 성소수자 인권 단체와의 정기적 논의 체계 구축'을 요구했고 3월에 다시 만나 구체적인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청 점거 농성의 성과를 성소수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요구안으로 만든 것입니다.

더불어 무지개행동은 지난 서울시청 점거 농성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이후 활동의 큰 자산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300여 단체들의 지지와 연대, 성명과 논평, 농성장에서 나눈 피켓과 이야기, 저녁마다 올려퍼진 성소수자들의 삶이 담긴 문화제, SNS 기록, 사진 등을 백서로 담아 2015 LGBTI 인권포럼 전까지 제작하여 인쇄비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기록들이 앞으로의 활동에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

둘째, 3월 LGBTI 인권포럼과 5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문화제 개최를 비롯해 성소수자 혐오에 맞선 대중적 운동을 조직하고 차별과 혐오에 맞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2007년 성적지향이 삭제된 차별금지법 정부안에 맞서 성소수자들은 싸웠고 이후 성소수자 인권 운동 단체들의 연대체인 무지개행동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무지개행동은 LGBT 인권포럼을 개최하며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의제와 과제들을 토론하며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LGBTI 인권포럼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우리는 원한다!'라는 슬로건으로 3월 21일, 22일 서강대학교에서 포럼을 진행합니다. 성소수자 혐오에 맞선 운동의 과제를 비롯하여 성소수자 인권 운동과 만난 활동가들과의 이야기, 정당, 가족 등 다양한 토론의 자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무지개행동은 5월 16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 Biphobia - IDAHOT, 이하 아이다호 데이)을 기념하며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맞선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아이다호 데이는 1990년 5월 17일 세계 보건 기구(WHO)에서 질병 부문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 세계 주요 도시에서 캠페인 등을 개최합니다. 올해 아이다호 데이는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거대한 저항을 만들 것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성소수자 무지개 버스를 타고 성소수자와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서울로 모여 평등한 인권의 목소리를 외칠 것입니다.

또한 무지개행동은 무자격, 반인권 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점점 인권과 거리가 멀어지는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와 혐오 세력들의 주도하에 흔들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조항의 성적지향 삭제 시도에 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연대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더불어 유엔 시민 및 정치적 권리(자유권 협약)에 관한 국제규약에 한국 정부가 외면하는 성소수자 인권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성소수자 인권 현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정부변화를 촉구하는 활동 등을 이어갈 것입니다.

셋째, 농성 기간 중 끈끈한 연대로 함께 한 곳에 후원금과 연대의 기금을 전달하고 이후에도 시민사회, 노동, 정당, 인권을 비롯 광범위한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서울시청 점거 농성 기간 동안 농성장에서 농성단의 따뜻한 밤을 함께한 침낭과 깔개, 모포

를 기억합니다. 프레스센터 전광판 위와 그 주변에서 몇 날 몇 일을 보내며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이어간 케이블 C&M 노동자들, 2년이 넘게 광화문 지하철역 지하에서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농성을 이어가는 장애인 동지들이 자신들이 덮을 침낭과 깔개를 농성단에 내어주었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현재 부당해고에 맞서 평택 쌍용차 굴뚝에 오른 노동자들, 과천에서 10년이 넘게 해고에 맞서 싸웠던 코오롱 노동자들이 농성장에 찾아와 따뜻한 연대를 보내주었습니다. 서울 시청 점거 농성은 이러한 연대가 있었기에 더욱 튼튼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시민사회 진영에 성소수자 인권과 혐오에 맞서는 것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마지노선임을 확인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무지개행동은 12월 31일 C&M 농성장을 찾아 비정규직 투쟁 기금을 전달하고 12월 27일 '쌍용차 코오롱 자본에 피흘리는 노동자들을 위한 연대의 날'에 참여하여 쌍용차, 코오롱 노동자들에게 투쟁 후원금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장을 찾아 연대 기금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무지개 행동은 노동자의 권리,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사회연대 활동에 함께하겠습니다.

2015년이 밝아 어느덧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007년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투쟁, 2011년 서울학생인권조례-서울시의원회관 점거 농성 투쟁에 이어 2014년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서울시청 점거 농성까지를 돌아봅니다. 제도적인 권리 보장은 전혀 없고 후퇴하다 못해 벼랑 끝에 내몰린 인권과 민주주의 신세처럼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용인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수년간 부딪혀온 혐오 세력들은 우익 대중 운동을 통해 세력화하면서 반인권의 논리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 인권 운동은 물러서거나 굽힘없이 여러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변화하고 있으며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커밍아웃을 통해 성소수자들의 자신감 있는 목소리는 시민사회 운동, 진보적 사회를 바라는 운동에 지지 받고 있음을 서울시청 점거 농성을 통해 거듭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에도 지난 서울시청 점거 농성장에서 함께 외친 “우리는 원한다! 권리를! 우리는 원한다! 사랑을! 우리는 원한다! 변화를!”의 목소리를 잊지 않고 성소수자 인권이 언제든 어디서든 울려퍼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에 지지와 관심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2월 9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15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참여 제안서

발 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수 신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전국의 단체, 모임, 개인 등등
담 당	이종걸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친구사이 사무국장 (010-6790-7567, smucker@naver.com)
제 목	2015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참여 제안서

1. 2014년 12월 서울시청 점거 농성을 진행한 무지개농성단의 활동을 위임 받은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 인권 증진 활동’, ‘성소수자 혐오 대응 활동’, ‘성소수자 인권지지 세력을 넓히는 연대’ 라는 세 가지 큰 의제를 주요 활동 기조로 삼고 올 한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성소수자 혐오 대응 활동’을 위해 무지개행동은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IDAHOT - International Day Against of HOmophobia ,Transphobia & Biphobia⁵⁹⁾) 에 공동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제안을 드립니다.

2. 이 5월 17일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2004년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응하자는 논의가 국제 성소수자 운동진영에서 시작되어 이 날을 기념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친구사이가 2007년 5월 16일에 ‘긴급작전: 오바로크! 이명박 동성애 혐오발언’ 라는 이름의 사이버 시위로 이 날을 알리기 시작하였고, 2012년부터 무지개행동은 5월 17일을 성소수자 혐오 대응하기 위해 하루 행동하는 날로 지난 몇 년간 함께 해왔습니다. ‘걸어 다니는 커밍아웃’ 캠페인, ‘레인보우 액션’, ‘Speak Up! Act Up!’이라는 이름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법과 제도에서 드러난 혐오의 시선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 캠페인, 플래시 몹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5월 17일로 정한 이유는 세계보건기구가 1990년 5월 17일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성애를 일종의 전염병, 정신병이라고 보는 호모포비아들의 무지와 편견에 비롯된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로 이 날을 선정한 것입니다.

3. 현재 전 세계 130여개 국가들이 5월 17일에 각국의 성소수자와 관련한 현안들을 알리는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각국의 상황에 따라 현안은 정말 다양하지만, 이렇게 하루를 잡아 집중행동을 하는 것은 좀 더 효과적으로 각국의 상황을 현지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알리고, 국회와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와 일반 대중과도 꾸준히 만나면서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무지개행동도 역시 이러한 목표와 취지에 공감하여 지난 2012년부터 5월 17일에 매해 캠페인과 플래시 몹을 진행해왔지요. 그런데 올해는 좀 더 큰 목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2014년 제15회 퀴어문화축제와 제6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집단적 광기를 목격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무지개농성단의 서울시청 점거농성과 12월 31일 성북구청 주민참여예산 불용에 대한 하루 항의농성을 통해 우리는 성소수자 인권은 곧 목숨이고 이를 위해서는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이 집단

59) 2004년 이후로 이 날을 공식적으로 기획하고 이끌고 있는 ‘Idaho committee’ (<http://dayagainsthomophobia.org/may-17/>)는 2009년부터 공식명칭에 Homophobia에 Transphobia를 추가했고, 2015년부터는 양성애자가 직면한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 Biphobia를 추가하여 ‘International Day Against of Homophobia, Transphobia & Biphobia’ 로 변경하였다. 현재 약칭으로는 ‘IDAHOT’ 로 불리고 있다.

적 성소수자 혐오세력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내에 성적지향 삭제 등을 위해 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에 돌입했고, 소수자 혐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혐오세력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에도 반대하는 등 한국의 인권시계를 과거로 되돌리고자 하는 세력들입니다. 지난 12월 서울시청 점거농성의 현장에서 이 문제가 성소수자 인권운동 진영의 문제만이 아닌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믿고 운동하는 시민사회, 인권운동 진영이 함께 싸워야할 문제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모이는 판을 만들어 가야할 중요한 시점임을 깨달았습니다.

4. 무지개행동은 지난해 12월에 경험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향한 염원을 더 크게 확장시키고 세상에 알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때 확인한 연대를 더욱 폭넓고 깊숙하게 느끼고자 합니다.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맞선 대중적 운동을 지속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무지개행동은 2015년 국제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에 적극적인 공동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무지개행동은 2월 말부터 두 번의 기획회의를 거쳐 이 날의 상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행동을 2015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줄여서 아이다호 공동행동)으로 명명했고, 이 이름을 전제 조직명으로 삼고자합니다. 서울시민 인권현장 제정과정을 통해 성소수자 혐오세력들의 민낯을 함께 목격한 그 때를 기억하며 2015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에 그 혐오로 인해 무너진 인간의 존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모이는 날(2015년 5월 16일)로 만들고자 합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목숨이기에 무지개농성단은 지난 12월 6일 서울시청에 모였고, 그 현장에서 인권을 위해 투쟁하였습니다. 이날 5월 16일은 12월에 함께 농성한 무지개농성단 뿐만 아니라 그 때 함께 하지 못했지만 멀리서도 마음을 보내준 전국 각 지역의 성소수자들, 그리고 소수자 혐오와 차별과 배제에 반대하는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이 날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농성을 위해 농성장과 온라인,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을 이날 만나고 싶습니다. 전국 각 지역의 성소수자 인권을 향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저항의 힘을 국제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만나고 싶습니다.

5. 이에 무지개행동은 이 취지에 공감하고, 함께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맞서는 것에 함께 하고자하는 단체 및 모임, 개인들에게 아이다호 공동행동에 함께 참여를 제안합니다. 아이다호 공동행동에는 무지개행동 내 단체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단체, 모임 그리고 개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자들이 첫 만남의 자리는 3월 2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 연대 (구 동인련) 교육장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5월 16일의 공동의 슬로건과 이름을 함께 정합니다. 참여자를 조직하고 이 날을 기획하며 홍보하는 기획단도 더 조직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010-6790-7567, smucker@naver.com)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문의)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 이종걸 (010-6790-7567, smucker@naver.com)